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4년 12월호
통권 308호(매월 15일 발행)
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서)24~26
198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December 1994



칼럼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보는 건축인의 시각/장응재

회원작품
상주중앙국민학교/이근곤
분당 체육 및 청소년 시설/(주)범건축
오화백의 아틀리에/최승원
서봉 미술관/김기석
천주교 문정동 교회/서상호

기고
지속가능한 사회/윤승중

일하며 생각하며
94년을 보내며/최영집
연구
한국의 전통건축/박시익
송「영조법식」(대목작 제도)주해(3)/김도경+주남철
기획연재
건축실무의 역사(4)/송 물
건축기행
고덕성당건축(7)/박효순
현상설계경기
기상청청사, 속초공항터미널, 대전중촌공동주택

12
DECEMBER

發行人: 吳雄鎬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俊憲
 委員: 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馥, 金宗植
 編輯·取材: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年 10月 23日)
 住 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 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제28회 정기총회

개회사/吳雄鎬	20
치 사/金佑錫	22

발 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보는 건축인의 시각/蔣應在	23
---------------------------	----

회원작품

상주중앙국민학교/李根坤	26
분당 체육 및 청소년 시설/(주)범건축	30
오화백의 아뜰리에/崔勝元	36
서봉미술관/金琪碩	40
천주교 문정동 교회/徐相浩	46

계획작품

천주의 성요한 수도원 및 병원/朴贊政	50
----------------------	----

회원갤러리

화합(10F, 유화)/夫大珍	52
비오날 날에/金琪碩	53

기 고

지속가능한 사회/尹承重	54
--------------	----

읽히며 생각하며

94년을 보내며/崔英集	56
--------------	----

연구

한국의 전통건축/朴時翼	58
--------------	----

기획특대

건축실무의 역사(4)/宋 律	64
-----------------	----

건축기행

고딕성당건축(7)/朴孝洵	72
---------------	----

연구

송「영조법식」〈대목작제도〉주해(3)/金度慶+朱南哲	83
-----------------------------	----

관심설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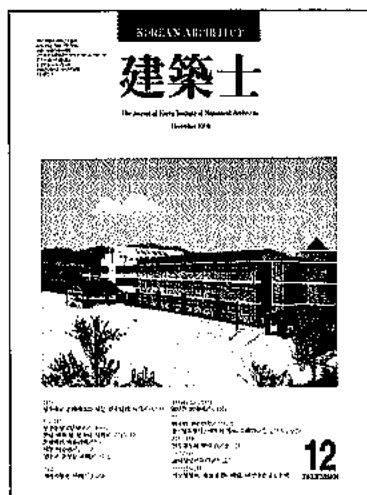
기상청 청사, 속초공항터미널, 대전중촌공동주택	90
---------------------------	----

지 료

1994년 10월분 도서신고 현황	102
--------------------	-----

협회소식

	104
--	-----



표지사진/상주중앙국민학교
(설계/이근균)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달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건축사초등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7181, 632-2143 ·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강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0158 · 종로분회/종로구수철동46-18, 735-0905 · 마포분회/마포구성산동275-1, 833-5251 ·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용구분회/용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7-6607 ·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52-8468 ·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88-1486 ·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7-3071 ·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707-4, 933-8076 ·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63-2292 · 중랑분회/중랑구면목동166-46, 437-7356 · 성북분회/성북구삼선5가410, 922-5117 ·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4, 852-2275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진구범천동047-18, 28 (051)634-4972~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1-8, (053)753-899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6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24-5, (031)43-6662, 7072 ·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대정동3407, (0342)755-5445 · 외경부분회/외경부시의정부동182, (0351)876-0458 · 송탄분회/송탄시서창동343-22, (0333)666-6153 · 고양분회/고양군원당동주교38 불려16동트, (0344)63-8902 ·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53-2337 · 이천분회/이천군이천읍동리192-1, (0336)535-0545 · 평택분회/평택시월산동220-2, (02)684-5845 ·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시흥분회/0327594-4121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석전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94, (0371)43-7290 ·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14,

THE 20th REGULAR GENERAL MEETING

Opening Address / Oh, Woong-Seok 20

Appreciation Address / Kim, Woo-Seok 22

COLUMN

One Viewpoint of Architect About the Collapse of Seongsu Bridge /
Chang, Eung-Jae 23

WORKS

Sangju Jungang Element School / Lee, Keun-Gon 26

Pundang Sports & Youth Facilities / Baum Architects 30

Mr.Oh's Artlier / Choi, Seung-Won 36

Seobong Gallery / Kim, Ki-Seok 40

Moonjong-dong Catholic Church / Seo, Sang-Ho 46

PROCESS WORK

St. John's and hospital / Park, Chan-Jeong 50

GALLERY

Harmony / Bou, Dae-Jin 52

A Rainy Day / Kim Ki-Seok 53

FEATURE

Sustainable Society / Yoon, Seung-Jung 54

ESSAY

At the End of the Year / Choi, Young-Jip 56

REPORT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 Park, Si-Ik 58

REPORT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4) / Song, Yul 64

ARCHITECTURE TRAVEL

Gothic Catholic Church Building(7) / Park, Hyo-Soon 72

REPORT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s(3) / Kim, Do-Kyoung
& Joo, Nam-Chull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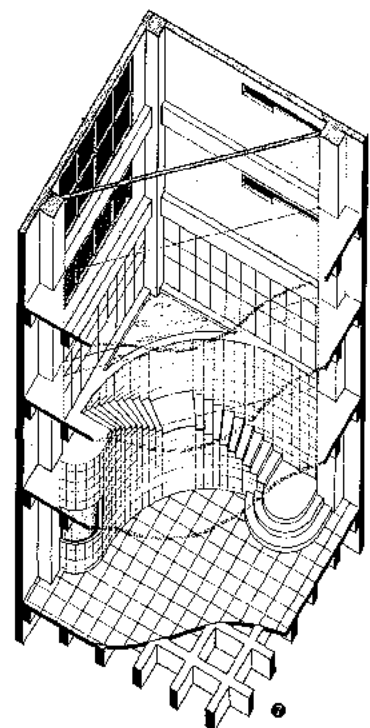
COMPETITION

Weather Bureau, Sokcho Airport Terminal, Taejon Chung-chon District
Community of Dwelling Houses 90

STATISTICS 102

KIFA NEWS 104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 / Lee, Joo-Hoon /
Yang, Hae-Yoon / Choi, Tae-Yong /
Lee, Bok / 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co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D.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0391)41-7371 · 유호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4)31-8708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월1-
9190-12, (039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216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제
천시인암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52-2, (042)256-4088 ·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
오관리238-1, (054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835-2217 · 대청분회/대천시대청동197-10, (0452)34-3367 · 서산/
(0455)64-8500
■ 전라북도건축사회/전주시 완산구 남동동 531-1, (0562)87-6007~8 · 이리분회/이리시남동동1가77-21, (0653)52-3796 · 군산분회/군
산시신상동95-4, (0654)43-3816 · 남원분회/남원시 하정동 59-1, (057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서구화정동783-238(추진회관), (062)346-7567, 33-9944 ·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72-3349 · 순천분회
/순천시장정동51-11(0651)743-2457 · 여수분회/여수시관동동441번지, (0662)652-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중구신천4동336-1, (053)742-8317~8 · 포항분회/포항시죽도동43-8, (0562)44-8029, 45-1664 · 경주분회/경주
시동원동901-4, (0561)2-4710 · 구미분회/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8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김
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 영주분회/영주시학명3동341-12, (0572)34-5560 · 청송분회/청송시중앙동280-3, (0581)53-6677 · 상주분회/
상주시남성동36-7, (0582)32-5868 · 경산분회/경산시중방동950-5, (053)812-6721 · 달성분회/달성군화원읍천내리113-3, (053)634-6336 · 영진
분회/영진시정구동26-10, (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47, (0551)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 진주분회/진주시
본성동7-20, (0551)745-6403 · 통영분회/통영시서호동163-18, (0557)645-7420 · 김해분회/김해시부안동611-1, (0525)35-5692 · 밀양분회/밀양
시새마을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3-6090 ·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
84-3050 · 거제분회/거제군신협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남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52-3248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52-2233

인식의 일대전환을 통해 세계와 미래를 향해 뛰어야...



會長 吳雄錫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전임 회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건설부 홍
철차관보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본 협회 제29회 정기총회를 맞아,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협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와 성원
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어느덧 갑술년 한해도 회한의 아쉬움속에서 12월
을 남겨둔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아켜 보면, 지나 온 갑술년은 나라안팎으로 격
변의 한 해였습니다.

나라밖으로는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
간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고조되고, 탈냉전의 분위
기속에서 자국의 이해를 앞세운 화해와 분쟁이 반복
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잇따른 각종 대형사고로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로인해 지금 사회전반에 걸쳐 자기반성과 아울
려 제도약을 위한 일대쇄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
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겸허히 되돌아 보며 과거의 무사안
일이나 일부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과감히 떨쳐버리
고, 새로운 사고와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겠
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얼마전 우리는 대형건설업체의 설계용역업 진출
기도를 접하면서 적지아니 실망과 우려를 느낀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안은 정부와 쇄신위원회 위원여러
분의 깊은 이해와 협회를 주축으로 회원모두가 총력
을 기울여 대처한 결과, 부동의 처리됨으로써 일단

락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우리의 건축문화를 저해하려는 기도가 상존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고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숙원이었던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개정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발전적인 방향으로 입안되었으나 그중에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들의 완벽한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경각하여, 빈틈없는 업무 수행으로 안전과 정확을 기해야함은 물론, 고도의 창의력을 통해 이 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감리분야의 시장개방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조기개방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UR협상 타결이후 건축업계의 시장개방은 이미 예정된 바이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이른 개방에 대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풍부한 자본과 선진 기술력을 앞세운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로 말미암아 자칫 우리의 시장이 잠식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대응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 충격의 정도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우리 건축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더 나아가 국민과 정부의 건축문화와 기술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면, 한국 건축은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그동안 건축설계용역업의 육성을 위해 준비해 온 장단기 대책들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현실에 적용시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장단기 계획에 따라, 건축설계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축설계의 전문화 유도를 통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 개개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건축연구소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시대의 건축전문인으로 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가에 봉사하는 진정한 건축사상을 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앞에 산적했던 여러 현안문제를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앞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사안들이 새로운 현안문제로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에는 닥쳐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만이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건축문화 창달의 사명을 위해 달려온 우리 건축사는 시대변화를 바로보고, 인식의 일대전환을 통해 세계와 미래를 향해 뛰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인 재임기간중 협회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큰힘이 되어주신 임원, 사·도회장 그리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새로이 탄생되는 신임회장과 집행부에도 더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발전, 그리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11. 25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吳 雄 錫**

제29회 정기총회 치사

돌이켜보면 금년은 건축사를 비롯한 모든 건설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부실공사추방」의 원년을 표방하고, 건설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전격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각종 건설사고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대다수 건설인을 안타깝게 하였으며, 건축사 여러분에게도 깊은 자책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 건설업계는 정부의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 편승하여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설계와 공사감리 그리고 시공 등의 업무에 임해왔으며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질적 발전을 등한시 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부실공사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급기야는 “성수대교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건설업계의 병폐를 들추어 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라는 후진국적 병폐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건설정책의 책임자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개선과 관련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설계와 성실한 공사감리 그리고 건실한 시공을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식과 사고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건설사고의 원인은 기술적인 결함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우리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치 못한 소치라 생각되는 바, 건축사는 건축사로서 건실한 설계와 성실한 공사감리를 행하지 못하고, 건설업계는 업계대로 불성실한 시공, 안일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한 인제가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구습을 답습한 무사안일주의,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사고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이 땅의 올바른 건축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건축사 여러분!

오늘 전국의 대의원이 모두 모이신 이자리를 빌어

건축행정의 책임자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는 우리모두가 「세계화」추진에 앞장서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마야흐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건축사여러분도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좁은시야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기술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부터 「세계화」를 추진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부실공사 부실 설계·감리의 추방에 앞장서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의식을 새겨 성실한 설계와 공사감리를 통한 부실공사추방에 앞장서고 기술개발을 서둘러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국제화·개방화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건축사협회도 무사안일과 선례답습적 구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이 선출되는 회장단과 임원진을 구심점으로 전회원과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지금까지의 구습을 탈피하고,

새시대의 건축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건축사상」을 정립하는데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로서도 민주화·자율화·지방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건축사여러분이 창의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개정코자 현재 국회에 상정중이며 일선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관행도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국의 대의원여러분이 모두 모이신 오늘의 총회가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격의없는 토론과 새로운 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오늘로서 임기를 마치시는 전임회장단과 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11. 25.

건설부장관 金 佑 錫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보는 건축인의 시각

One View Point of Architect About the Collapse of Seongsu Bridge

蔣應在/(주)원도시건축

by Chang, Eung-Jae

① 지난 가을 10월 21일 아침 성수대교의 트러스 및 상판이 붕괴된 이후 전국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규명과 대책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연일 매스컴에서는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한 조사속보가 계속되고 있다. 「관리부실」이나 또는 「시공부실」 또는 「설계부실」이나, 당초 관리부실로 보도되다가 시공부실까지 도달한 셈인데, 설계부실까지 확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이 행해지고 거의 모든 시공현장이 자의든 타의든 「점검」이 이뤄져 정부기관, 건설회사, 감리회사 등 관계된 「건설인」들이 계속 질책과 독려를 받고 있다. 관계기관의 대책회의로부터 간담회, 토론회 또 여기에 언론기관에서 기획된 부실공사의 실상에 대한 보도와 취재는 온통 그 지면과 화면을 다 채우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난마처럼 얽혀있는 부조리와 부실의 고리가 온통 사회 전반을 악순환시키고 그 부실이 대형사고를 낳게 되는 필연적인 귀착을 보고 위기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은 딱히 건설에 종사하는 「건축인」이어서만이 아닐 것이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탓인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남이 아닌 우리 모두가 빙하의 몸체가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듯 그 크디큰 부실의 톱니바퀴를 계속 쌓아온 결과가 「부실공사 추방원년」에 노출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쩌면 예견된 「필연」으로 이해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우리」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사고현장 점검에서 더 잘 보여준 것이 아닐까.

정치인, 언론인, 교수, 관리들의 사고현장 방문의 경치속에서도 어쩌면 그 허술한 안전장치하에 아슬아슬하게 끊어진 다리의 끝부분에 접근하는 그 자체가 「안전」에 대해 그만큼 무신경, 무감각한 것을 확인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잘못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우둔한 자의 짓이라 한다.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 다시 되풀이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라 배웠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계에 새 바람이 불게 되고 합리성과 신뢰가 바탕이 될 수 있는 건설 풍토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② 부실의 원인을 나열해 보자.

공사비의 과소책정, 공사기간의 단축, 정부노임 현실성 결여, 계약제도의 상호공정성 결여, 최저가낙찰제도의 일괄적용, 이렇게 기획·설계된 공사를 낙찰되기 위해서는 시공회사는 「덤핑」을 행하게 되고 이렇게 수주, 계약된 공사를 손해보지 않는 쉬운 방법으로 하청, 또 재하청이 일어나고 현장관리자인 시공회사의 엔지니어의 공사수행능력과 기술수준이 좋지 않은점, 현장작업기능인의 능력이 점점 나빠지는점, 모든 현장 종사원의 안전관리 의식도 결여돼 있는 점, 무엇보다도 종사자 누구에게도 잘 만들고 잘 관리해야 겠다는 의식이 없는 점이 큰 원인이다. 또 여기에 설계를 맡은 용역회사는 적은 설계비를 받고, 또 짧은 설계기간에 맞추어 작업하게 되고, 능력에 따른 문제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과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으며 춥고 배고픈 시절을 이기기 위해 무척이나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의식으로 「밀어부치기 식」이 박수받던 시절을 살아왔으며 「질」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양」적인 성장만을 목표로했다 함이 맞는 말일 것이다. 싸게 짓고 빨리 건설하는 모든 방법이 창안되고, 묵인되어 왔다 함이 맞지 않을까. 부실공사에 의한 사고가 있는 중에도 많은 수의 건축물이 정말 훌륭하게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관계된 사람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눈물겹도록 노력해 온 「건설인」들에게는 이렇게 싸잡아 비난받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다 할 것인가. 항상

잘못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우둔한 자의 짓이라 한다.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 다시 되풀이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라 배웠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계에 새 바람이 불게 되고 합리성과 신뢰가 바탕이 될 수 있는 건설 풍토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항상 원인과 결과의 고리는 악순환되는 것이 현실이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까지 관계되는 모든 중간 과정에 있어 왔던 부조리들은 사회전반적인 부조리에 연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안전점검」 차원을 넘는 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인과 결과의 고리는 악순환 되는 것이 현실이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까지 관계되는 모든 중간 과정에 있어 왔던 부조리들은 사회전반적인 부조리에 연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안전점검」 차원을 넘는 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③ 정부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을 보면

공사중인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장감독 및 감리기능 강화, 시공단계별 감리·감독 철저, 합리적 작업관리로 졸속공사 사전방지, 취약구간 안전시공대책 시행, 공사중사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책임의식 고취 및 협조체제 강화, 시공 및 감리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평가체제 유지, 부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의 원천적 배제, 원활한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이 제시되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①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전심사(P.Q) 제도를 확대실시하고, 현행 1백억 이상의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는 유지하되, 특수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공법, 품질관리 능력 등을 심사하는 최적격낙찰제를 도입한다 하며, ② 감리제도 개선 방안으로 책임감리 확대 실시와 감리비 현실화 감리자 교육강화 및 부실감리 처벌 강화를 할 것이며, ③ 설계제도 강화방안으로 심의의 강화 및 설계용역 부실여부도 점검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며, ④ 불법하도급의 근절대책, ⑤ 시설물 안전확보 장치 마련 방안으로 설계시 사후관리제도 개념도입, 특수 구조물에 대한 시공업체의 책임강화 및 정기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입안할 것이라 한다. 또 이에 덧붙여 ⑥ 부실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상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원칙적인 대책들로서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목 항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다 시행되어 왔던 사항들이며 정밀안전진단의 의무화, P.Q제, 감리·감독제도 강화 및 감리비 현실화 등이 새로이 강화되는 제도로 보이며 특히 설계용역에 대한 점검장치 마련이나 시설물 사후관리제도 개념도입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그 외에는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항목이 눈에 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옛날 와우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이후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점검철저나 감독철저, 지속적 평가점검 등이나 부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책은 이제 더이상 특효약일 수 없는 대책이며, 그 표제 제목이 대책일 수 없으며 더이상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반복, 시행됨에도 실효성이 없었던 바로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의 안전점검시스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언론기관에서 그렇게도 많이 취재, 소개되어도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으며 그 많은 검사와 시험을 공인기관에서 시행하여도 우리의 제품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함인지, 똑바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항상 외국의 사례에 비교하여 그렇게 못하는 국내의 설계자, 기술자들의 능력이 없음을 탓하고 또 그럴때마다 외국기술에의 개방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접할때마다 어쩔 수 없는 「국제화」의 물결로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것을 그렇게도 못 믿는 사대주의적 근성으로 이해해야 할지 정말 곤혹스러워진다. 항상 어떤 문제이든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때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며,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이뤄지는 「협조체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일 수 있으며 누가 잘못하지 않나 하고 감시와 의심의 바탕으로 하는 「대립의 관계」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항상 송사리들만 잡히는, 그래서

“

원칙적으로 건축분야는 감리단계에서 설계자를 배제한 감리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점에서 토목과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불법건축을 방지차원이나 부정방지를 위한 감시차원에서 감리개념이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품질보증」의 차원으로 「건축감리」가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 건축사도 이 시점에서 「감리업무」의 소화범위와 그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원칙론적인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설계작업의 현장업무로서의 설계감리 개념과 시공에 대한 기술적 감리·감독 업무에 대한 보수체계나 관계 제법규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큰고기들에 의해 뜯려버리는 약한 그물과 같은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어떤 경우이든지 단번에 고쳐지는 경우는 어려울 것이며 어느 단기간의 문제가 아닌 이러한 문제는 더욱 그럴것으로 생각되지만, 항상 문제파악이나 그 해결방법에서 어느 한쪽에서 다른쪽을 나쁘게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논리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축주가 세워야하는 기획업무에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업무에 대해 그 책임의 한계가 정리 되어야 할 것이며, 작성되는 도서에 대하여 최소한의 체계가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획과 설계가 혼동되고, 설계자의 도서와 시공자의 시공도가 혼동되고 있으며, 감리와 감독업무가 그 한계가 모호한 것을 보면 아직도 그 구체적 체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정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용역비와 용역기간이 현실화 되고, 감리·감독업무를 강화하게 되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될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④ 「건설공사」의 이름아래, 「토목」과 「건축」이 입법과정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는 부분이 많지만 많은 부분에서 성격적으로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목구조물」의 설계와 「건축물」의 설계는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작업인 토목설계와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 작업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 건축설계로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며, 그 작업의 복잡도도 차이나며, 규모에서, 발주형태에서, 또 용역업체의 타입도 많은 차이가 있는 점을 정책입안 과정이나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건축설계의 설계과정을 엔지니어링 위주의 방법으로 수행하려 하는 건축주(공무원)를 만난적이 많다. 항목별로 수치적으로 분석되고, 장단점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고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 분야별 검토결과를 보완하여야 하는 설계수행 방법으로는 「좋은건축」을 목표할 수 없으며, 결점이 없는 「무난한 건축」을 만들도록 유도된다고 생각된다. 디자인이나 시스템이 위주가 된 총체적 판단은 순수하게 건축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 디자인, 그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결여된 건축주와의 작업은 믿음이 없는 부부의 결혼생활 만큼이나 힘들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은 토목과는 다르게 그 「디자인」에 대한 원칙적인 이해없이 설계과정과 감리과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토목 분야의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리 업무의 시행이 설계자 위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원칙적으로 건축분야는 감리단계에서 설계자를 배제한 감리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점에서 토목과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불법건축을 방지차원이나 부정방지를 위한 감시차원에서 감리개념이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품질보증」의 차원으로 「건축감리」가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 건축사도 이 시점에서 「감리업무」의 소화범위와 그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원칙론적인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설계작업의 현장업무로서 설계감리 개념과 시공에 대한 기술적 감리·감독 업무에 대한 보수체계나 관계 제법규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주중앙국민학교

Sangju Jungang Element School

李根坤/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건축

Designed by Lee, Keun-Gon



대지위치 / 경북 상주시 남성동 140

대지면적 / 2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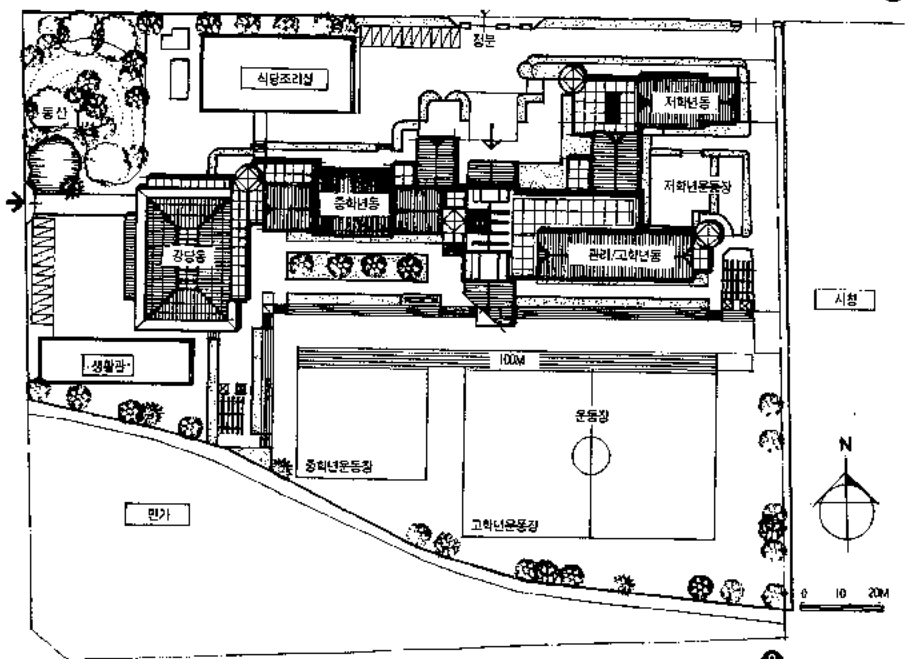
건축면적 / 3,6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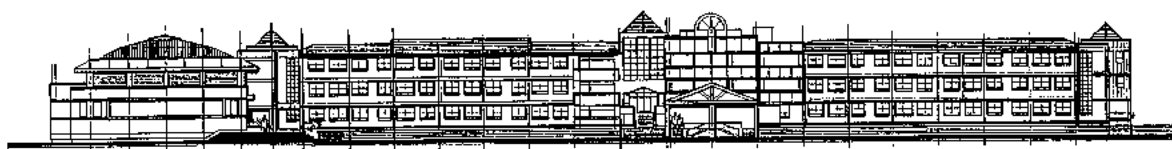
연면적 / 8,829.1㎡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외부마감 / 붉은벽돌

지붕마감 / 아스팔트 싱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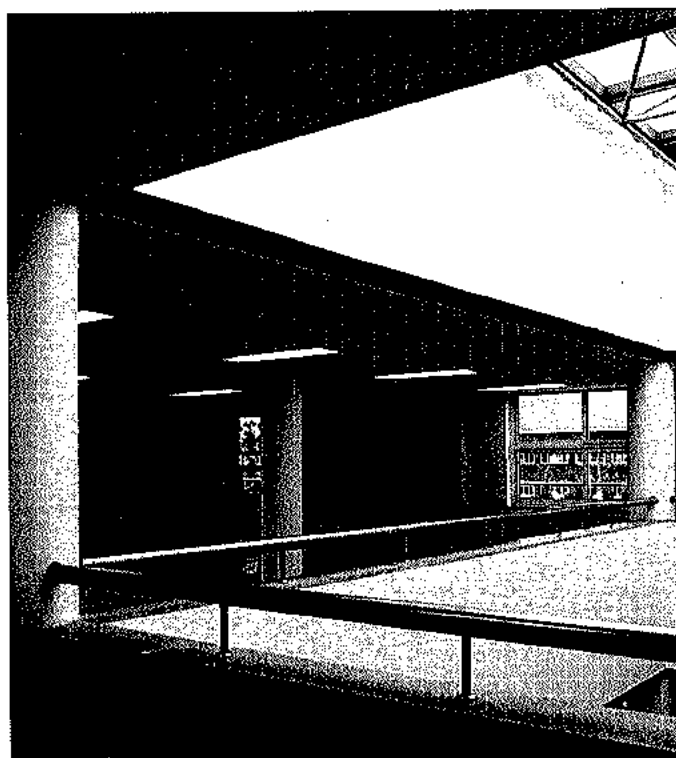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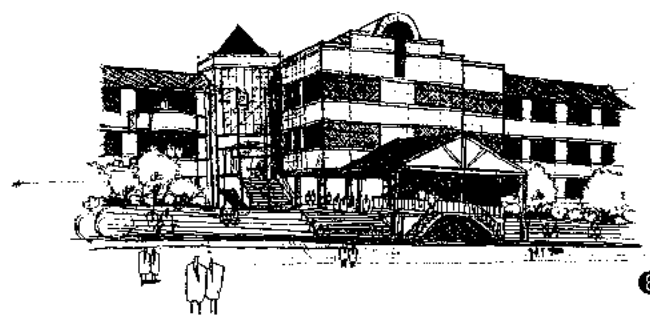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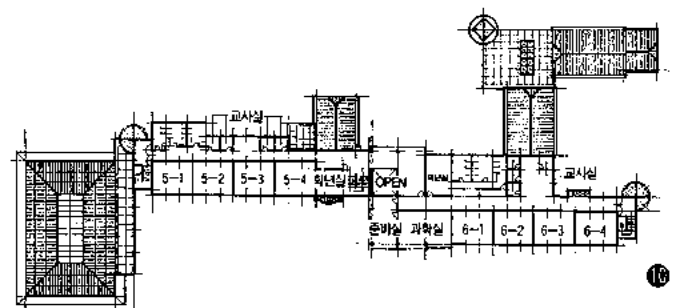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남측입면도
- ④ 정문에서 본 북측전경
- ⑤ 2층 복도에서 본 교원 휴게실
- ⑥ 주출입구 피로티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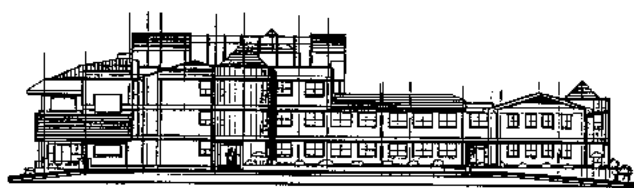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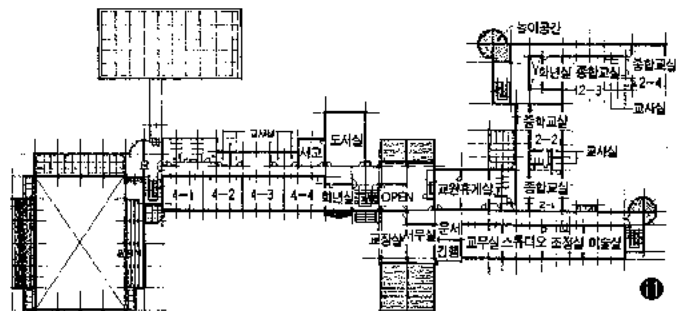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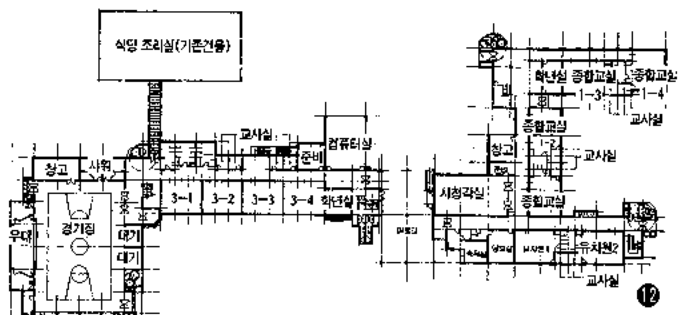
1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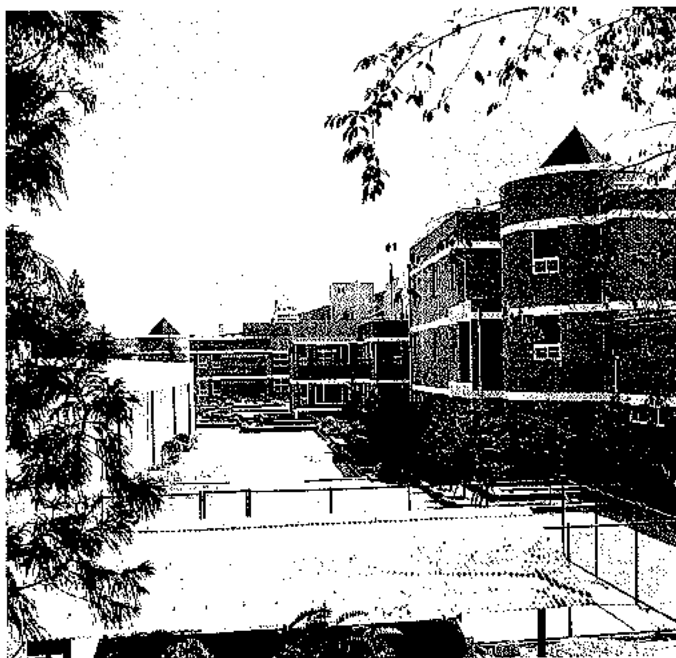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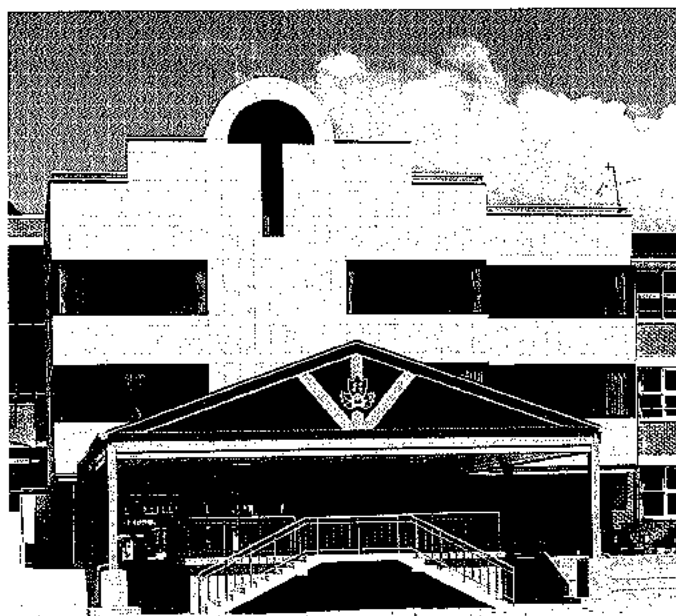


12

- ⑦ 서남측에서 본 중학년동 전경
- ⑧ 피로티 및 정면중앙부분 스케치
- ⑨ 동측입면도
- ⑩ 3층 평면도
- ⑪ 2층 평면도
- ⑫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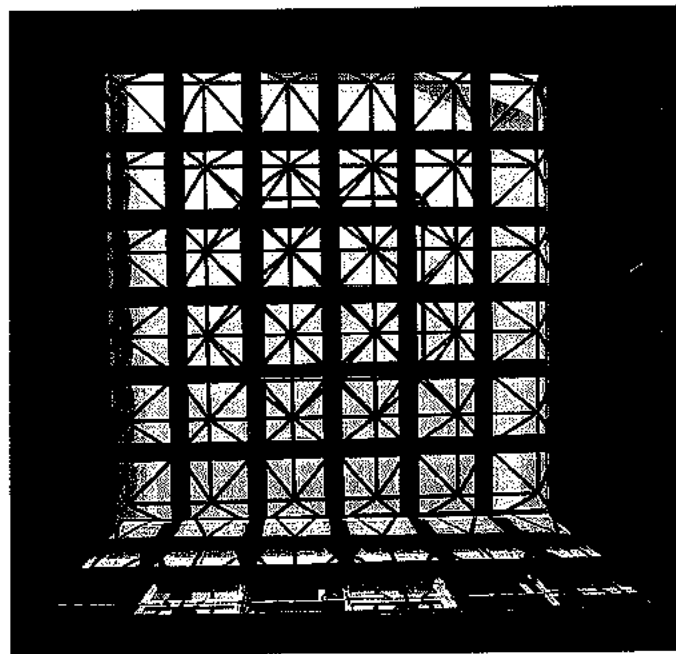
13



14



15



16

본 계획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학교 현대화 계획에 의한 각 시·도에 1개씩 지정한 경상북도 교육청 시범학교로서 조기교육과 기초교육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꿈의 학교 실현을 계획의 전제로 하였다.

주변이 시장인 기존 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의 개선책으로 옛 상주농잠학교의 부지로 이전하는 설계 과제로 2동의 기존건물과 서편 수목원 및 연못을 이용하는 배치 계획이 필요하였다. 3개만의 배치계획의 장·단점 분석결과 현 배치만을 확정하여 시범학교의 환경 및 기능을 부여하였다.

일반적인 학교의 교무실 개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교사의 별도 개인 연구실과 학년별 교무실 및 교원휴게실을 계획하여 교과운영에 능동적인 연구, 사무, 휴식공간을 구성하

였다.

또한 교감 및 주임교사만의 교무실을 계획하였으며 교무회의는 시청각실을 이용함으로써 공간활용의 극대화와 학교운영에 대한 능력을 최대화 하였다.

교과운영에 있어서도 건축적 동선 처리를 명쾌하게 하였다. 수업의 형태 및 체육활동을 분석하여 저학년(1, 2학년) 및 유치원의 경우 종합교실형으로 교사실, 화장실, 전시공간을 교실내에 두어 다양하고 지속적인 학습운영을 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또한 각학급별 교사실 옆 복도 부분에 전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였다.

외부형태에 있어서는 사고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입면형태로 ▲●를 도입하였으며, 조례대 지붕 캐노피를 본건물과 일체

형으로 하였으며, 각 요소에 조정 및 휴식공간을 계획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게하여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모태적 분위기의 외부형태를 연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실내의 요소요소에 놀이공간 및 채광창, Open Space의 공간을 확보하여 밝고 유기적인 실내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학년별 체육활동의 성격에 따른 저학년(1, 2학년), 중학교(3, 4학년), 고학년(5, 6학년)의 운동장을 분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13 배면전경

14 교사동 중앙부 피로티 전경

15 학교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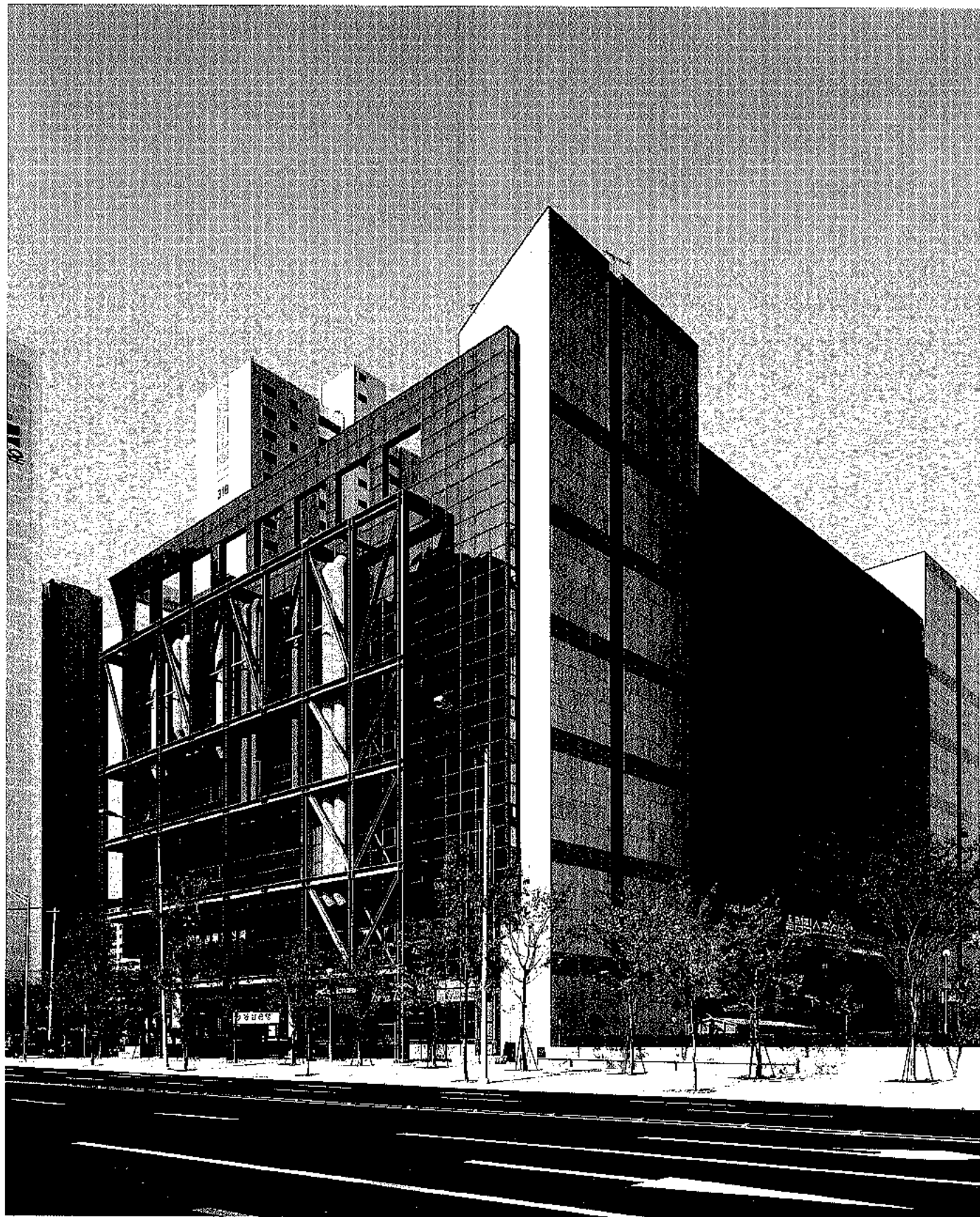
16 중앙피로티 상부

분당체육 및 청소년 시설

Pundang Sports & Youth Facilities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범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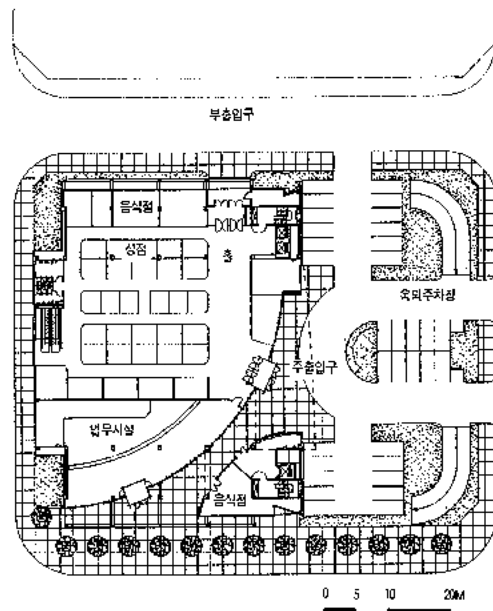
Designed by Baum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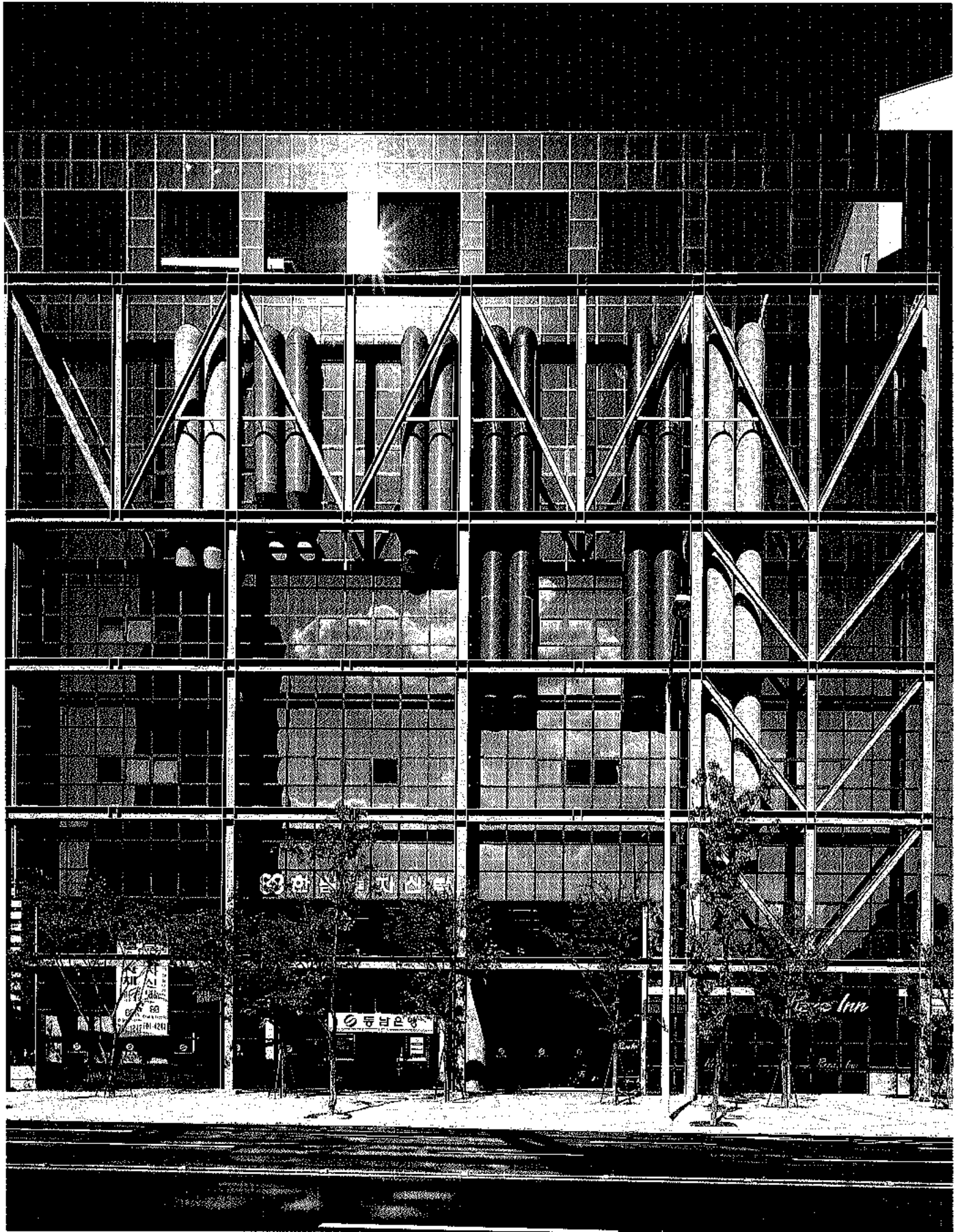
2

위치 /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내 근린상업지
 역 A1-4필지
 대지면적 / 4,558㎡
 건축면적 / 2,204.02㎡
 연면적 / 19,804.08㎡
 규모 / 지하3층, 지상5층
 구조 /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장 / 화강석 + 알미늄 커튼 월
 용도 / 아이스링크, 다목적 체육관
 에어로빅실, 헬스크럽, 수영장



3

- ① 전경
- ② 주출입구 전경
- ③ 배치도



4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하는 짧은 기간내에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 역사가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기간동안 건설된 몇개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분당의 시범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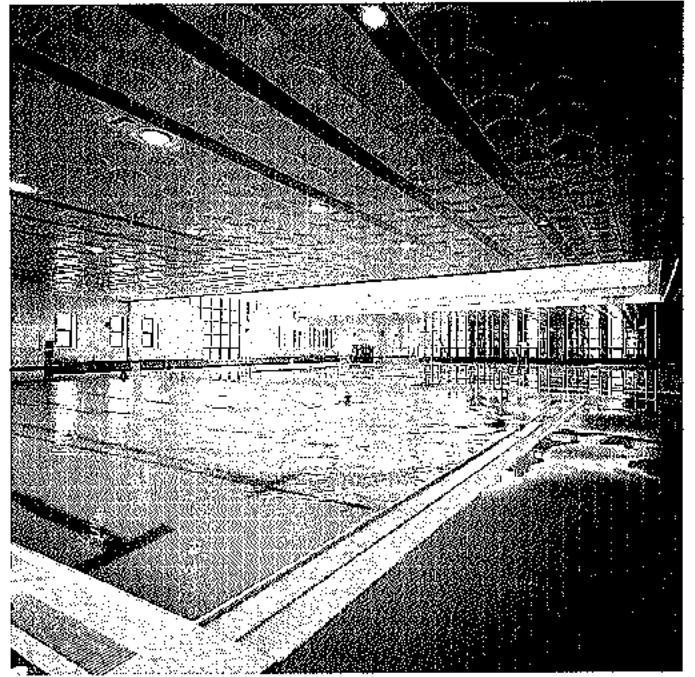
지 내에 세워진 스포츠 콤플렉스로서 88올림픽 이후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Project이다.

현상설계 과정을 거쳤지만 발주자 측의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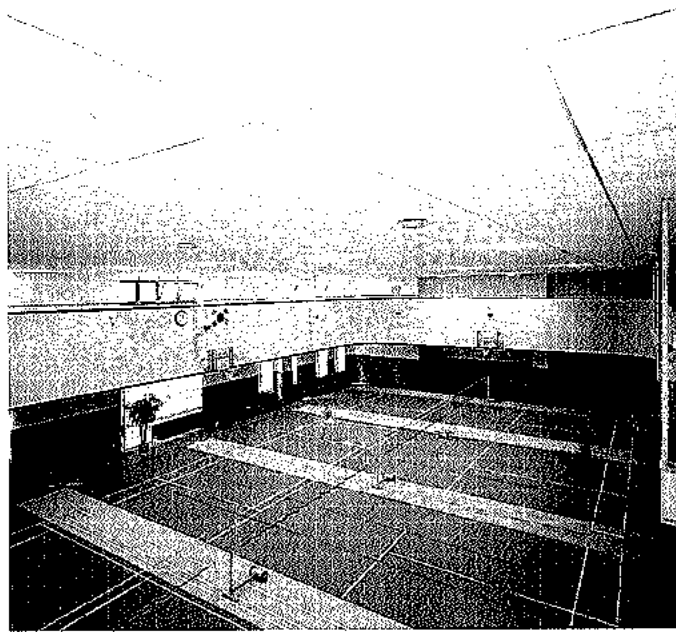
고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여러차례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반적인 상업 시설과 달리 공공적인 개념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시설을 분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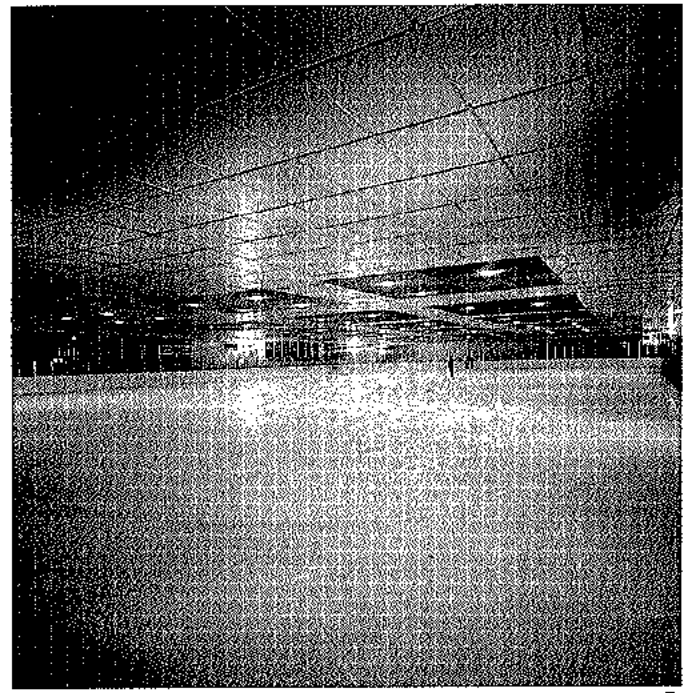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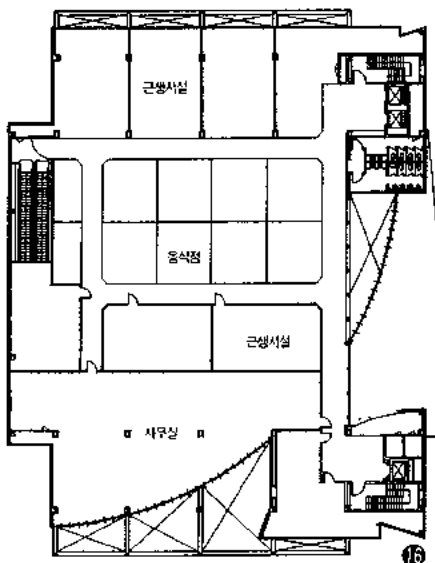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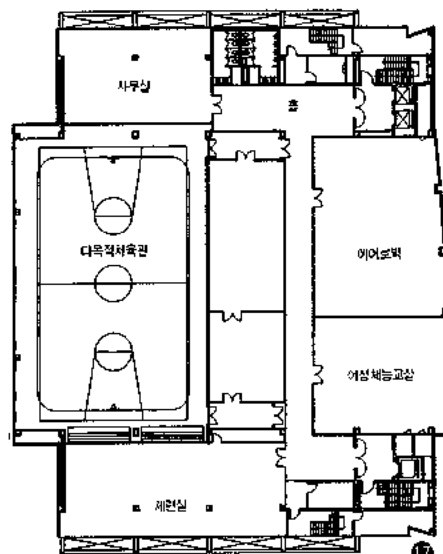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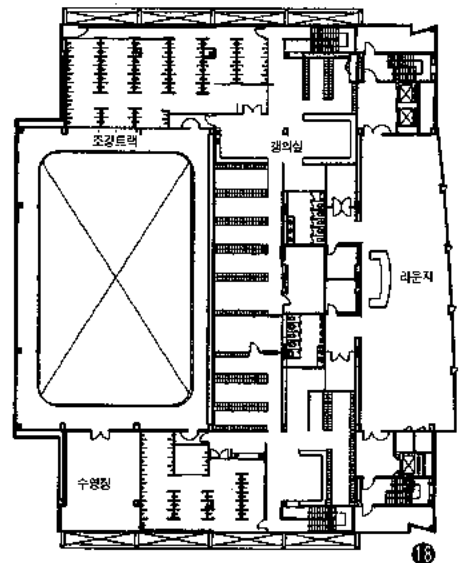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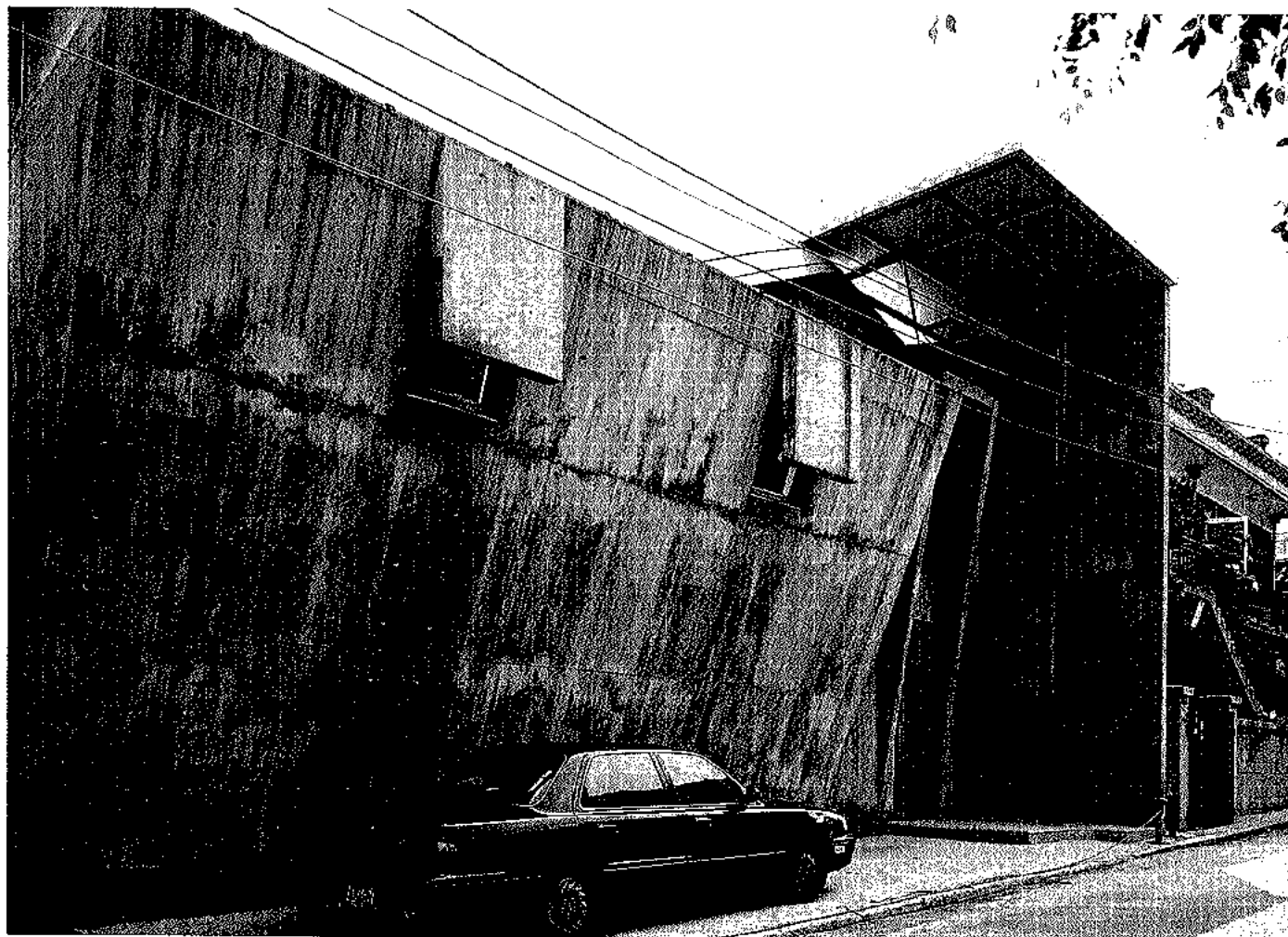
18

오화백의 아틀리에

Mr. Oh's Artlier

崔勝元/종합건축사사무소 양가주망

Designed by Choi, Seung-Won



위치 /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지역 /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 363.0m

건축면적 / 197.75m²

연면적 / 277.54m²

건폐율 / 54.48%

용적률 / 71.30%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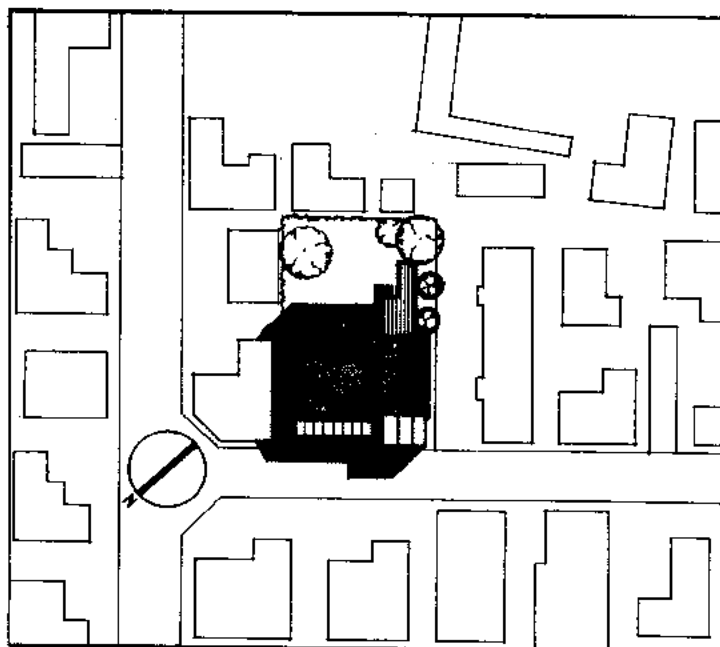
외부마감 / 벽-노출 콘크리트 마감

지붕-노출 콘크리트+아스팔트

형광

내부마감 / 바닥-폴로링 널

벽-지정스멘트벽돌 치장 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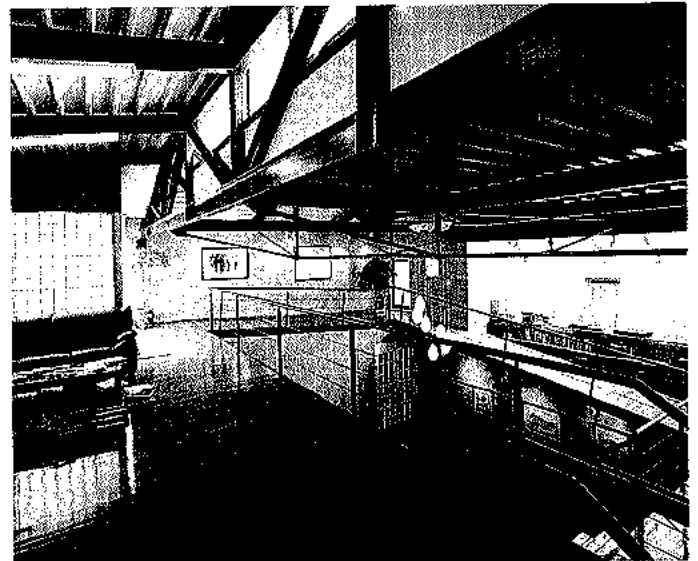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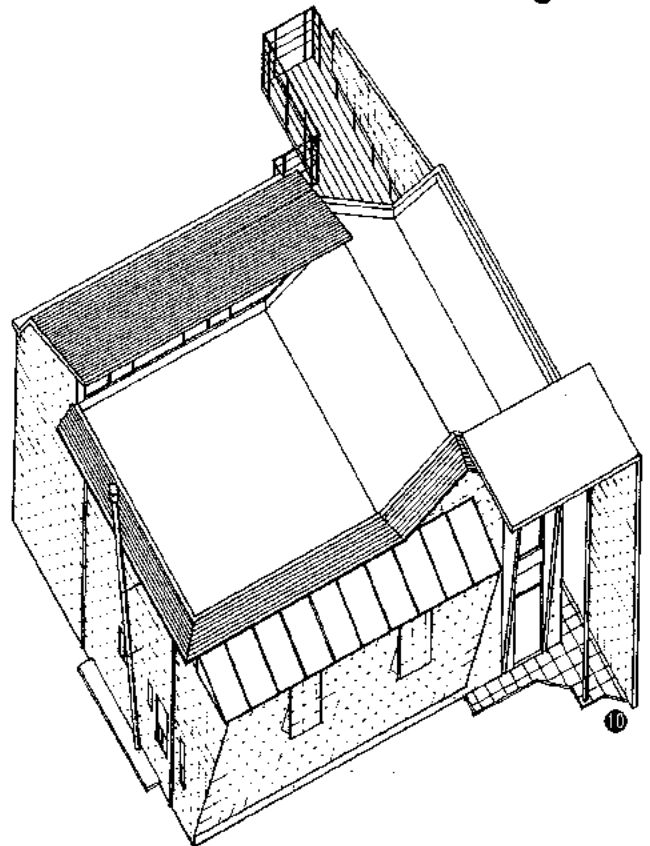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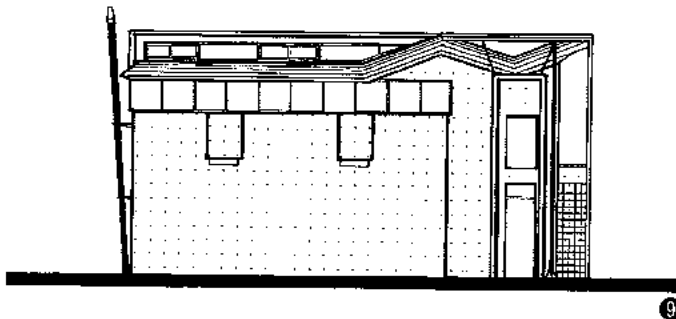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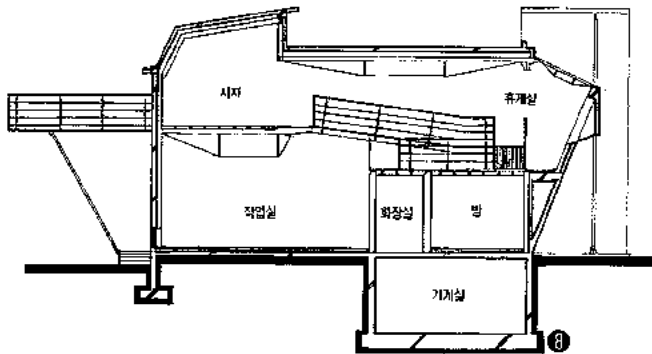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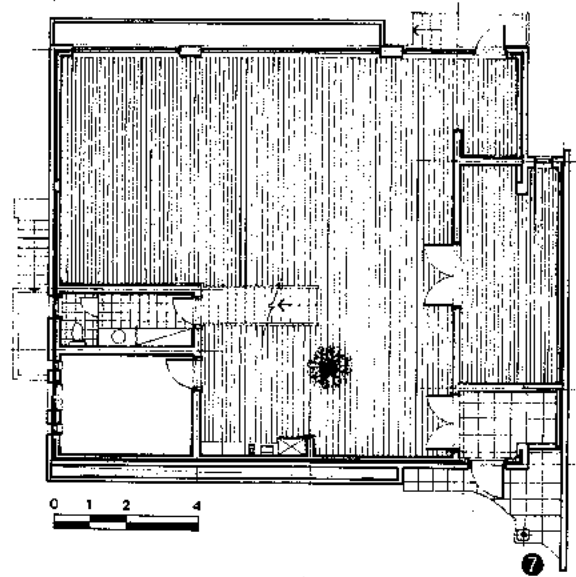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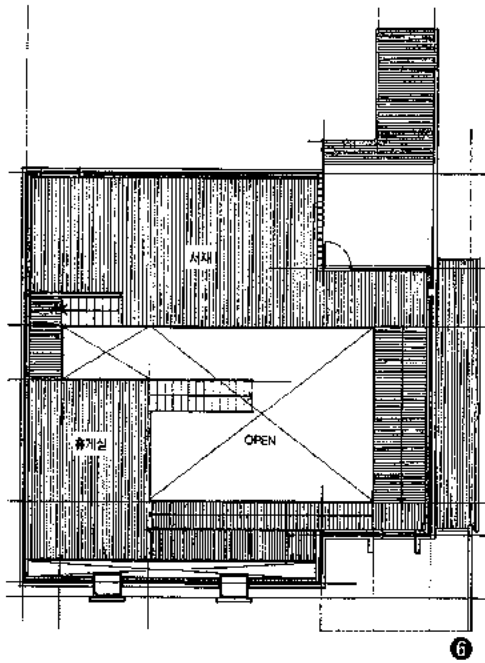


4



5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2층 휴게실과 계단부
- ④ 작업실 하단
- ⑤ 2층 휴게실에서 본 램프와 서재



대지 주변은 8cm 높이로 조성된 주택지에 계획되었다. 버려려던 포장용 박스로 가모형을 만들었다. 폐 박스에서도 재미있는 건축조형을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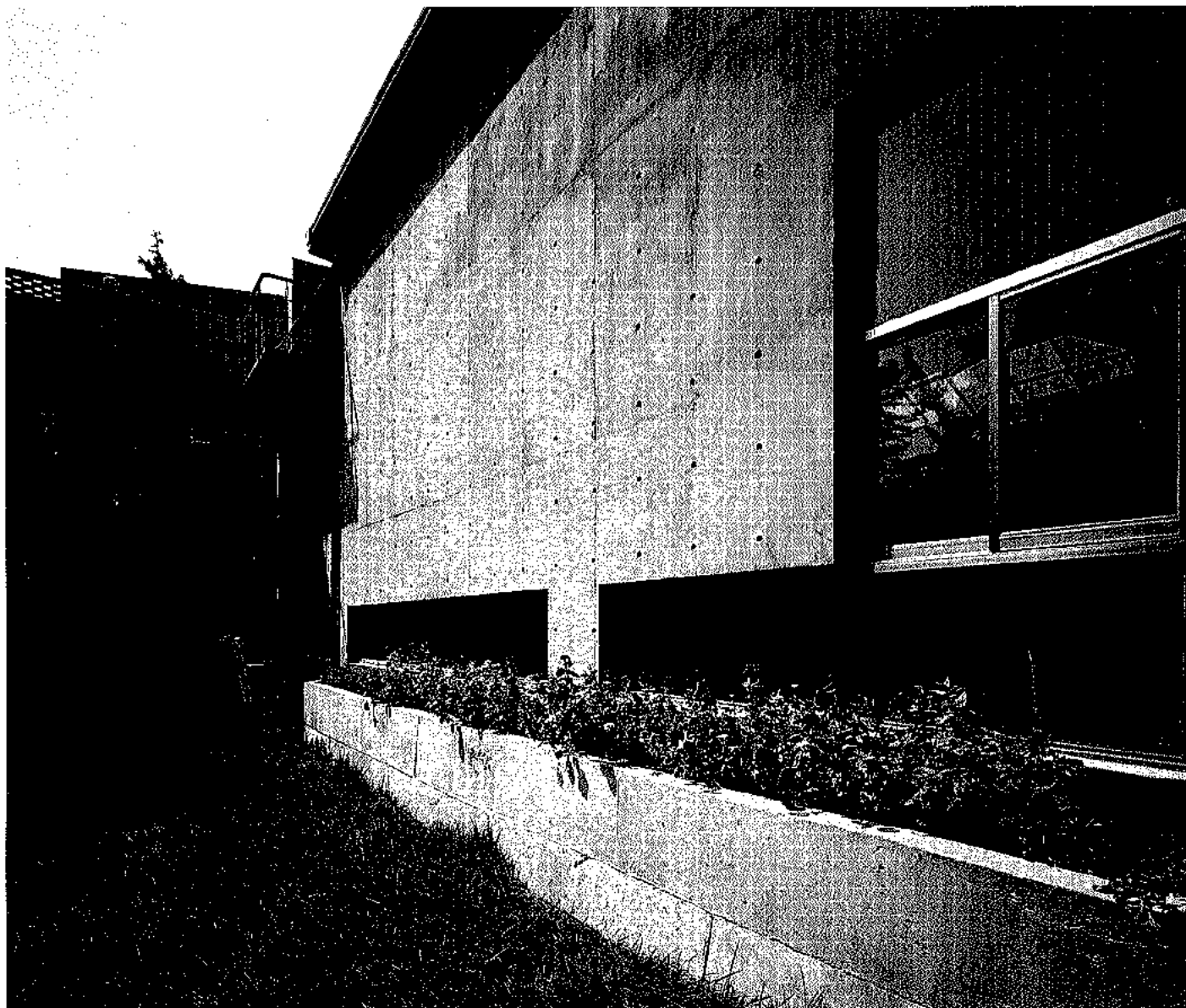
살던 집을 헐고 건축하면서 입구의 방향과 정원의 위치는 살아온 생활의 문맥에 접근시켰다. 도로에 따라 주차가 가능하게 하였고, 종이에서 오는 모양을 가지고 창 모양과 디테일을 만들었다. 화장하지 않은 외부를 본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생각치 못한 오픈된 공간이 연출되고 절제된 창을 통해 정원과 백

일홍이 보이게 되어 있다.

건축내부에 만들어진 순환로는 미로가 아니고 전체를 개방감으로 투시할 수 있는 통로이며, 이 순환로를 통해 밀도있게 들어오는 빛들을 만나게 된다. 또한 열려진 하늘도 만날 수 있고 관념적인 안마당 주변을 다양한 각도, 높이, 위치에서 제작중인 작품을 볼 수 있다.

고창이나 지붕창으로 부터 일출에서 일몰까지 온종일 빛이 조금씩 들어온다. 내부는 목재와 철이 균형있게 만나도록 처리하였다.

- ⑥ 2층 평면도
- ⑦ 1층 평면도
- ⑧ 단면도
- ⑨ 정면도
- ⑩ 아이소메트릭



11



12



13

- ① 정원에서 본 배면 발코니와 작업실 하단 개구부
- ② 정면 부분 디테일
- ③ 작업실에서 본 2층 휴게실과 경사지붕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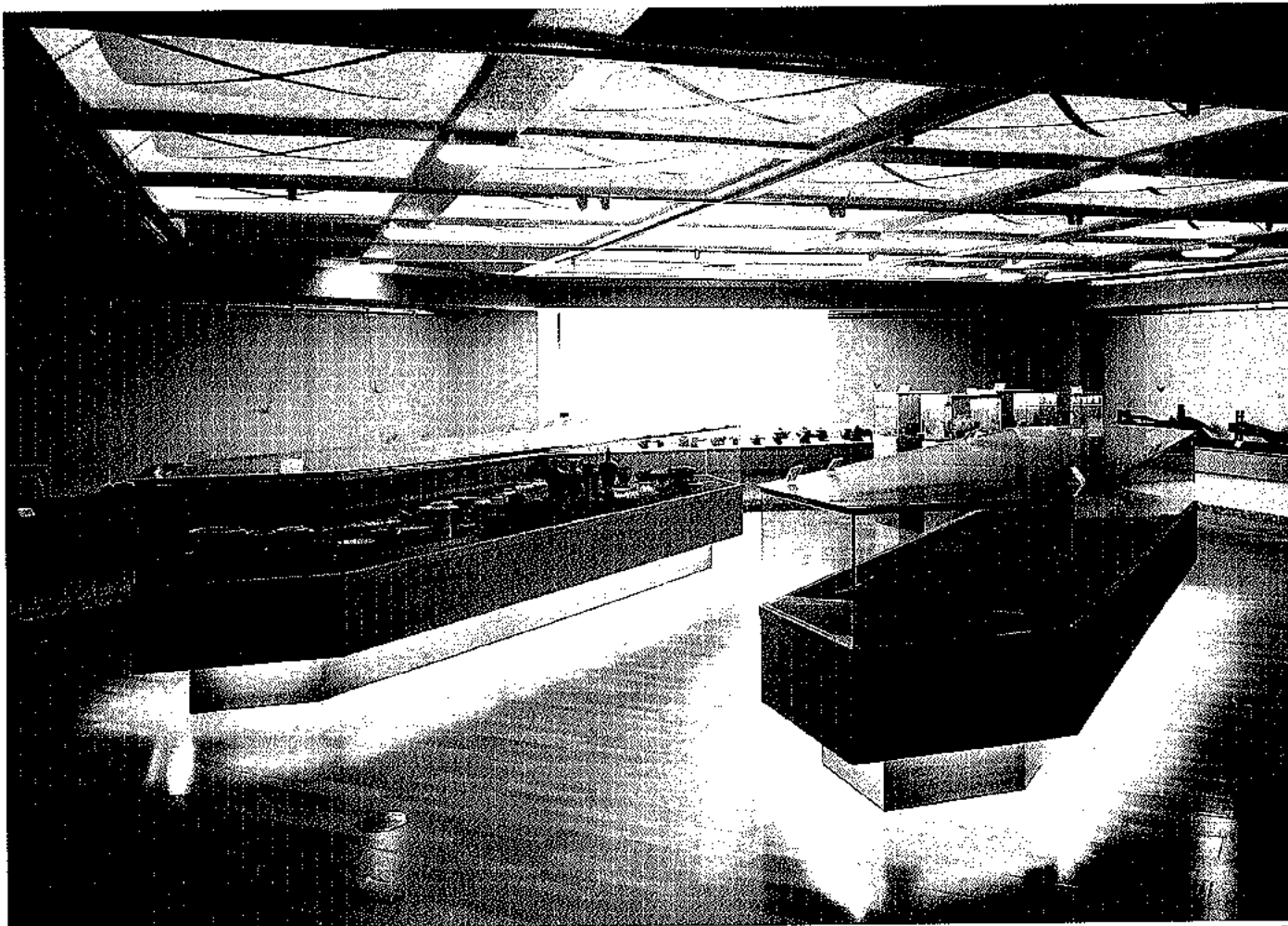
서봉 갤러리

Seobong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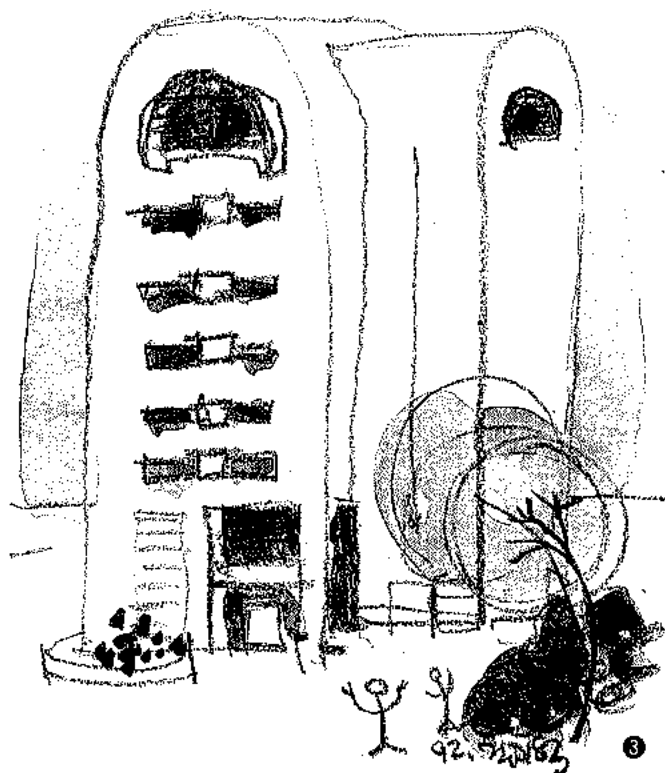
金琪碩/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

Designed by Kim, Ki-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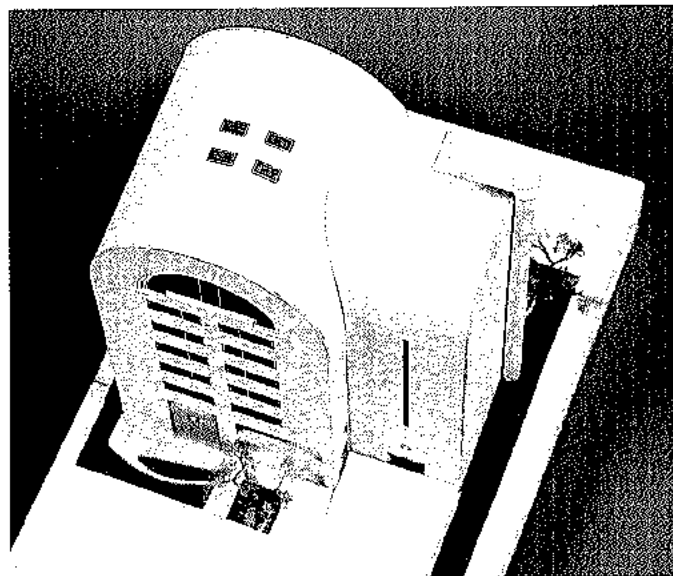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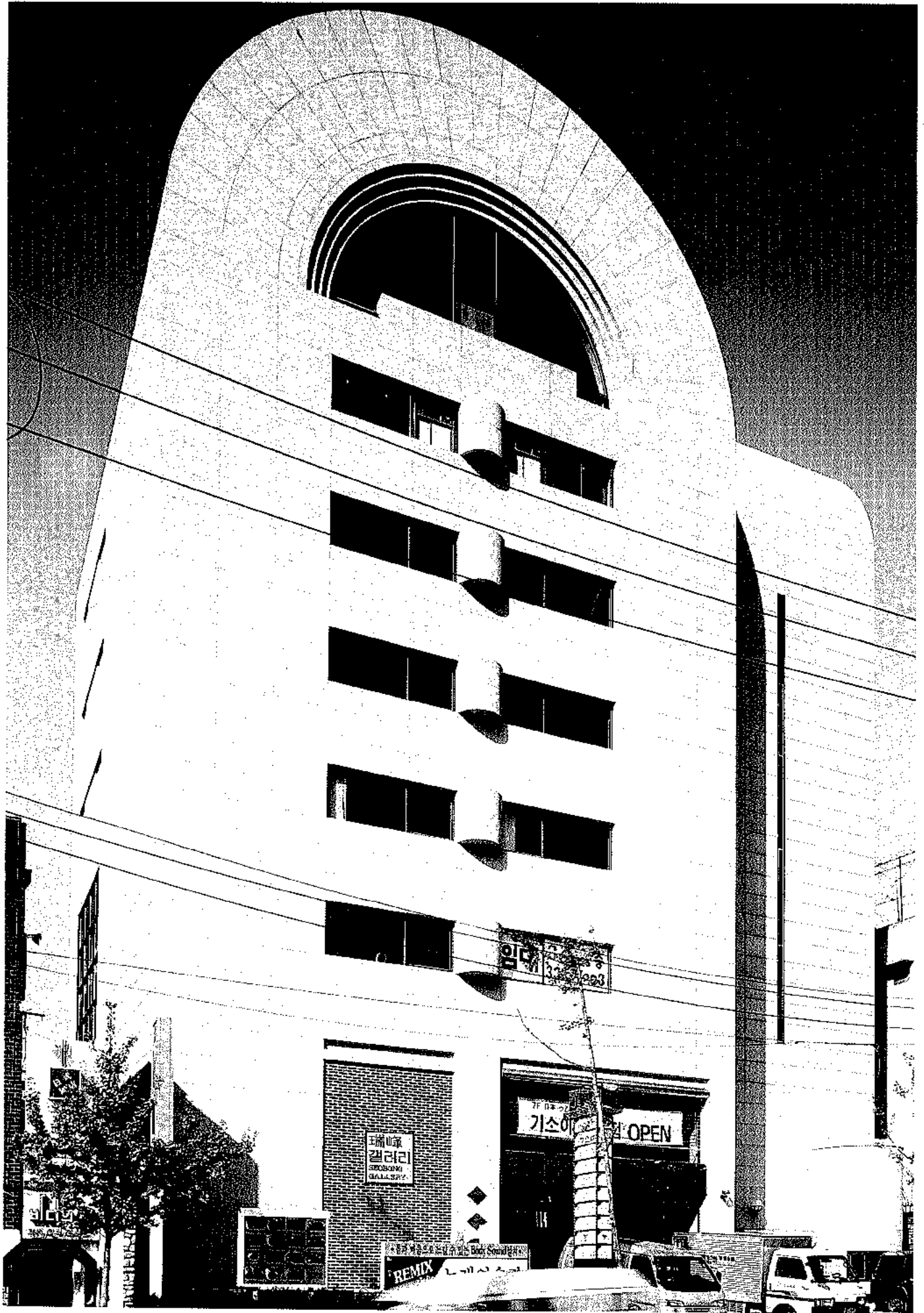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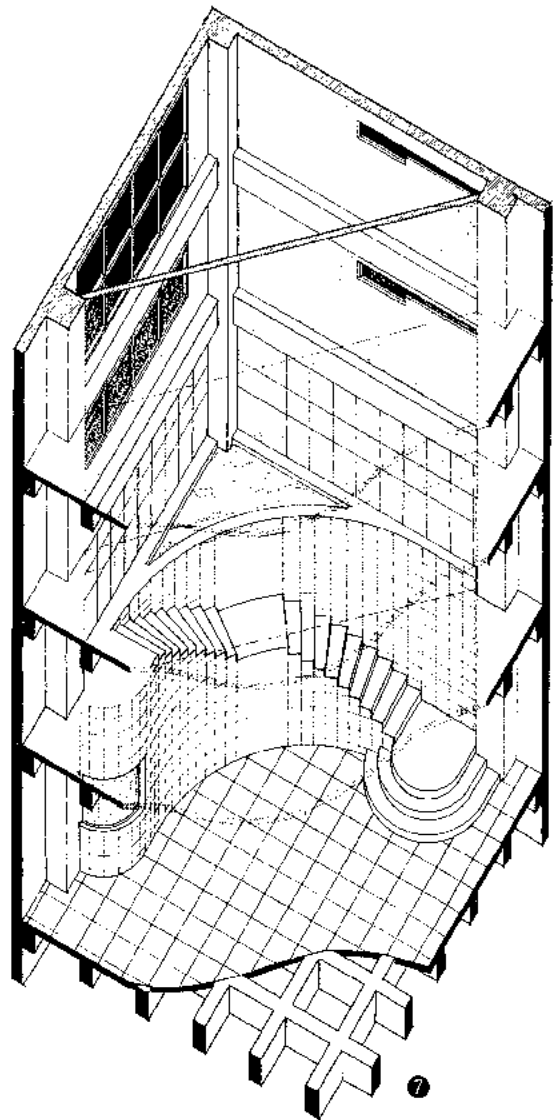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2-2, 3
 용도 / 전시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605.7㎡
 건축면적 / 308.79㎡
 연면적 / 2548.8㎡
 주차시설 / 엘리베이터식 주차타워
 20대, 자주식 2대 합계 22대
 건축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 마감

- ① 동측전경
- ② 전시시설
- ③ 스터디 스케치
- ④ 스터디 모형





⑥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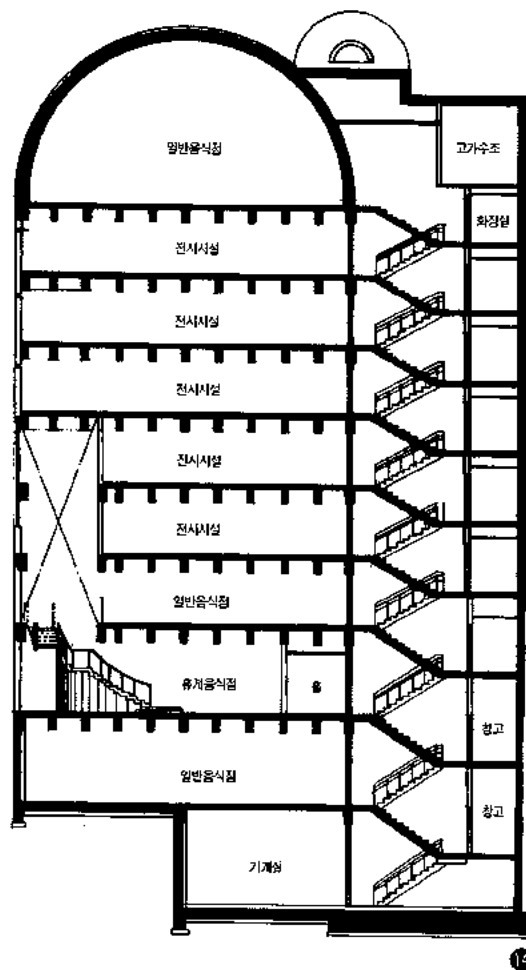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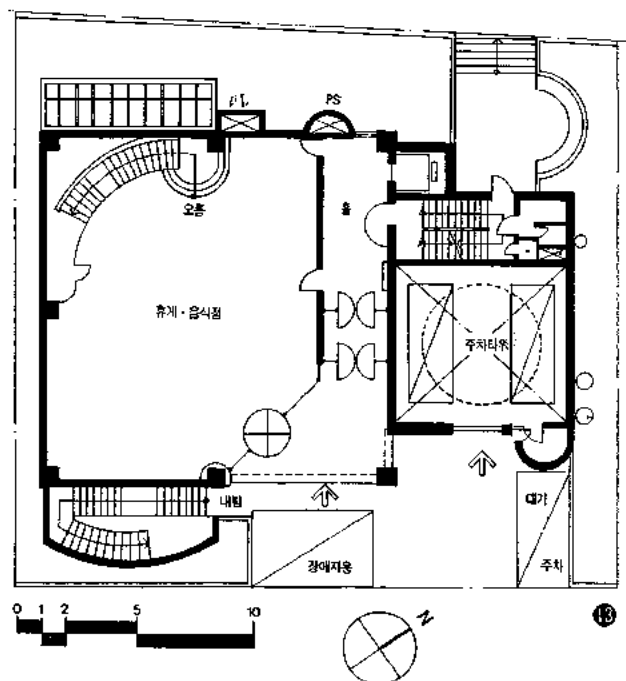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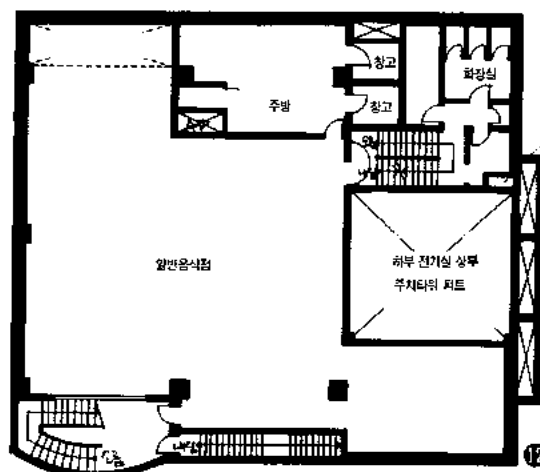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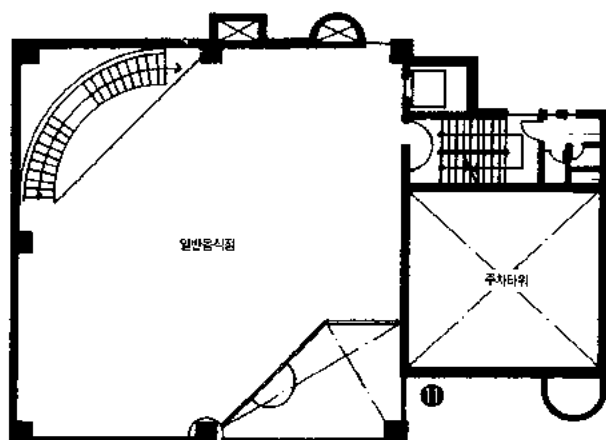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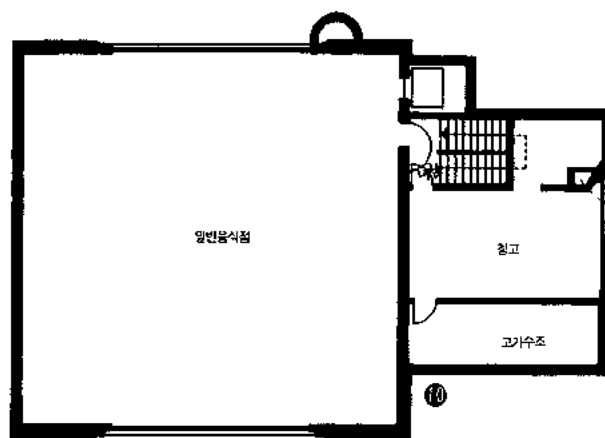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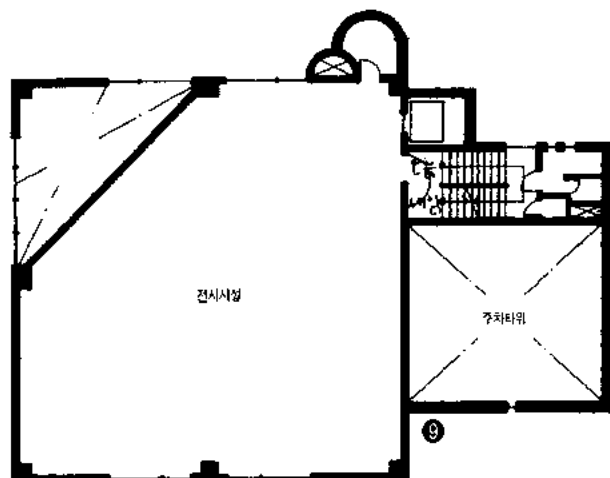
우리마당 연작 맞은편에 있는 이 대지는 20m도로와 홍대 앞이라는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은 고층형 임대용 전문화랑을 목표로 하여 1, 2층 카페형 갤러리, 최상층은 대형 기획전시실, 3~7층은 임대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별용도는 사업계획의 불안정으로 수없이 변해가다가, 1, 2층은 카페형 갤러리, 3, 5층은 임대화랑, 4층은 건축주 소장의 전통 의약 관련 문화재 박물관, 7층은 우동체인점 기소야, 그리고 8층은 스카이라운지로 귀착했다.

1, 2층은 건물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라운지와 같은 곳으로 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대각선 접근 축으로 설정하였으며, 반원형 계단 정점에 자연광을 도입, 로톤다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지하 편의시설은 열린 계단을 이용하여 접근하며 이곳에는 건축주의 타계한 이들의 이름이 붙어 있고, 스카이라이트를 받는 작은 프락에는 주인공의 동상이 놓여 있다.

건물의 형태는 두개의 정방형 매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고, 볼트(Vault)형이다. 주차타워는 거슬러지 않게 형태적 도입이 되어서, 연면적에 비해 큰 규모로 되었다.

- ⑤ 진입부에서 본 남동측 전경
- ⑥ 남측전경
- ⑦ 엑스노메트릭
- ⑧ 주출입구 전경



- ⑨ 기준층 평면도
- ⑩ 5~8층 평면도
- ⑪ 2층 평면도
- ⑫ 지하층 평면도
- ⑬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⑭ 횡단면도
- ⑮ 1층 휴게 음식점
- ⑯ 1층에서 본 2층 연결 계단
- ⑰ 2층에서 본 1층 연결 계단



4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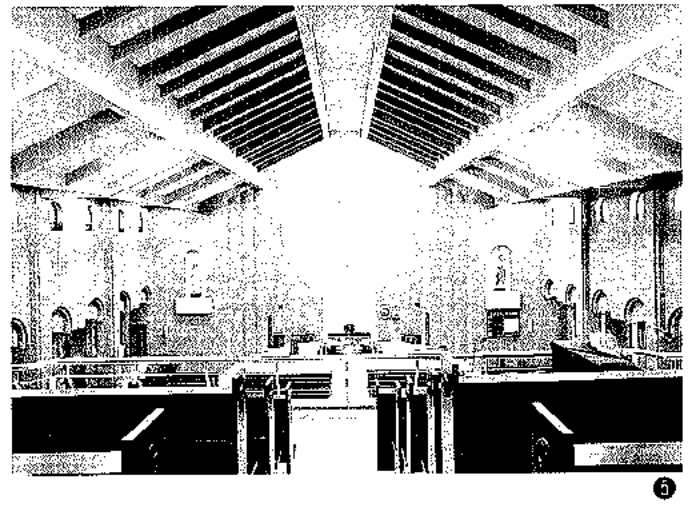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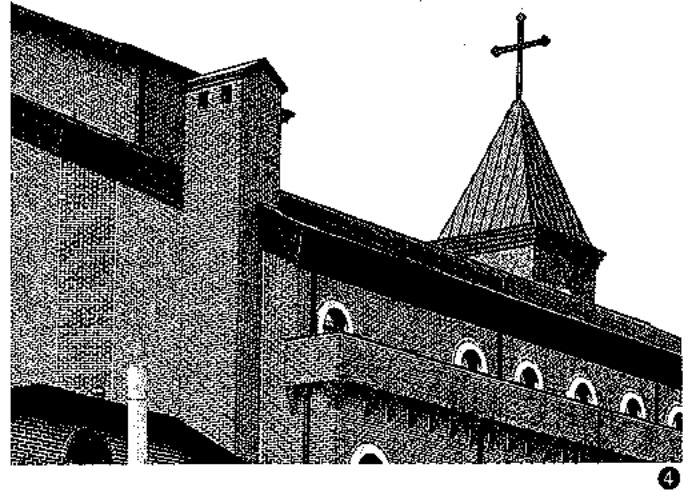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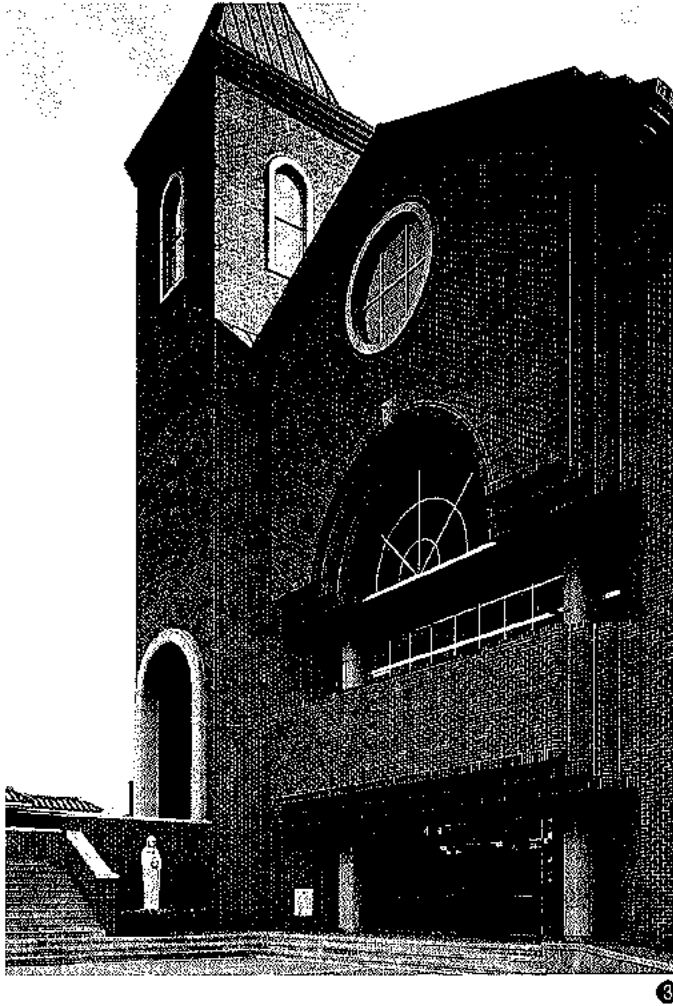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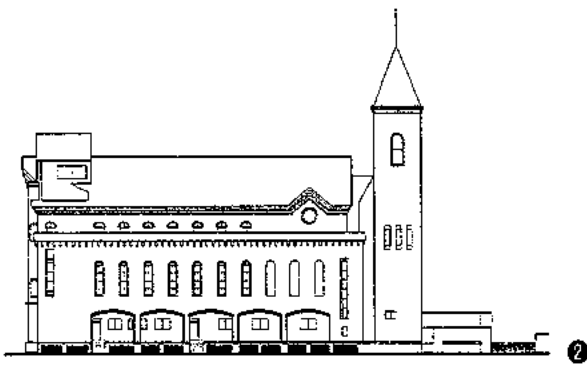
천주교 문정동 교회

Moon Jong-dong Catholic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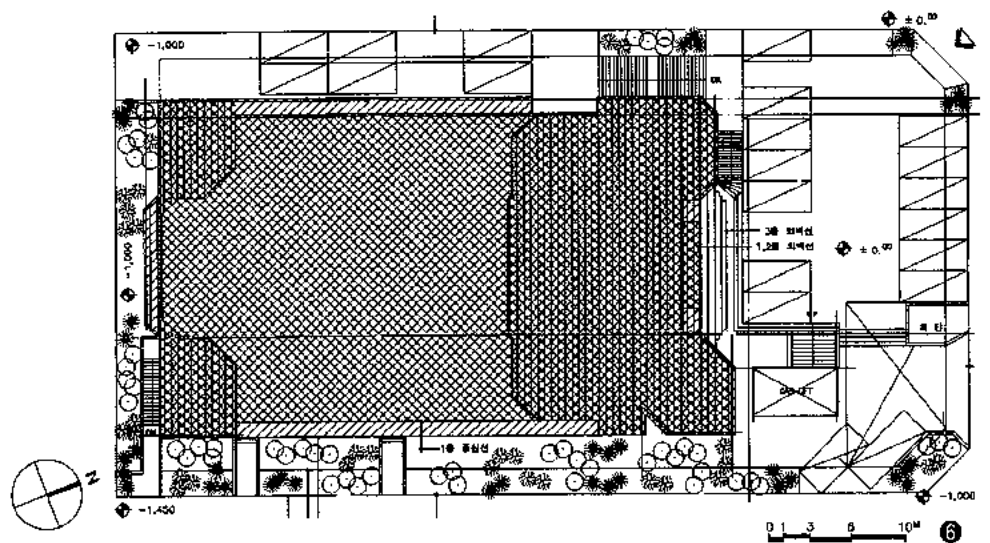
徐相浩/건축사사무소 동산건축

Designed by Seo, Sa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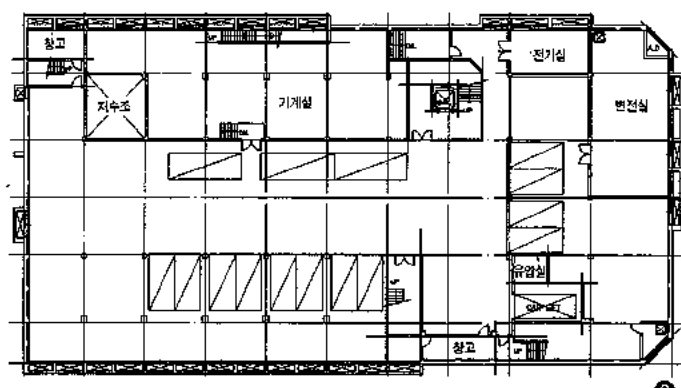
위치 / 서울 송파구 문정동
 대지면적 / 2,119.9㎡
 건축면적 / 1,054.99㎡
 연면적 / 5,699.63㎡
 건폐율 / 49.76%
 용적률 / 112.91%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 지하2층, 지상3층
 외장재 / 적벽돌 치장 쌓기
 설계담당 / 김경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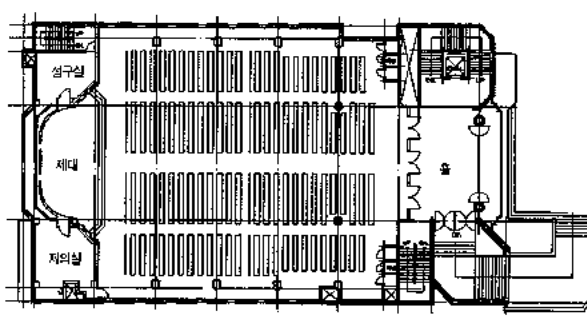
- ① 북측전경
- ② 좌측면도
- ③ 주출입구 전경
- ④ 북서측 상부다테일
- ⑤ 2층에서 본 제단 전경
- 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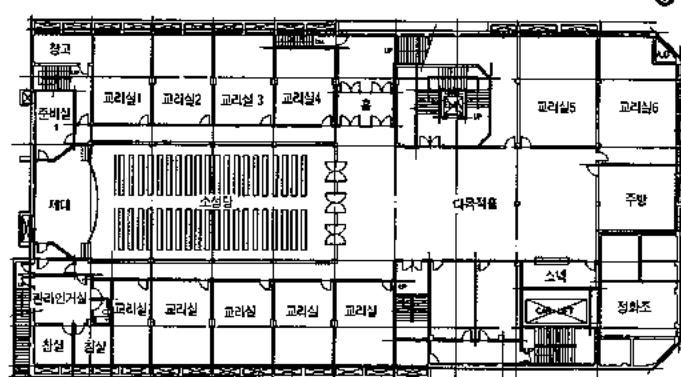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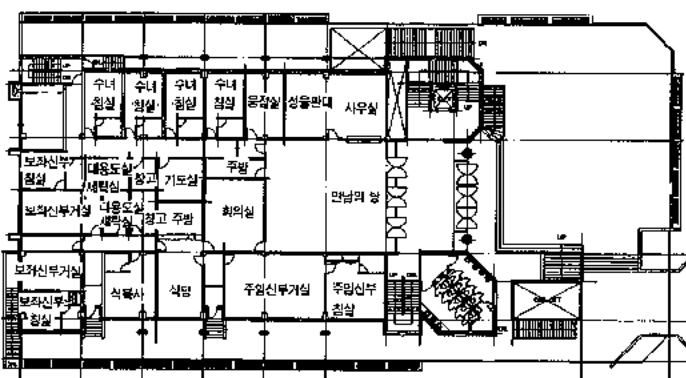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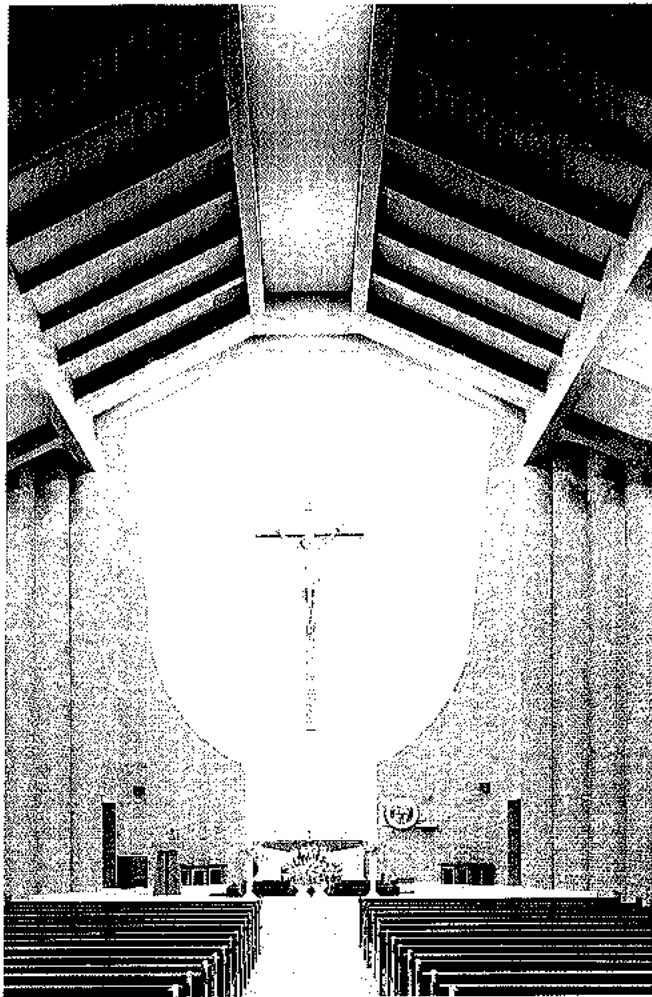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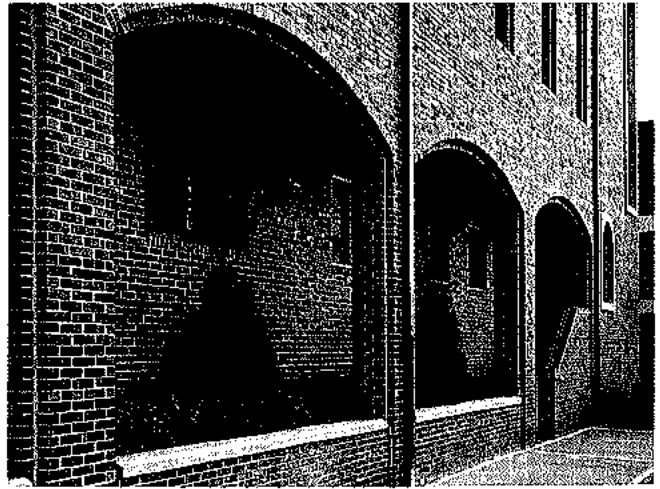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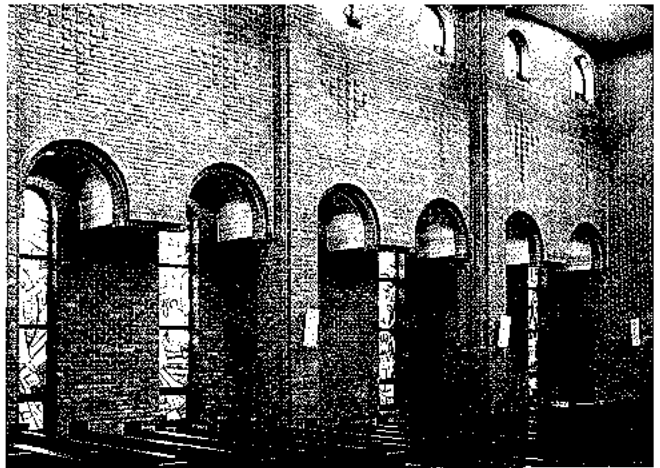
- ⑦ 제단에서 본 성당내부
- ⑧ 지하1층 평면도
- ⑨ 지하2층 평면도
- ⑩ 1층 평면도
- ⑪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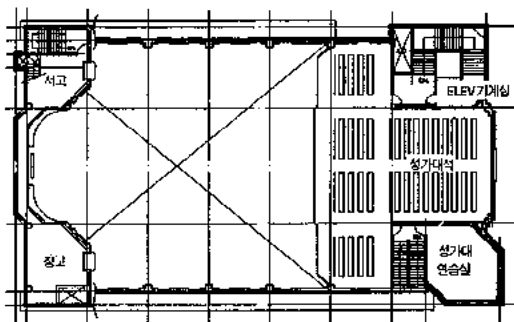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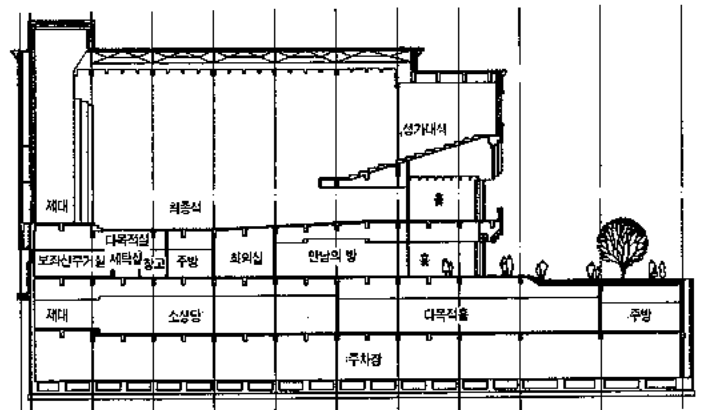
13



14



15



16

건물의부에서 자제되었던 장엄한 스케일은 대성전 내부의 지성소인 제대부분의 양쪽 증 첨된 원형기둥에 와서 마음껏 그 위용을 자랑 하며 하늘을 향해 치솟는다. 이는 주님을 향한 강력한 구원의 요청이요, 튼튼한 가교의 상징 이며 또한 속세의 껍질을 마감하는 테두리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 너머에 바로 주님의 은총 (빛)이 내리 쏟아지는 광명의 세계가 있고, 쏟아 지는 은총으로 속세의 껍질은 저절로 녹여 지며 자연스럽게 성작의 아름다운 곡선을 이 룬다. 성작안의 성체속으로 주님의 은총은 결 집되며 그 성체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나누게 된다. 성체의 형상인 원형은 사 제의 머리높이에서 후광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속세에 머물러 피로워하는 인간들에게 저멀 리 위로부터 14개의 고창을 통해 하느님의 구 원과 사랑이 있음을 알리고 그 고창아래 14처 의 십자가질이 전개된다.

결국 성당은 유아세례에서 사자의 장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역정의 인간들과 하 느님이 동장하는 곳이며 각기 고유의 정체와 영역을 가지고 밀접한 관계로 얽혀있는 공동 체인 것이다.

상이한 기능과 형태를 가진 조형의 편린들 이 한데 모여 속살거리며 공존하는 조화된 모 습이 곧 하느님사랑과 공동체 삶의 참모습이 아닐까..

3년에 걸친 대역사에서 한번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본당 신 부님의 노력과 역대 총회장을 비롯한 사목위 원들, 그리고 수많은 교우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음을 확신하 며 “하혜 이르에”를 묵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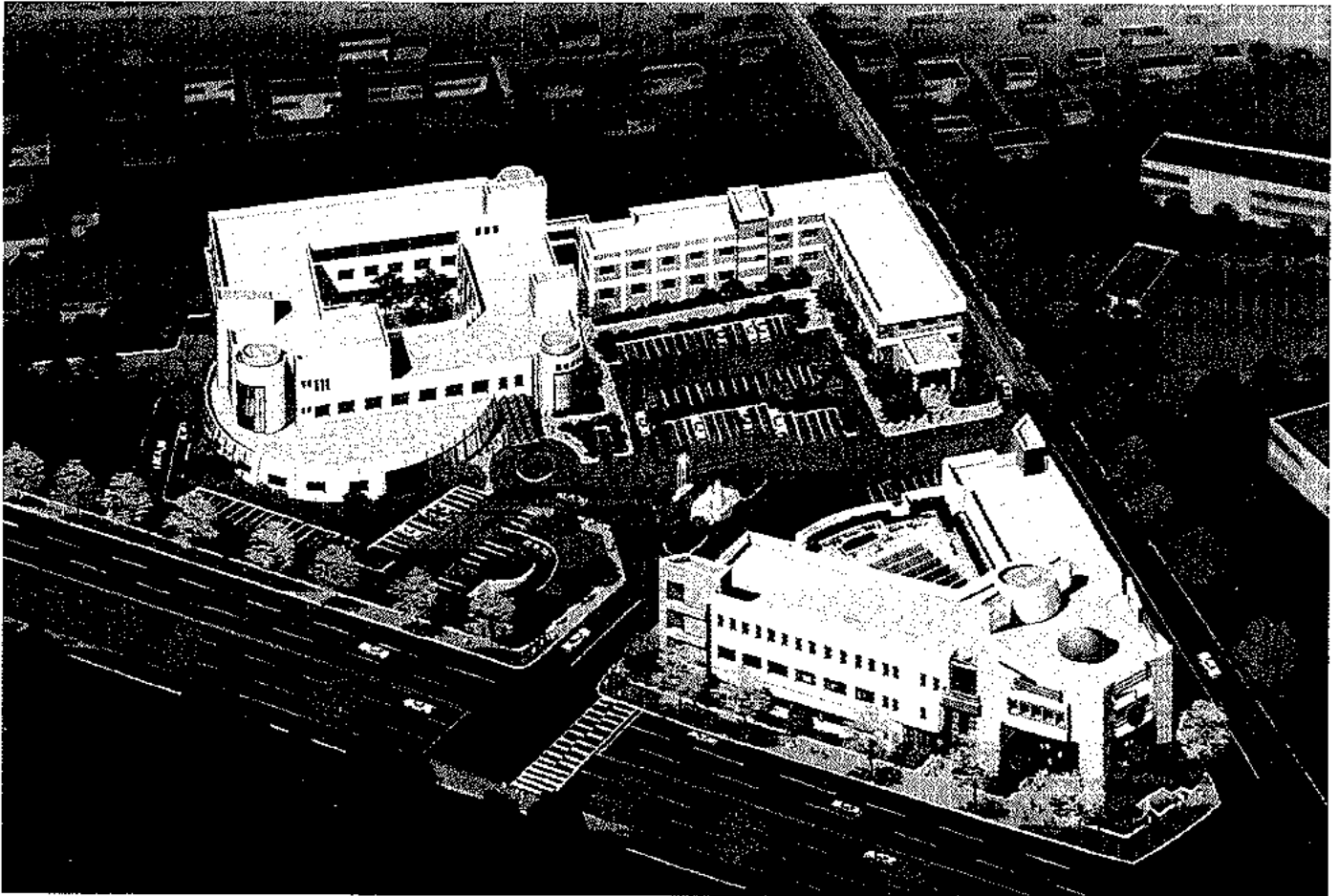
- ⑫ 예배실에서 본 제단부 상세
- ⑬ 서측 벽면 상세
- ⑭ 내부 벽면 상세
- ⑮ 3층 평면도
- ⑯ 횡단면도

천주의 성요한 수도원 및 병원

St. John's and Hospital

朴贊政/(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

Designed by Park, Chan-Jeong



조감도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15-1

대지면적 / 13,420.2 m^2

건축면적 / 5,324 m^2

연면적 / 16,203 m^2

건폐율 /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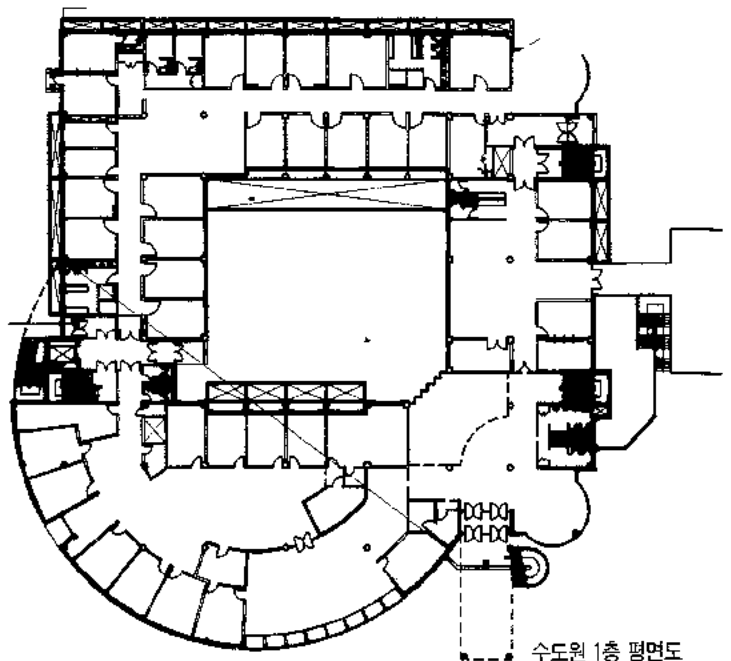
용적률 / 88%

규모 / 지하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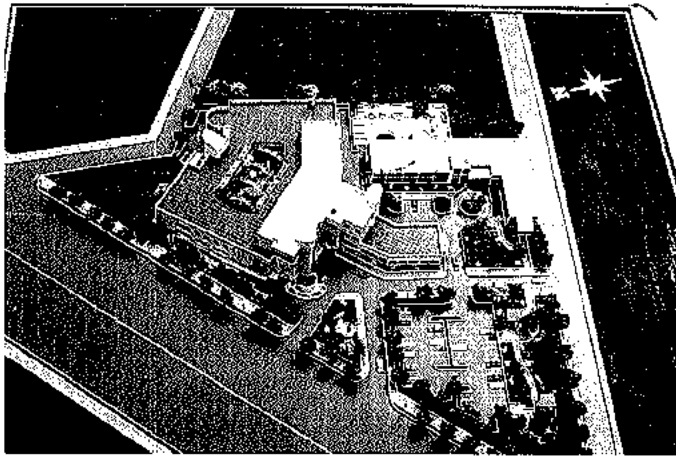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 / 화강석버너구이, 16mm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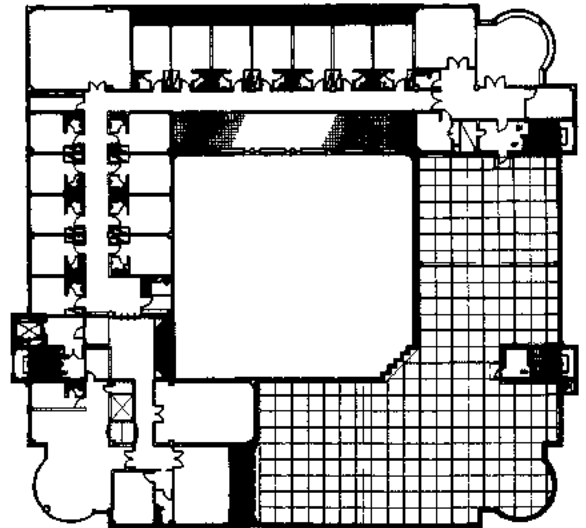
계획담당 / 조재묵, 김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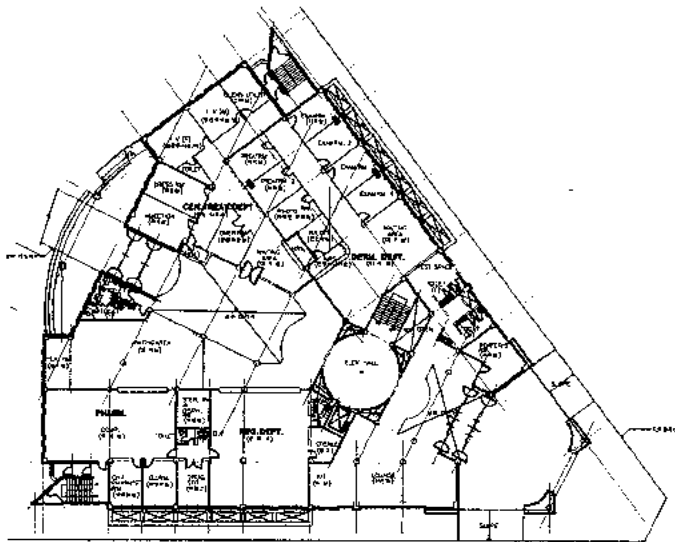
수도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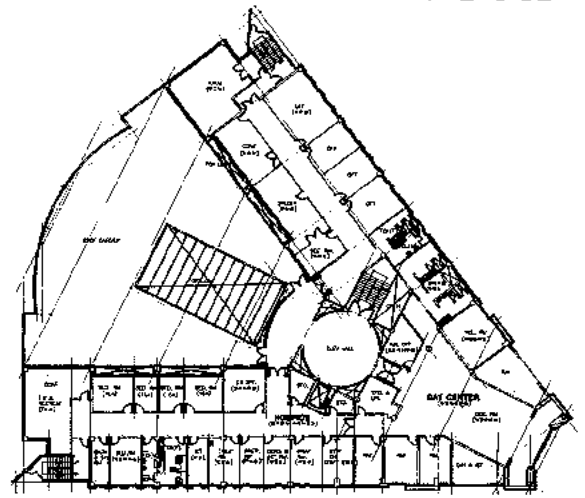
초기안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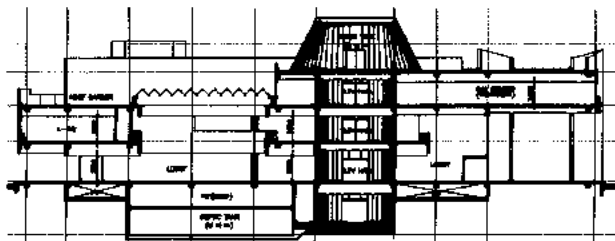
수도원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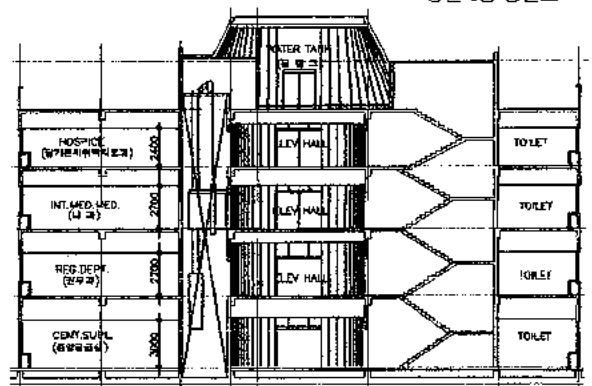
병원 1층 평면도



병원 3층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성요한 병원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비영리 의료봉사 기관이며, 1차 진료기관이다.
89년말 처음 접촉이 있던 이래, 수차례의 계획기준과 방침이 변경되어 4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94년 10월에야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본 시설은 의료시설과 종교적 분위기의 조화를 모색하고, 기존의 「병원건물」이 가지는 사무적이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였고, 특히 정신과동 계획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폐쇄적 운영기준과는 달리 정신과의 개방적 운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공간에 정

신과동을 배치하여 기존건물(기존건물은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기도실 등 정신과동의 보조적인 용도로 꾸며짐)과 연계시키고, 일반의원동은 동선이 빈번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결절점에 배치했다.
정신과동의 안정성은 외부도로로부터 어느정도 절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기존건물과 일반의원동 및 중앙마당을 거치게 함으로서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였다.
○평면구성 및 형태계획에 있어,
—정신과동은 환자관리의 효율성, 진료부의 인지성 등을 좋게하기 위해 口字형을 기본으로

하고, 중정부의 수(水)공간을 포함한 정적이고 시각적인 조정처리를 함으로서 정신과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조성을 시도하였다.
—기존 건물동의 남쪽 후면에는 정신과 환자를 위한 폐쇄정원을 마련하여 Privacy의 유지와 함께 안정적인 전용 마당을 고려하였다.
—일반병동은 대지 형상에 따른 자연스런 배치를 하고 양쪽 Wing에 제 진료과를 배치하며, 중앙부에 지원부서를 두어 연계성을 재고시키고, 2층 중앙 Roof에는 또 하나의 정원을 구성하여 외부공간의 확장을 꾀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

Sustainable Society

尹承重/원도시건축

by Yoon, Seung-Jung

우리는 매우 불행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건축분야는 사회의 불신으로 부터 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개방시대의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앞으로 이상적인 미래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건축,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인식과 규범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현재 여러가지 현실적인 과제들 즉 법과 제도의 개선,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 공정한 사무소 제도, 감리제도, 설계심의 제도, 건축사 시험운영 제도 등 매우 현실적이고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실현해야 할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건축은 어느 분야 보다도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제 1995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결되는 현실적인 과제들과 함께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명제를 생각해 본다.

우리가 맞게 될 21세기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는 '하이테크 문화' 지향과 지구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명제에 근거한 '저 엔트로피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두가지 대립되는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에 실용화 될 것으로 보이는 여러가지 신기술들, 즉 5세대지능 컴퓨터, TV전화, 고선명 TV, 광대역 종합통신망, 생명공학, 신소재, 대체에너지, 해양 목장 등 고도의 '하이테크'는 우리의 삶과 사고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며, 물론 건축과 도시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사용된 자원과 에너지는 무가치한 폐기물이 되며, 비가역적이라는 열역학의 엔트로피 법칙에 주목하여, 지구자원의 고갈을 막고 인류문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속도와 자원의 소비가 절제되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태도가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즉 미래사회는 저 엔트로피, 저 에너지, 그리고 저 소비, 자원재활용 등이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하나의 도덕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발, 대량생산, 대량소비 등으로 표현되는 20세기 산업사회에 대한 반성으로 자원 보존과 지구 환경 회복이라는 새로운 핫 이슈가 등장하고, 이것이 후손에게 인류문명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세계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기와 물의 오염, 오존층 구멍,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폐기물, 자원고갈 등 너무나 심각한 지구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도시와 건축이 이의 공범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건축가 연맹은 1993년 5월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던 제 18회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호 의존성의 선언(시카고 선언)'을 채택하고 모든 회원국이 동참할 것을 권고한다.

동선언은 '공동인식'과 '공동선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어 상세하게 시행원리와 실천과제들을 첨부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 그 요지를 소개해 본다.

먼저 '공동인식'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자연과 문화를 회복, 보존하고 또한 그 질을 높인다. 다양하고 건강한 환경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오늘의 사회는 심각한 정도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우리 인간은 생태학적으로 전체 자연 환경과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전체인류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은 모든 당사자들간의 협력과 형평 및 균형을 요한다.'라고 자연환경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이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전제하고

UIA의 시카고 선언은 우리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어느 나라보다도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공동인식과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인 시기에 주어져 있는 많은 과제들은 사회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건축계의 여러 단체, 대학, 개인들이 우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힘을 합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어 '건조물과 건축환경은 삶의 질에 대하여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 완벽한 건조물과 재료, 생태학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토지의 이용 및 미적인 감각 등에 대한 일체의 고려를 통합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설계는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인간의 역기능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정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서 건축의 역할이 중요함과 따라서 건축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천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본인식에 기초하여 건축가들은 각기 세계건축계의 일원으로서 또는 전문기구를 통하여 실천하여야 할 5개 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첫째 :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우리의 실무와 직무상책임의 핵심에 둔다.

둘째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설계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관행, 절차, 작품, 교육과정 및 기준 등을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셋째 : 동료 건축가, 건축산업계, 의뢰인, 학생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설계의 결정적인 중요성과 실질적 기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설계가 통상적인 관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체내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제도 및 관례 등을 수립한다.

다섯째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설계의 표준에 도달하기까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건축환경 요소들을 모든 설계, 작품활동, 건축물에 이용 및 재사용 등에 도입시킨다.

이상 5개항의 공동선언과 함께 건축인은 지구를 위하여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설계개념 및 기술 혁신 등을 촉진시켜야 할 의무와 또한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예견하고 지구와 지구인들의 권리와 행복 그리고 문화유산 및 생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가들은 예술, 문화, 자연 및 사회과학 그리고 기술 분야에 걸친 폭넓은 지식과 식견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그 '시행원리'에서 강조한다.

그리고 무해 무독한 저공해의 새로운 자재개발과 자원의 재활용, 부품 교체를 가능케 하는 조립식 공법이 추천되고, 에너지 효율과 태양에너지 등이 권장되며, 유행을 따르지 않는 생명이 간 디자인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UIA의 시카고 선언은 우리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어느 나라보다도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공동인식과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30년간 경제성장과 산업화 일변도로 추구해온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아직은 그 인식과 대응이 미미한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문명'이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현안문제들과 함께 시간을 놓칠 수 없는 과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로서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과제들을 이와같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풀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건축계의 여러 단체, 대학, 개인들이 우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힘을 합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94년을 보내며

At The End of The Year

—「해방 반세기를 넘어가는 진통 속에 협회 30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탐

by Choi, Young-Jip

■ 상황

해마다 이맘때쯤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유난히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1년의 시간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며 착잡한 감정을 갖게 된다. 올해는 더욱 말할 수 없는 참담함에 몸을 기누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을 앓게 될 것 같다. 한국방문의 해, 서울 정도 600년의 해로 화려하게 광과례를 올리며 시작한 해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호지부지 끝나버리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 해를 정말 멋있게 잘 살아왔구나 하는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텐데 가슴을 짓누르는 국내, 국제적인 상황은 그리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방후 어언 반세기를 지내는 동안 건국도 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개발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치발전도 이룩했던 50년이였다. 이제 겨우 숨을 돌리며 변화와 개혁의 새 고삐를 틀어 잡고 국제화의 대열에 끼어 들려하나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 끓았던 상처들이 봇물처럼 터져 미처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는데 도무지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공무원이 세금을 도둑질하고 학생은 공부를 안하고 근로자는 일을 안한다. 기업의 부도율은 높아가고 정부의 신뢰도는 그에 비례하여 땅에 떨어지고 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단편적 사건일지 모른다. 어디에선가 더 큰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들이 해방 50년의 고비를 넘겨 탄탄대로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적 계기로 승화될지 패배주의 냉소주의로 흘러 그나마 조금 비축했던 가능성마저 엿질러 버리는 한심한 좌절로 끝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세기말적 사회양상과 재편되는 세계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며 반세기를 넘어가는 역사적 진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진통의 예고편들을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른다. 지금까지 모르고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길을 알고 달려나가야 한다.

내년이면 우리 건축사협회가 발족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도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듯이 협회의

상황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변혁이 일기도 하며 방향타없이 방황하기도 했던 매우 힘들었던 해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묵묵히 건축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기에 한 세대를 넘기는 성숙한 협회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서로 핑계대 상황은 아니다. 사회적 여건이나 역사적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 협회도 보호주의적 정착기를 지나 계도적인 도약기로 접어들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시대적 사명을 공감하고 실천적 의지를 다져야 한다. 어려운 시대 성숙의 아픔을 분담하며 건축과 협회를 다시 이해하여야 한다. 국제화 물결 속에 선진한국으로 진입해야 할 건축적 책임을 누구도 대행할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다. 올해 불협화음이기도 하였지만 많은 자탄과 비판의 소리들이 있었다. 개선안이라고 내어 놓은 여러 대안들이 문제의 해결책이 못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안일 수도 있지만 경청하고 이해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분명 발전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율되어 힘은 모아져야 하고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 나가야 한다. 어느 집단이라 하더라도 모두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은 목표가 같아야 하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탈바꿈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의 이해 속에서만이 협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새해의 희망적 미래를 위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집행부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 전환기의 협회를 끌고 나가야 할 책임을 지우는 무거운 마음에 걱정스럽기도 하다.

■ 반성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격을 위한 트집이기도 하며 또는 누워서 침뱉기식의 독백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비난과 공격을 분해하면 반성의 요인을 찾을 수 있을 터이니 한 해를 보내며 다시한번 음미해 보자.

첫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건축계의 위기는 건축사들과 건축사협회 문제로 인해 기인되며 협회는

문제해결의 구심체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장애요인이다.

둘째, 회원들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로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구성원들 자체도 성향과 이해, 인식의 차이로 인해 화합될 수 없다.

셋째, 협회는 현실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분파적이며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건축계의 혁신이나 선도적 역할이 미약하다.

넷째, 사회적 인식이 저하되고 회원들로부터도 신뢰도를 잃고 있다.

다섯째, 자기발전 기능이 미약하여 시대적 변화를 감당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계속적 통제가 필요하거나 발전적 해체가 불가피하다.

대개 이런 내용들로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우리 협회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역으로 수용하면 반성의 실마리와 제도 수정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계를 리드해 나가며 회원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문가 집단이 듣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이지만 30년의 시행착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충언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향

국면이 혼미스러울수록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리드해 나가야 한다. 부화뇌동하지 말고 장기적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움직여야 한다. 올해를 보내며 가슴아프게 반성도 하고 가슴을 치며 분개도 했다면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한번 방향타를 틀어잡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새해를 맞으며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자.

건축사는 건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주역으로서 건축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권위를 인정해 주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정적 화살받이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명실상부한 최고 전문집단이 되어야 한다

협회가 단지 등록건축사들의 이익집단이거나 친목단체가 아니라 당연히 건축계를 대변하는 최고의 실천적인 전문집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사와 협회는 실과 구슬이 되어야 한다

이기적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전문가로서 가치가 승화될 수 있도록 구슬과 실로서 서로 꿰어서 보배가 되어야 한다. 또는 실과 바늘로서 건축의 문제를 꿰매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대안

큰 줄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수립했으면 지엽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속적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우선 장기방향 목표추진을 위한 몇가지 대안들을 거론해 보자.

면허를 남발하지 말자

건축계 문제점들이 사회에 노출되자 일각에서 건축사 공급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년에 비해 엄청난 면허가 남발되고 있다. 그 인력이 그 인력인데 면허를 주면 사람이 달라지고 실력이 늘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자격이나 면허가 사회적 공신력을 가지려면 그에 합당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도록 선별이 올바르게 하고 질이 동등해야 한다. 행정편의를 위해 공급이나 질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된다. 면허가 균질하게 공급된다면 고질적인 협회의 병폐도 사라질 것이다.

입회의 폭을 넓히자

명실공히 최고의 전문가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소지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문제제기, 연구검토, 정보교환, 자료정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을 활성화 하자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협회 초창기와는 양상이 너무나 달라졌다. 건축사협회가 행정적 상황에 따라 연합회 성격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면 구성원의 성분에 따라 선택적 분화도 가능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종합적인 건축정보센터가 되자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건축정보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건축에 관한 국내의 모든 정보를 비축하고 제공하며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도 지원할 수 있는 체제와 대사회적 서비스 업무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타 여러가지 실천적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뜻을 합하여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건축사와 협회가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크게는 우리 건축 문화창달을 위해 작게는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길만이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또 한 해가 가고 있다.

새해에는 또 어떤 폭풍이 예기치 않게 불어 닥칠지 모른다. 키를 단단히 움켜쥐고 흔들림없이 노를 저어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명제들을 다시 적어보는 것은 내일의 희망, 협회의 30년, 대한민국의 50년 그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건축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참성단(塹城壇)—

朴時翼/도봉건축사사무소

by Park, Si-lk

1. 참성단(塹城壇)의 역사적 배경

경기도 강화군(강화도) 마니산 정상에는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쌓은 제단인 참성단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 참성단에 대하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23권)에 『사적 제136호, 단군성조가 366가지에 이르는 치화(治化)의 공을 세우면서 아울러 제천의 대례를 행하고 보본(報本)의 뜻을 드높인 민족 제1의 성적(聖蹟)으로, 마니산제천단(摩尼山祭天壇)이라고도 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또한 참성단의 바로 옆에는 삼랑성(三郎城)이 있는데 앞에 밝힌 민족문화 대 백과사전에 『단군세기(檀君世紀)에는... 이분이

단군이다... 제천단을 쌓고 단군이 세 아들을 보내어 삼랑성을 쌓으시다』라고 하여 단군에 의하여 참성단과 삼랑성이 축조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삼랑이란 단군의 세 아들

부소·부우·부여(扶蘇·扶虞·扶餘)를 말한다. [註. 한국불교연구원 생전등사(傳燈寺) p13]

단군에 의한 제천의 행사는 최근에도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이지역의 대표들에 의하여 참성단에서 거행되어 그 맥을 잇고 있으며 88올림픽을 비롯한 매년의 전국 체육대회 봉화도 이곳 참성단에서 채화되고 있다.

단군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여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가는 만큼 단군에 의한 건축물인 참성단은 삼랑성과 함께 한국 전통건축의 원년의 시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2. 참성단의 형태와 구조

참성단은 마니산의 바위로 된 정상에 돌로서 축조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참성단의 구조는 맨 위에는 4각형의 평평한 제단 즉 상방단(上方壇)이 있고 그 하부에는 원형의 평탄한 마당 즉 하원단(下圓壇)이 돌로서 담장을 둘러우고 있다.

상방단의 넓이는 가로×세로, 6.5m×6.5m의 정사각형이며 하방단의 넓이는 내경이 단변 10m, 장변±16m의 타원형이다.

3m높이의 상방단과 하방단의 사이에는 21단의 돌계단이 있어서 상하를 연결하고 있다.

제사때는 상방단에 제물이 놓여지고 3명의 제주(강화군수, 교육장, 경찰서장)가 하늘을 향하여 제문을 읽고 절을 하는 등 중요한 제사의 절차가 진행된다.

상방단에서 제주가 제사를 올리는 동안 하원단에서는 제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집례에 맞추어 함께 제사를 지낸다.

참성단의 구성재료는 두께±15cm, 가로×세로, 약 40cm×50cm의 자연석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었다.

이 구조는 오랜기간을 걸쳐서 내려오는 동안에 인조 17년(1639)과 숙종 26년(1700)에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도 하였다.

3. 하느님 숭배사상과 참성단

참성단은 단군에 의하여



마니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새벽의 바다

만들어졌으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민족문화 대 백과사전에 『단군성조가 366가지에 이르는 치화(治化)의 공을 세우면서 아울러 제천의 대례를 행하고 보본(報本)의 뜻을 드높인 민족제 1의 성적으로...』라고 표시된 바와 같이 순전히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함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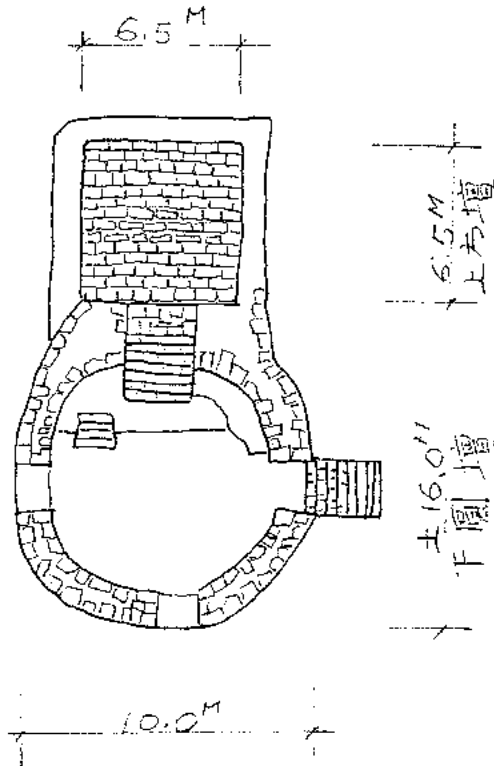
역사에 의하면 단군시대에 있어서 하느님을 숭배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국가적인 규모의 행사로서, 단군이 하늘에 직접적으로 제사를 지낸 근거에 대해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군신화(檀君神話)에 [昔有桓因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라고 기록된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하늘에 있어서 왕인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있어, 항상 하늘 아래에 있는 지구에 뜻을 두고 인간의 세계를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 보니 과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만한 지라

이에 천부인 3개를 주어 지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여 환웅이 3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왔다.』로 해석된다.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시대의 시조는 하늘로부터 이땅에 하강하여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게 된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서 해석된다.



(참성단 평면스케치)

제천 행사는 단군시대를 지나서도 계속되었으며, 단군시대 이후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등은 모두 온 국민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춤추고 즐겨워하는 하느님의 축제였으며 주로 10월에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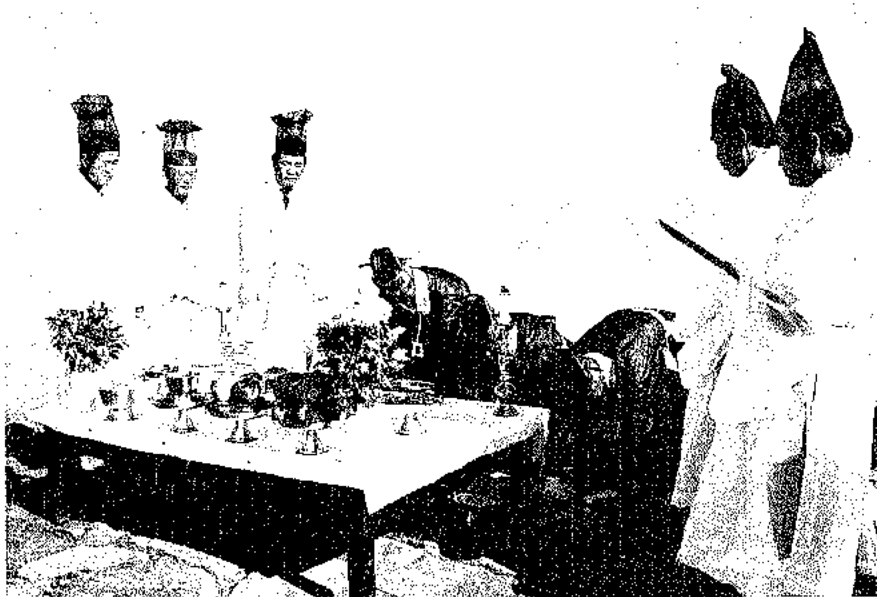
고대인(古代人)에 있어서는 종교가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던 만큼 참성단에 나타난 하느님 숭배의 사상을 이땅의 오래된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고유한 믿음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산(山)과 참성단과의 관계

참성단은 마니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축조되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위한 공간으로서 참성단이 높은 산의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산과 제천 행사와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의하여 성립된다.

산을 종교적인 공간으로 해석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동양이나 서양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의 대개가 여러가지 형태로 산에 관한 신(神)을 신앙의 일부로서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숭상해 왔다.

높이 솟은 산의 봉우리, 거대하고도



참성단에서 진행되는 개천절 행사



참성단에서 7선녀의 춤

포근하게 느껴지는 산의 인자한 모습, 구름과 같이 있는 신비한 분위기, 산에서 들리는 신비한 바람소리, 산울림 등 이러한 여러가지의 산이 갖고 있는 특성은 신비한 생명력이 그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산의 생명력은 산신(山神)으로 인식된다. 이 때 산신은 인간보다는 능력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 월등하면서도 인간과는 유사한 성질의 생명을 소유한 인격화된 신으로서 숭배된다.

그러므로 산은 산신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더욱 신성한 분위기를 갖게 되며 높은 산은 신이나 신선(神仙) 등이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산에 산신이 살게되면 동물이나 식물의 정령들도 동시에 살게되며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신도 산에서 머물게 된다. 산에서 머물던 사람의 신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산에 대한 종교적인 개념은 산신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祭壇)이나 사당(祠堂) 그리고 신당(神堂)을 세워서 종교적인 행사를 더욱 심도깊게 진행하게 된다.

산에 신(神)의 존재가 인정되면 산신의 성별(性別)에 대하여서도

궁금하게 생각된다. 산신에 대한 한국전래의 성적인 구분은 여성(女性)이다.

즉 산신은 여산신(女山神)이다. 이것은 하늘을 남성으로 보고 땅을 여성으로 구분하는데에서 비롯된다. 여성은 아이들을 낳는 생산적인 능력이 있다. 땅도 농식물을 낳아 주는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여성적인 인격으로 구분된다.

산에 대한 한국 전래의 개념이 여성신임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부터는 산신을 남성으로 해석하는 풍속도 늘어났다. 대표적인 예로서 사찰에 있는 산신에 대한 그림이 모두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인자한 모습의 할아버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신의 변화는 남성우위의 사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산의 정상 부분은 하늘과 직접 연결되고 있는 느낌이다.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시는데 하느님에게 사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치적으로 하느님에 가까운 곳에서 전달해야 쉽게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높은 산의 꼭대기가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 된다.

이와같이 산은 산 자체의 인격화, 산의 거주처, 산신, 여산신(女山神)등 여러가지 종교적인 관념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참성단을 마니산의 정상에 설치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산의 종교적인 현상에 그 근원을 이루고 있다.

더우기 삼국유사에 환웅(桓雄)이 하늘에서부터 3,000의 무리를 이끌고 하늘로 부터 태백산에 내려왔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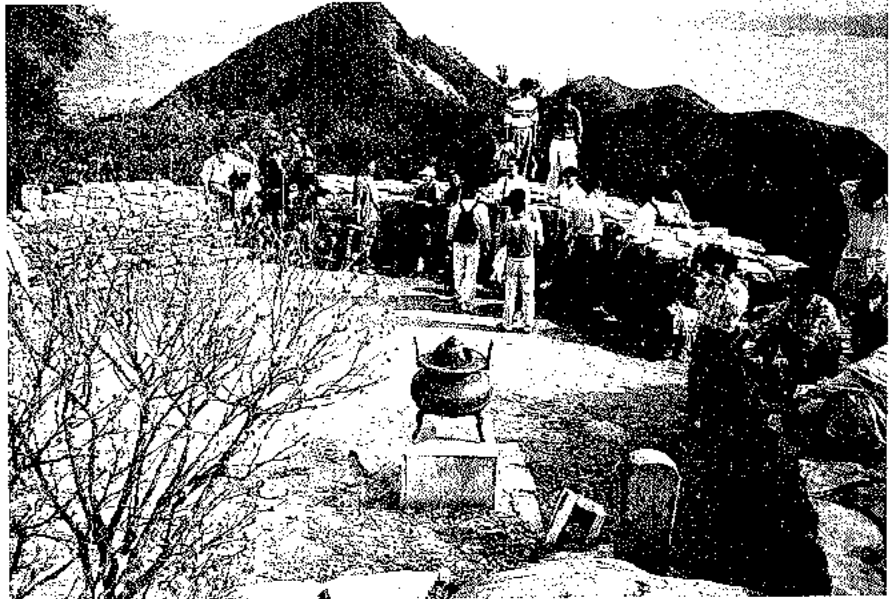
참성단 상방단(上方壇)의 모습

기록에서와 같이 단군의 선조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큼 단군이 많은 산 중에서도 섬에 위치한 마니산을 제사의 공간으로 선택한 이유에 있어서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참성단편에 『마니산이 강과 바다의 모퉁이라 땅이 따로 동떨어지고 깨끗하며 고요하며 산명(神明)의 집이 된다. 그러므로 제터를 닦아 하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음(陰)을 좋아하고 땅은 양을 귀하게 여기므로 제단은 반드시 수중산(水中山)에 만드는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곳 마니산이 맑고 깨끗하여 명당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참성단의 상방단과 하원단의 관계는 풍수지리의 용(龍)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의 이론이 이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로 보아 마니산에 참성단을 설치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 ① 단군의 시조가 하늘로 부터 산을 통하여 하강하였기 때문
- ② 산은 종교적인 공간으로 이용된 점
- ③ 마니산이 섬으로 되어 있어서 음(陰)의 기(氣)가 많은 점
- ④ 마니산이 맑고 아름다워 명당을 이룬



참성단 하부 하원단(下圓壇)

것

- ⑤ 마니산이 한반도와 황해바다의 하늘에 제사지내기 위해서 산을 선택한 것도 당연한 순리로 해석된다. 그런데 중심점에 있는 점 등을 열거하게 된다.

5. 형태의 의미

참성단의 구조는 크게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부는 산의 가장

높은 부분을 돌로써 평탄하게 깔아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하부에는 평탄한 지면에 주변을 돌담장을 타원형으로 돌렸다. 그러므로 그 형태를 전체적으로 상부에는 사각형으로(上方壇) 그리고 하부에는 원형으로(下圓壇)되어 있어서 상방하원(上方下圓)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부의 제단은 하늘의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만큼 하느님의 거처가 되며 하부의 제단은 이에 비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준비하는 공간인 만큼 인간적인 공간으로 구분된다.

형태에 대한 전래의 개념은 주역에 의한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을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상부가 네모나고 하부가 원형인 참성단의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한국 민족문화 대 백과사전 참성단 편에는 『...하늘은 음(陰)을 좋아하고 땅은 양(陽)을 귀하게 여기므로 제단은 반드시 수중산(水中山)에 만드는 것이요, 위가 네모나고 아래가 둥근 것은 하늘과 땅의 뜻을 세운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위가 네모나고 아래가 둥근 것이 하늘의 뜻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의미를 분석하면 한편으로는



참성단 주변의 바다



참성단의 출입구 삼신문(三神門)

하늘은 양이기 때문에 음의 형태인 사각형을 하늘 쪽에 그리고 땅은 음이기 때문에 양의 형태인 원형을 아래에 배치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양과 음으로써 각각 다른 성의 형태를 좋아하는 음양이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방하원(上方下圓)의 또 다른 해석으로는 앞의 참성대에 대한 기록에 『위가 네모나고 아래가 둥근 것은 하늘의 뜻을 세운 것이다』라고 나타나 있어서 그 내용을 천방지원(天方地圓)이 되어 기존의 천원(天圓地方)과 반대의 이론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참성단의 형태에서 상방하원(上方下圓)의 형태에 대한 해석은 『①하늘은 음을 좋아하고 땅은 양을 좋아하기 때문』이거나 『②하늘은 네모나고 땅은 둥글다』는 두가지 서로 다른 이론중의 하나에 의하여서 상징화 되었다고 분석된다.

마니산의 참성단 형태가 상부는 네모나고 하부는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는 신라시대의 경주 참성대를 말하게 된다.

경주의 참성대 역시 상부는 정사각형이며 하부는 원형이다. 참성대의 기능 역시 하늘에 제사지내며 천문을 관측하는 공간인 만큼 하늘과는

관계가 깊다.

이와 같이 참성단과 참성대의 구조를 비교하면 상부에 사각형을, 하부에 원형을 이룬 배경은 음양의 이론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즉, 하늘은 양(陽)이기 때문에 음(陰)을 좋아 한다. 그러므로 상부는 하늘에 배속되는 만큼 음의 형태인 사각형으로 만든다.

또한 하부는 땅에 배속되어 땅은 양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부에는

양의 모양인 원형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상방하원(上方下圓)의 참성단은 참성대와 동일한 성격의 음양이론이 상징성으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성단의 형태가 참성대와 같이 상부는 네모나고 하부는 원형(上方下圓)을 이루고 있어서 그 내용을 주역에 의하여 풀이하면 천원지방(天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형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참성단의 상부 사각형은 땅을 의미하며 하부 원형은 하늘을 의미한다. 즉 상부에 땅이, 그리고 하부에 하늘이 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주역의 괘(卦)로 표시하면 지·천→태(地·天→泰)가 된다. 주역의 64괘(卦) 중에서 태(泰) 괘는 태평(泰平)한 것을 뜻하여서 매우 길(吉)한 괘이다.

그러므로 참성대의 공간 형태는 주역으로 태평(泰平)을 뜻하여서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목적도 결국 천하태평(天下泰平)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 삼신(三神)과 참성단의 출입구

참성단의 하부인 하원단(下圓壇)은 돌담장으로 울타리가 둘러져 있어서



참성단의 돌계단

바다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을 막아주며 또한 사람이 산아래로 떨어지는 위험을 동시에 방지하고 있다.

높이 1.0m 폭 1.5m의 석조 울타리는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울타리에는 동일한 형태의 개구부가 폭이 1.5m로 3개도 있다. 그 중에 동쪽에 있는 개구부에는 사람이 출입하도록 계단이 있으나 다른 두 개소의 개구부에는 계단이 없어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개구부를 만들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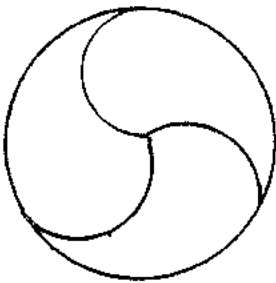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출입구를 3개소 만든 이유는 3신(三神)이 각각 출입하기 위해서이다. 즉 3신의 출입을 위하여서는 3개의 출입문이 필요하게 된다.

즉 하느님은 3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출입을 위해서는 3개의 출입구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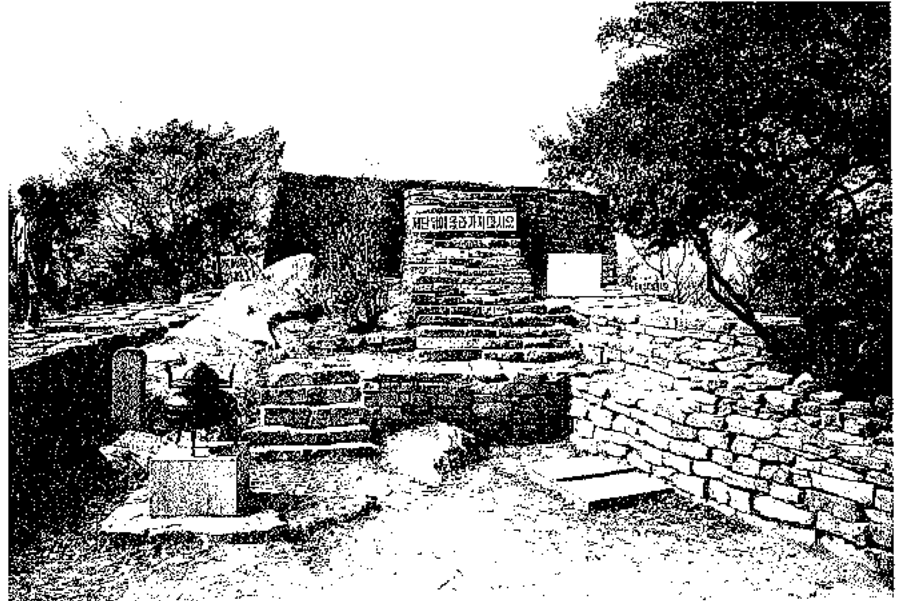
하느님의 작용은 삼신이며 삼신은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에 삼신일체이다. 즉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사상이 이곳 참성단의 출입구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7. 결론

한국에 남아 있는 전통 건축 중에서 최고의 건축물인 참성단을 지금부터 약 4,500여년 전에 건립되었으며 이 참성단의 형태에서 그 당시의 철학과 사상적 구조에 대한 해석이 다음의 몇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삼신의 도안



참성단 상방단(上方壇)의 모습

(1)하느님 숭배 사상

단군시대의 국가적인 종교는 하느님 숭배였으며 참성단은 하느님에게 제사드리는 공간으로 축조되고 사용되었다.

(2)자연 숭배 사상

바닷가의 심 정상부에 제단을 설치한 근거는 자연숭배 사상 즉, 산과 바다의 숭배사상, 산신의 숭배사상에서 찾게된다.

(3)풍수지리의 이용

참성단 위치는 산의 봉우리와 맥의 연결 선상에 이루어진 만큼 그 당시에도 풍수지리적 개념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4)형태에서 상방하원(上方下圓)을 이룬다.

참성단의 상부 제단은 사각형으로 되었으며 하부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방하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주역의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이론에 음양설이 가미되어 이루어졌다. 참성대 형태를 주역의 괘를 풀면 지·천·태(地·天·泰)가 되며 천하태평(天下泰平)을 뜻한다.

(5)삼신사상(三神思想)

담장에는 3개의 출입문이 있어서 이 당시에 3신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된 것을 알 수 있다.

	형 태	의 미	소성괘	괘
상 부		땅(地)		
	사각형		坤爲地	
하 부		하늘(天)		
	원 형		乾爲天	
				地天泰

참성대의 상징괘

건축실무의 역사(4)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 (4)

—해방에서 한국전쟁—

宋 律/ 공학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Song, Yul

40년대 한국건축에 관심을 가진 필자에게 어느날 가까운 동료 중 하나가 "뭐 볼 것이 있다고..."라며 비아냥 거린 적이 있다. 인식론적인 기반부터 문제삼고 싶었다. 사과 한 알이 뭐 볼 것이 있겠는가만 100년된 사과라면 어떠할까? 혹은 달에 가져갔던 사과라면 어떨까? 추수감사절 제단에 정갈하게 놓인 사과 한 알은 또 볼 것이 없을것인가?

건축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할 경우 우선 "볼 것"을 전제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건물과 구별될 수 있는 이념이나 작품성이 있어야 과거사에서 끄집어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애써 건축실무의 역사라고 연재를 시작한 이면에는 건축에 있어서 볼 것 보다 볼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변정황이나 하부구조도 중요하며 때로는 건축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배경에 따라 달리보일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건축을 목적의식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동료의 생각처럼 해방에서 한국전쟁사이 우리의 건축에는 서양의 그것과 비교하여 너무도 볼 것이 없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우리는 선배건축가들에 향한 존경심을 포기하는 지 모른다. 이 시기 볼 것 없는 건축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시대를 앞선 뛰어난 건축물들을 전시하는 작업일 수 없고 오히려 변명거리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구차한 작업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작업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건축을 우리의 맥락이 아니라 서양의 화려한 맥락에 가져다 놓고 스스로 비하시키고 그것이 마치 지적 우월의 징표 내세우기 처럼 되어버린 버릇에 반항하고 싶은 나름의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건축에 대한 명예와 책임이 건축가만의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등 총체적인 것의 몫이라면 어떠한 맥락에 가져다 놓아도 존경받을 만한 건축이 없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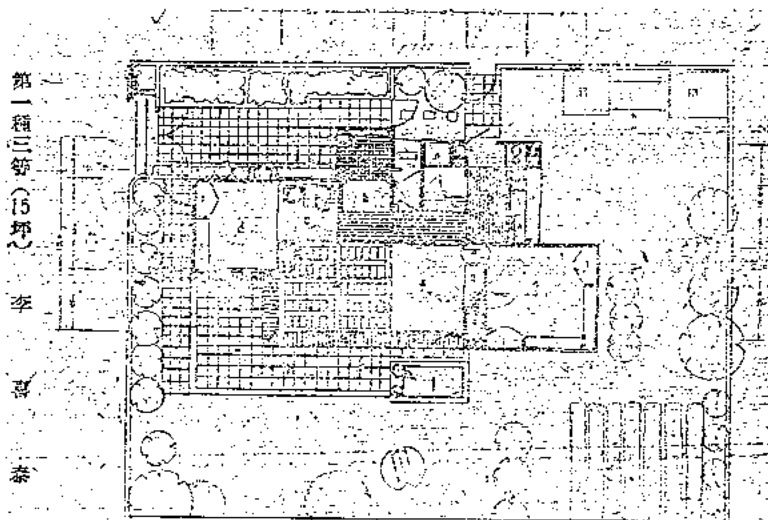
대한 질책 또한 건축가에게만 돌려져서는 안된다. 훌륭한 건축만들기의 노력은 건축가 개인의 수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축화과정에 연루된 제반 조건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한다. 우리에게는 가우디같은 건축가가 없었지만 가우디를 있게한 규엘 백작 같은 사람도 없었다.

사회가 건축가를 존경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만한 건축가가 나타나기란 신화만들기와 같은 것이다. 회화에 문외한인 필자가 미술가들 존경하는 것은 미술평론가와 미술가들이 서로를 존경하기 때문이다. 건축가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배건축가들을 존경하고 동료건축가를 존경하는 것은 곧 사회가 건축가를 존경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일 것이다.

해방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사이의 기간은 이념적인 갈등 이외에도 건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선배건축가들에게 향한 존경심을 쉽게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몫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의 우리를 있게한 선배건축가들을 존경하는 일이다.

1. 건설경기

해방이후 6.25전쟁후 복구작업이 시작되기 전의 기간동안에 신축되는 건물은 매우 적은 숫자였으며 그나마 미군관련공사가 대부분이었다. 해방 이후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는 해방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제 말 일본인들이 전쟁에 치중하면서 핏뚱되기 시작한 경제상황의



(그림 1) 국민주택 1종 3층 당선안(이희태)

연속이었다. ¹⁾(표1)

미군정의 시작과 함께 건설업체는 난립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기가 좋아진 이유보다는 미군정과 관련한 특수였다.

표2를 다시 부문간의 비율로 나타내면 표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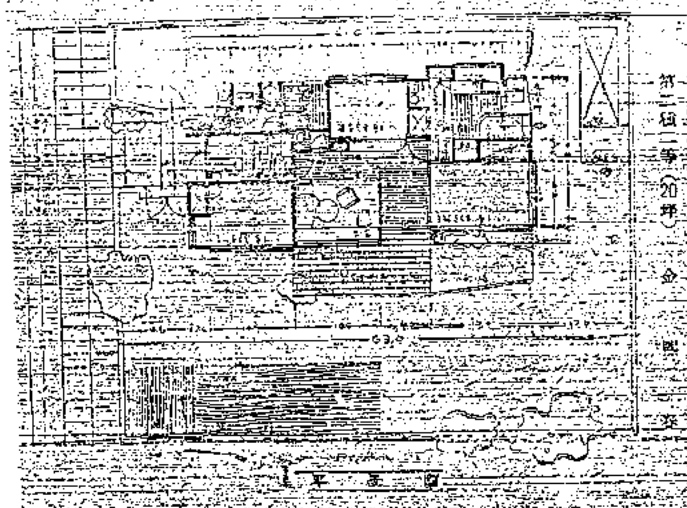
해방 직후 신설된 건설업체는 다른 부문에 비해서 그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본비율로 볼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하여 영세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건설업이라는 것이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또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제다가 안정된 댓가를 지불하는 미군관련공사의 폭등은 건설업체의 신설을 부추겼다. 다음의 자료는 미군관련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 지를 보여준다.

표4는 해방 직후 조직된 조선토건협회 회원들의 실적 만을 합친 것이다. 조선토건협회가 전체 공사의 2/3정도는 담당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군측에서 양호한 시공업체를 미군시설 건축에 활용하기 위해 조선토건협회에 업체 선정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6.25 전까지의 건축공사는 미군관련공사와 더불어 몇 단계로 나뉘어 이야기 될 수 있다. 우선 해방에서 미군 주둔공사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45년 11월까지는 별다른 공사가 진척된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45년 11월 미군주둔공사가 진척되면서 건축공사는 일대 폭동의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2차대전 말기 30년대부터 한국을 병참기지화 했던 일본인들은 한반도에 건축자재를 다량으로 비축하였는데 이 건축자재가 미군정과 더불어 미군에 의해 다량으로 일반에게 방출되어 45년 말에서 46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그림 2) 국민주택 현상2층 2등 당선안(김희준)

(표 1) 사업체 및 노무자의 감소상황²⁾

공 업 별	1943. 6		1947. 3		C/A (%)	C/B (%)
	사업체(A)	노무자(B)	사업체(C)	노무자(D)		
건축공업	416	12,578	262	6,118	63	49
기계기구공업	944	27,331	874	10,510	93	75
화학공업	681	22,869	582	21,457	85	94
가스전기수도	70	2,864	32	1,927	46	67
요업 및 토석	1,172	20,161	700	10,686	60	52
방직	1,683	61,210	537	37,353	33	61
제재 및 목제품	1,359	14,589	542	11,315	40	78
식료품	1,701	19,584	643	12,506	38	63
인쇄재본	410	7,370	143	2,655	34	36
토목건설	997	23,680	90	6,279	9	27
기타	619	12,423	95	3,155	15	25
계	10,065	225,393	4,500	133,979	44%	59%

(표 2) 남한 8도시 신설회사수 업종별 연도별 집계³⁾

	1945. 8-12	1946	1947	1948	計
鐵業	—	6	11	14	31
農林業	—	9	20	8	37
水産業	1	11	8	19	39
機械器具工業	4	36	14	19	73
金屬工業	—	—	—	1	1
電氣工業	—	15	11	10	36
化學工業	1	29	31	31	92
蠶業	—	10	13	15	38
製材 및 家具業	—	23	15	16	54
纖維工業	1	26	17	9	53
其他製造工業	1	24	59	48	132
土建業	4	93	81	36	214
印刷 및 出版業	2	22	22	15	61
金融業	—	—	4	33	37
保險業	—	5	4	3	12
運輸業	1	29	29	21	80
倉庫業	1	1	1	—	3
貿易業	3	108	40	47	198
商業 및 其他	8	95	113	47	263
計	27	549	497	395	1463

주) —————

1)김기원, 「미군정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자료: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p1-102.

3)알의 인용, 1949, I-150.

(표 3) 8. 15후 신설회사 산업별 연도별 집계⁴⁾

	45.8-12	46	47	48	합 계	불입자본(합계)
제조업	9 (33%)	192 (35.0)	186 (37.4)	167 (42.3)	554 (37.8)	1201 (34.4)
광업	0	6 (1.1)	11 (2.2)	14 (3.5)	31 (2.1)	119 (3.4)
토건업	4 (14.8)	93 (16.9)	81 (16.3)	36 (9.1)	214 (14.6)	346 (9.9)
무역업	3 (11.1)	108 (19.7)	40 (8.0)	47 (11.9)	198 (13.5)	669 (19.1)
상업운수	10 (37.3)	130 (23.7)	151 (30.3)	104 (26.3)	395 (26.9)	885 (25.3)
농림	1 (3.7)	20 (3.6)	28 (5.6)	27 (6.8)	76 (5.2)	275 (7.9)
합 계	27	549	497	395	1468	3495

(표 4) 企業主別工事額(單位千圓)⁵⁾

		1945年	1946年	1947年	合 計
企業官公署 其他公共 團體	土木	—	152,187,768	581,352,210	733,539,987
	建築	—	51,702,858	579,949,849	1,113,652,707
	其他	—	108,634,954	128,081,940	236,716,804
	小計	—	776,525,580	1,307,383,999	2,083,909,579
미군부대 관계	土木	2,520	66,004,758	127,273,344	193,280,622
	建築	6,682,270	556,862,672	342,636,539	905,181,481
	기타	4,530,751	176,960,012	100,010,904	281,501,667
	소계	10,215,541	799,827,442	569,920,787	1,379,963,770
민간	土木	59,000	—	9,950,000	10,000,000
	建築	2,955,000	26,430,000	135,347,2??	164,732,208
	기타	1,001,763	2,592,768	17,093,5??	26,688,122
	소계	4,006,763	29,022,768	162,390,???	195,420,33??

시행된 공사에 있어서는 자재를 구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조선은행조사부에서 1949년 발행한 경제년감을 보면 해방에서 46년 사이를 토건사업의 황금시대로 분류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있다.

“당시는 일제시대 군부에서 다량저축하였던 자재가 일반민간에게 방출되어 토건자재면으로 하등의 지장을 주지않았으며 공작물도 영구적 건물이 근소하고 대개 가설수리 등의 공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기술적

견지로 보아도 용이한 공사가 전반이었다. 지금은 기업적인 미군부대가 진주한 직후인 만치 정책상으로 융통성있는 공사지불을 실시하여 하등의 곤란을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 할 수 있었던 것이다.”⁶⁾

47년에 이르자 일제시기 비축되었던 자재가 바닥을 드러내고 이내 자재난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불황을 맞이하게된다. 당시 시멘트의 경우, 남한에서는 그 생산공장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1947년에 이르러 일제시기 비축되었던 자재가 감소하여 그 재고가 바닥에 가까와지자 북한을 상대로 시멘트 브로커들이 상당수 횡횡하게 되었다.⁷⁾ 남한에서 생산되는 토건재료로 일부목재를 제외하고는 근소하나마 삼보양회가 전부이었으나 그나마 그 생산도 수요량의 근소한 양만을 남당할 뿐이었다. 1946년 시멘트의 생산량은 만 여톤에서 48년에는 2만 여톤으로 증가하게 되나⁸⁾ 절대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2. 건축가와 건설자

신축이 거의 없고 그나마 건설경기의 대부분이 미군관련 가설공사이던 40년대 말 서양에서는 이미 근대건축이 기울어가는 조짐을 드러내던 시절이었지만 우리 건축가들의 건축적인 실무역전은 서양의 르네상스에도 못마치는 것이었다. 웰터로서의 건축을 넘어 건축을 작품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건축가들에게 건축의 일거리가 아니라 건설의 일거리만을 제공하였다.

일제시기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들의 해방 이후의 행적에 너무나 뚜렷이 그러한 흔적이 발견된다. 해방 전에 건축물을 설계하였다고 알려진 한국인 건축가들은 해방 이후 전원이 건설업회사에 몸담게 되었다.(표5)

뿐만 아니라 해방 전에 설계사무소에 소속되었던 건축가들도 설계사무소를 차린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해방전 대표적인 한국인 설계사무소였던 박길룡 사무소의 정식직원이었던 사람들의 해방 후 활동도 건축보다는 건설이나 판공서 쪽에 편중되었다.(표6)

주) —————

4)조선은행 조사부, 『경제연감』 1949 1-150.

5)조선은행부, 『조선경제년보』, 1-380, 조선은행조사부, 『경제년감』, 1949.

이 표는 해방 직후 조직된 조선토건협회 회원들의 실직 만을 합친 것이다. 조선토건협회가 전체 공사의 2/3정도는 담당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군측에서 양호한 시공업체를 미군시설 건축에 활용하기 위해 조선토건협회에 업체 선정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6)조선은행조사부, 『경제년감』, 1949.

7)조선은행조사부, 『경제년감』, 1949 1-78쪽.

8)조선은행조사부, 『산업총회』, 1954. 조선은행조사부, 『조사월보』, 1951.4.

(표 5) 해방 전 건축가들의 해방 후 소속

해방전 설계실적 있는 건축가	해방후 소속
박 길룡	해방전 사망
김 세연	대창공영회사
박 인준	대륙공영사
박 동진	태평건물회사
강 윤	고려토건회사
김 순하	우일사
김 희춘	대륙공영사
유 원준	신광토건사
장 연채	우신토건사
유 상하	극동공업사

(표 6) 박 길룡 건축사무소 소속인원의 해방후 동향⁹⁾

	직원	해방후 소속
회 원 명 부	전 창일	조선은행영선과
	오 영섭	오공무소
	김 관정	중외상공사
	임 기화	
	김 봉길	
기 다	이 병문	장백, 협성토건
	윤 정중	
	김 한섭	전남도청영선계장

3. 공백 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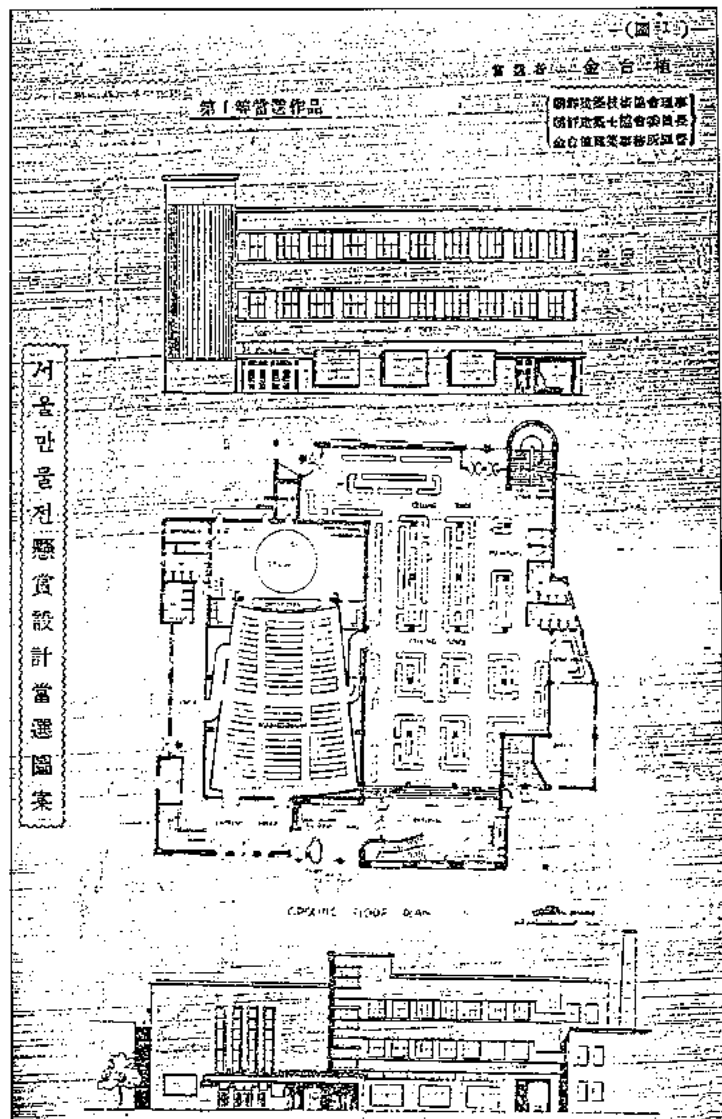
미군관련공사의 폭주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축에서 건설로 방향전환해야하는 것 말고도 건축가들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관공서 조직의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사회조직의 중요한 부분에서 한국인들을 소외시켰고 해방후 조직은 남겨진채 일본인들만 사라지게 된것이다.

1941년 총독부 설계조직이라 할 수 있는 관방 회계과 영선계의 촉탁이상의 직원 110여명 중 한국인은 불과 7명이였다. 경성고공 졸업자들을 보더라도 1923년부터 1933년까지 총 73명중 한국인은 불과 16명이였다.(표7)

비록 총독부의 설계조직에서만

주) _____

9) 임기화와 김봉길은 그 행적을 찾을 수가 없다. 오영섭의 경우 오 공무소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오 공무소는 해방 전부터 오영섭의 형 오병섭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였다. 이외에 박길룡 건축사무소에 정식 직원으로 있던 사람은 김 한섭, 이 병문, 조 병섭, 윤 정중 등이 있었다. 이들 중 조선건축기술단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김 한섭과 이 병문인데 이 병문은 동맹이인이 있었는데 각각 장백토건회사, 협성토건회사 소속으로 되어있다.



(그림 3) 서울만물전 현상 당선안(김태식)

한국인들이 소외되었던 것은 아니다. 민간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등에서도 한국인에게는 기회가 없었다.(표8)

해방직후 한국인 건축가의 부족은 근원적인 문제였다. 일제의 부당함 속에서 그나마 건축가로 활동 할 수 있었던 경성고공 출신이 한 해에 2~3명 정도 배출되어 해방당시까지 25년간 6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총독부에서 실제로 독자적인 설계업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기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손꼽을 정도의 숫자였다. 해방 당시 건축관련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10인 이내였고 거의 모두가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였다. 기타 국내의 건축교육기관은 공업학교와 직업학교 정도가 있을 뿐이였다. 해방 후 52년까지는 48년 동아공과학원의 후신으로 설립된 한양대와 46년 경성고공의 후신으로 설립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건축과가 없었다.

따라서 해방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백과 건설수요를 담당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건축인의 숫자가

(표 7) 해방 당시 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리의 민족별 구성비¹⁰⁾

등 급	일본인	한국인	합계
1등급(관입관, 책임관)	2	4	6
2등급(주임관)	143(82.2)	31(17.8)	174
3등급(관입관)	3848(86.0)	624(14.0)	4472
4등급(촉탁, 고원)	46664(61.8)	28891(38.2)	75555
합 계	50657(63.2)	29550(36.8)	80207

(표 8) 해방 전 건축기술자의 주요 근무지별 분포(일본인/한국인)¹¹⁾

관공서	민간건설회사	교육관계
총독부 철도국 34/2	청수조경성지점 11/	경성고등공업학교 3/1
총독부 회계과 19/6	간조 경성지점 9/	경성상공학교 1/
총독부 채신국 9/	사송조 3/	소화공과학교 2/
경성부정 9/2	대림조 1/	경성공업학교 2/
경기도 경찰국 5/	대왕토목 4/	대동공업전문학교 1/
경기도 회계과 3/	북선철도사무소 3/	기타 학교 2/
군관계 기관 22/		
계 101/10	31/	11/1

부족하였다. 또한 미군공사의 폭주로 인한 건설 수요와 신축의 부재라는 상황은 건축가들이 설계만을 주업무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 시기는 일제시기 활동을 하던 건축가들 뿐 아니라 고공이나 공업학교, 직업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도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활동할 수 밖에 없었다. 45년 해방 당시 최고 원로 건축가는

박인준(1892~1974)으로 53세였고 그 다음은 김 세연(1897~1975)으로 48세였다. 이 천승(1910~1992)의 나이는 35세였다.

김한섭(1920~1990)이 46년 전남도청 영선계장을 자낸 나이가 27세였고 김 정수(1919~1985)가 미군정 건축서 과장이던 나이가 불과 26세였다.

다음의 표 9는 朝鮮建築技術協會 1947년 10월의 會員 618명에 대한 직업을 분류한 것이다.

618명이라는 숫자는 교육기관이나 해방 전 건축관련 학교 졸업생의

숫자를 생각할 때 매우 많은 것이다. 건축계 전반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건축기술협회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봐도 무방 할 것이다. 이 중 관청의 설계조직에 있던 사람들은 239명이었다. 건설회사 소속이 189명이었고 관공서와 건설회사 소속인원을 합하면 428명으로 전체의 70%정도에 해당한다. 건축관계인 대부분이 관청이나 건설회사에 속한 것은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여건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 시기 중에 건축가들이 소속되었던 관청의 설계조직은 도청 영선계, 시청 영선계, 남조선 파도정부 영선계, 미군정 운수부, 주택영단 등이었다.

4. 관공서 실무조직

일제시기 관의 대표적인 설계조직은 총독부 관방 회계과였다. 여기서 철도와 채신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관청 관계의 신축건물을 설계하였다. 물론 각 도청이나 부청의

(표 9) 조선건축기술협회 회원의 소속

소 속	인원수
관청 시.도.군영선계 45	239명,
남조선파도정부 24	
운수부, 철도 113	
조선주택영단 12	
채신부 6	
수도관구경찰청 8	
전매국 18	
기타 13	
기관 조선은행 3	19명
조선산업 1	
조선전업 9	
조선주조 1	
조선직물 2	
조선은행 3	
建設會社, 工務所, 土建會社, 土木建築請負	189명
미상	73명
학생 서울대 35	57명
한양대 21	
연세대 1	
설계사무소(소영 14)	28명
국세 6	
신강축 1	
신흥 2	
중앙 5	
교직	10명
기타(建築이외)	3명

영선계에서 청사를 설계하는 일도 있었다. 해방후 관청의 설계조직은 각 부서별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가장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서는 운수부였으며 따라서

조선건축기술협회 회원 중 상당 수가 운수부 소속으로 되어있었다.¹²⁾

45년 해방을 맞아 미군이 진주할 때 종래 경시되던 운수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수부를 신설하였다. 46년 3월 미군정 법령 제 64조에 의해 신설된 운수부는 철도, 해상, 항공, 공공도로의 4운수국을 포함하고 있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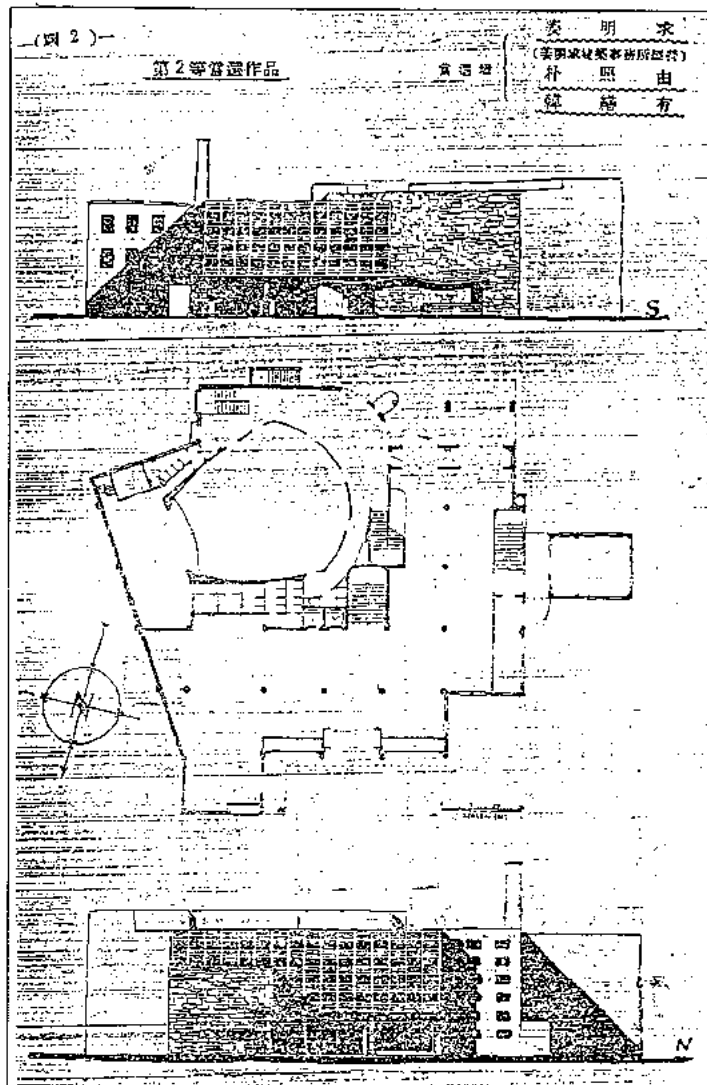
주)

10) HUSAMGJK, PART 1, p.32, 안 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논

11) 조선기술자명부의 건축관련 기술자들의 명단을 도표화 한것임. : 박 훈영,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서활동한 일본인 건축가의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2, 34쪽

12) 상세한 자료는 필자 학위논문,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1993 서울대) 81~82쪽 참고

13)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8年版, 300쪽.



(그림 4) 서울만물전 현상2등안(강명구 외)

철도에 편중된 교통을 평중하게 종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운수부 최대의 과제였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고 운수부에서 행한 사업의 대부분은 건설사업이었다. 교량, 병원, 간호기숙사,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에 스팀장치를 하거나 항만시설의 개선 등이 운수부에서 행한 사업이었다. 약간의 아파트와 기숙사, 부산의 공장시설 일부, 그리고 提川 豊基間の 전차공사의 준공이 있었다.¹⁴⁾

1947년 6월 20일 발행의 조선건축지에는 동년 3월

조선건축기술단, 조선토건협회, 조선건축사협회 각 회장의 명의로 건축행정기구재편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기록하고있다. 이는 설계조직이 여러부서에 나뉘어 있으므로해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변을 개정코자 함이었다. 당시 군정조직내에는 내무부가 없었고 새로 개정될 정부조직에 내무부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이 내무부 산하에 건축국을 두어 건축에 관계되는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는 건의 내용이 골자였다. 단 운수부의 건축관련부서는 제외되었다. 건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당시의 관청 설계 업무는 (1)서무처 건축서 소관으로 일반건축사업 (2)각 부처의 영선사무 (3)주택행정처의 사무 (4)경우부의 도시건축물 및 건축공사감독사무 (5)상무부의 공장건설 및 보수공사사무 등이었다.¹⁵⁾

다음의 표10은 해방 전 관청 소속인원의 해방후 동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독부에 속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건설회사로 간 것을 알 수 있다. 이 용재와 이 계년 만이 과도정부소속으로 남았다. 해방후는 해방전의 관방 회계과 영선계에 해당하는 설계조직이 유지되지 않았다. 관방 회계과는 철도와 체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관공서 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반면 해방후는 각 부서별로 설계조직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관방 회계과 영선계의 조직은 이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해방전 철도국 소속의 건축가들은 전원이 운수부로 이어지고 있다.¹⁶⁾ 운수부가 설계나 건축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장 활발한 건설사업을 펼쳤고 따라서 철도국소속의 인원은 그대로 운수부로 이어졌다.(표11, 12)

5. 건축실무

신축이 거의 없었고 있다하더라도 미군관련공사나 급히 건설을 요하는 건축물이 전부이던 이 시기의 민간 설계사무소는 존립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몇 몇의 설계사무소를 발견할 수가 있다. 표13은 조선건축사의 회원명부 중에 설계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을 정리한 것이다.

해방 전에 개설된 박 길룡과 박 인준의 설계사무소는 해방 이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주) —————

14) 앞의 인용, 302쪽.

15) 『조선건축』, 1권 2집, 부5쪽.

16) 운수부에 철도국이 있었다.

해방전	해방후
기도청영선계	서울시청영선과
성부공영부영선계	신한공업회사
성부도시계획과 제21기술계	수도경찰청보안과건축계
성부도시계획과 제21기술계	남약사
도국 경성건축구	철도운수국공무과건축계
도국개발과 건축계	부산 철도사무소 건축과
도국공무과	철도국공무과 건축계
도국공무과건축계	운수부공무청
도국대전 건축구	경성철도사무소 건축과
년경성철도사무소건축계로	경성철도사무소 건축과
독부관방회계과영선계	남조선과정건축서
독부관방회계과영선계	신광토건사
독부내무국건축과	대창공업회사
독부내무국건축과	서울공대건축과교수
독부내무국건축과	우신토건사
독부내무국건축과	조선주택영단
독부내무국건축과	태평건설회사
독부영선계후회계과영선계	대륙공업사
독부관방회계과	동위부건축과
독부회계과영선계	남조선과정사법부영선계
독부회계과영선계, 청평사	포스트엔지니어
청북도회계과	대동건설회사
해도청 회계과	웅용공업회사

40년대 가장 화려한 실무활동을 한 건축가는 김 태식일 것이다. 김 태식은 해방과 동시에 설계사무소를 차렸으며

The organizational chart of the Ministry of Defense (국방부) is structured as follows:

- 국방장관** (Minister of Defense)
 - 민정청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지방안전청** (Local Security Agency)
 - 외무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석방행정처** (Ministry of Prison Administration)
 - 물가행정처**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관재처** (Ministry of Local Administration)
 - 서무처** (Ministry of General Administration)
 - 인사행정처** (Ministry of Personnel Administration)
 -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 장무부** (Ministry of Defense)
 - 시법부** (Ministry of Defense)
 - 문교부** (Ministry of Education)
 - 상무부** (Ministry of Defense)
 - 제무부** (Ministry of Defense)
 - 채인부** (Ministry of Defense)
 - 보건후생부** (Ministry of Defense)
 - 도목부** (Ministry of Defense)
 - 공보부** (Ministry of Defense)
 - 동위부** (Ministry of Defense)
 - 동무부** (Ministry of Defense)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운수부** (Ministry of Transportation)

External organizations connected to the Ministry of Defense:

- 국방성비대 총사령부** (Joint Chiefs of Staff)
- 해안경비대 총사령부** (Joint Maritime Command)
- 국방성비대 중앙훈련소** (Central Training Center for the Joint Chiefs of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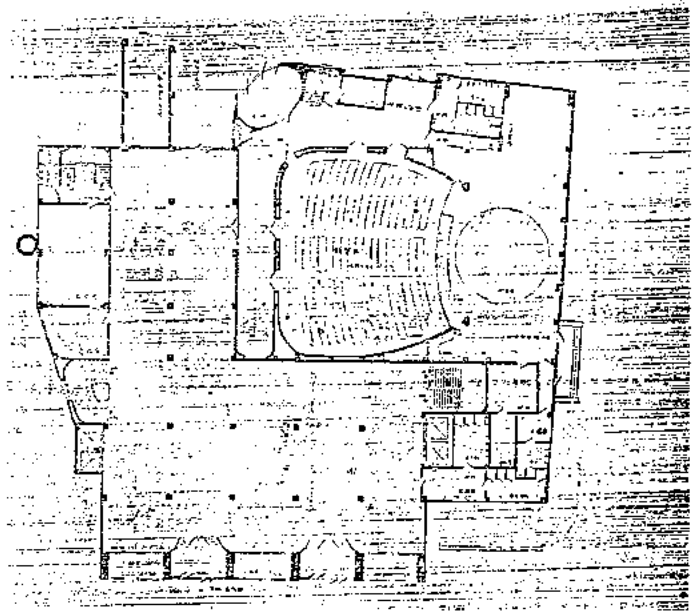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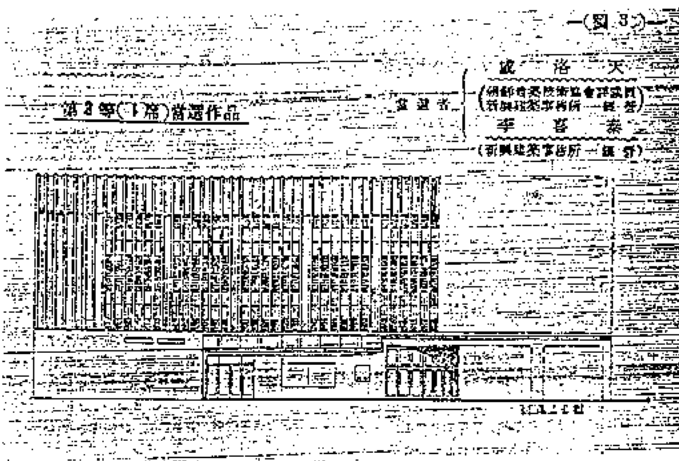
```

graph TD
    A[보건복지부] --> B[민정상관]
    A --> C[시정정]
    A --> D[관계처]
    A --> E[의무처]
    A --> F[서무처]
    A --> G[국가행정처]
    A --> H[식량행정처]
    A --> I[인사행정처]
    A --> J[노동부]
    A --> K[토목부]
    A --> L[운수부]
    A --> M[재신부]
    A --> N[통회부]
    A --> O[공보부]
    A --> P[보건행정처]
    A --> Q[제약부]
    A --> R[상무부]
    A --> S[농무부]
    A --> T[정무부]
    A --> U[산업부]
    A --> V[문화부]
  
```

The organizational char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is structured as follow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 Minister's Office (민정상관)**
 - Directorates and Commissions:**
 - 시정정 (City Administration Commission)
 - 관계처 (Related Affairs Office)
 - 의무처 (Medical Affairs Office)
 - 서무처 (Secretariat Office)
 - 국가행정처 (National Administration Office)
 - 식량행정처 (Food Administration Office)
 - 인사행정처 (Personnel Administration Office)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토목부 (Ministry of Construction)
 - 운수부 (Ministry of Transportation)
 - 재신부 (Ministry of Finance)
 - 통회부 (Ministry of Home Affairs)
 - 공보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
 - 보건행정처 (Health Administration Office)
 - 제약부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상무부 (Ministry of Trade)
 - 농무부 (Ministry of Agriculture)
 - 정무부 (Ministry of Justice)
 -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 문화부 (Ministry of Culture)

70 건축사 9412



(그림 5) 서울만물전 현상 당선안(성낙천, 이희태)

(표 13) 45년에서 53년 사이의 민간설계사무소

설계사무소명	소 속 인 원
국제건축사무소	강 덕모, 이 민호, 박 학재, 손 증모, 최 영선, 최 은혜
중앙건축사무소	신 현길, 신 현대, 김 돈동, 이 문복, 최 명성
신흥건축사무소	이 희태, 성 낙천
신건축설계사	김 성근
건축사무소자영	김 상희, 강 봉진, 모 반현, 김 태식, 김 중화, 김 동진 김 홍배, 신 태산, 심 의권, 윤 중규, 정 은용, 정 우섭 홍 순오, 박 소유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김 태식은 미군 장교와의 인연으로 46년 미군공사를 맡게 되는데 미군관련 공사의 경험으로 미군관련 자재와 서류양식에 익숙하게 되었다. 학교신축은 원조자금에 의해서 서류양식을 영문으로 꾸미고 자재도 원조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했는데 이면에서 김 태식은 누구보다 앞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많은 설계를 따낼 수 있었다.²¹⁾ (표15)

(표 14)조선건축지에 소개된 신축건물

공년	건물명	위치	설계담당	구조
18. 5	연백공립여자중학교		경기도회계과영선계	
16. 8	시흥군구청사		경기도회계과영선계	조적 2층
18. 5	종로구청사	종로2가	서울시공영국영선계	조적 2층
18. 10	종로국민학교		서울시공영국영선계	조적 2층
17. 3	성북 경찰서	돈암동 258번지	수도관구경찰청건축과	조적 2층
17. 10	동도극장	돈암동대로 동측	오 명섭	조적
18. 3	윤수부 용산판사		윤수부	
17. 5	용산제3아파트	한강로3가	윤수부	조적 2층
17. 6	용산모터풀	한강로3가	윤수부	조적 단층

(표 15)해방후 52년까지 김태식의 작품²²⁾

년도	건물명	구조
1945. 11	조선도서수식육장	철근콘크리트조
1950. 1	성신여자중학교 교사증축 연와조3층와지붕	조적조 3층
1946. 2	강당결 식당, 전료소 및 연와조기와	조적조
1946. 9	미 제7사단 사령부 난방시설	
1948. 6	동덕학원 교사신축 연와조 3층 와지붕	조적조 3층
1946. 2	기술종업원 숙소,	
1946. 2	미국309폭격부대 김포비행장	조적조
1946. 7	K. E. C. D 강교구락부 및 식당신축	조적조 평지붕 와이음
1950. 3	숙명여자중학교, 특별교실(3층강당)신축	철근콘크리트 함석지붕
1951. 9	한국상업은행부산북구지점	조적식
1951. 12	안양보육원사	조적식

주)-----

20)이영한, '1945-36년도 국민주택현상안의 전통적 공간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무에이광노교수 정년퇴임기념 건축학논총", 379-399쪽.

21)안창모, 송 율, 류전희, 「김태식과의 대담」(필자 학위논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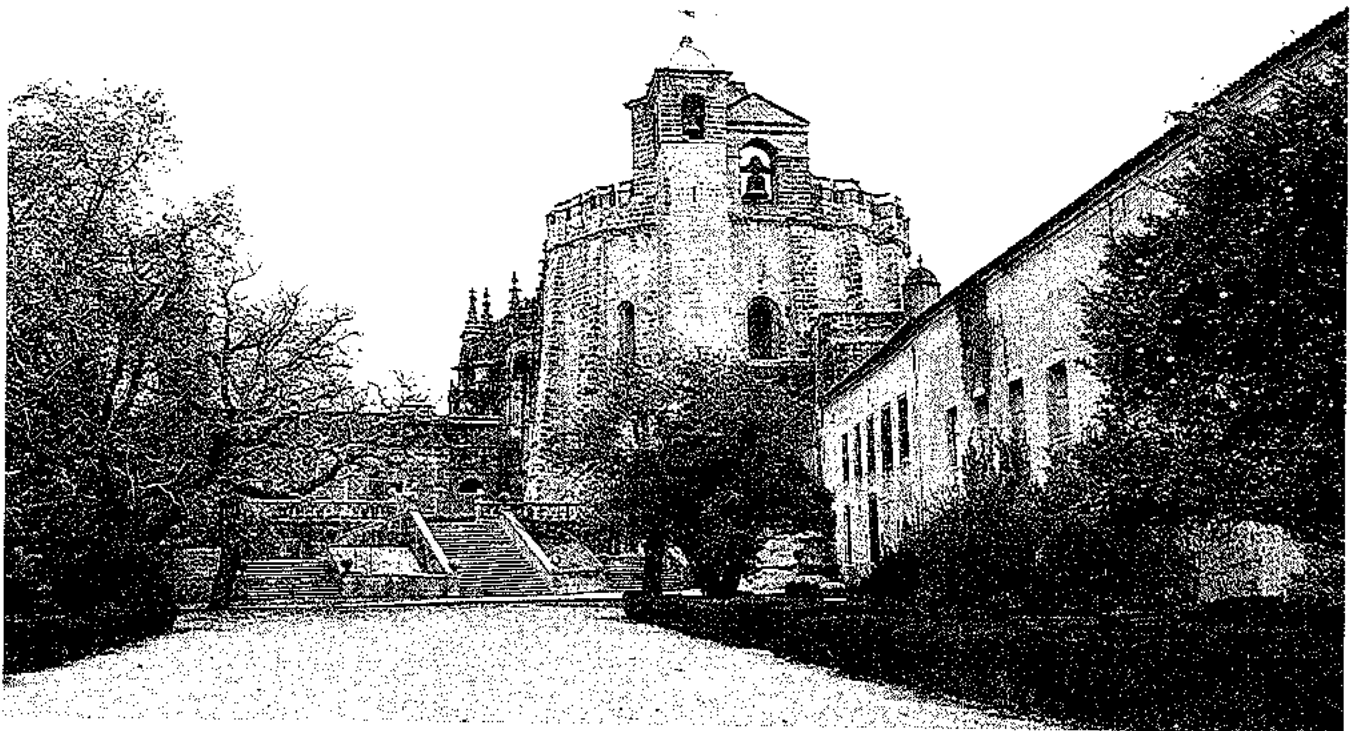
22)김태식 개인소장 작품이력

고딕 성당 건축 (7)

Gothic Catholic Church Building (7)

—포르투갈 그리스도 수도원—

朴孝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교회 참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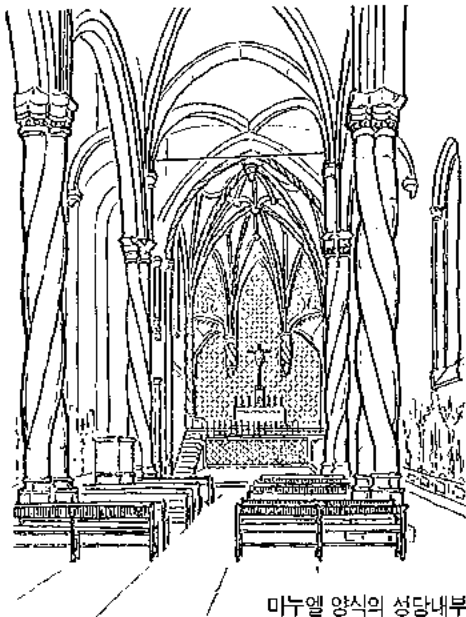
1. 개요 및 역사

기사들의 성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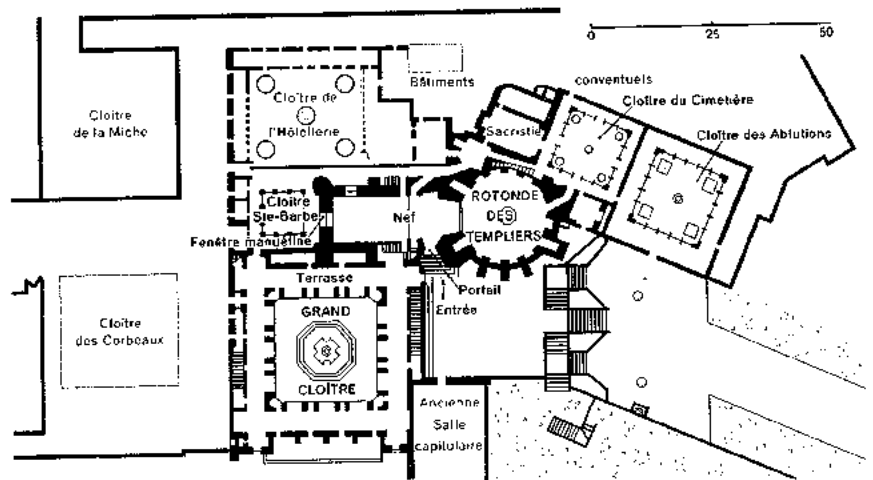
토마르(Tomar)시의 상징인 그리스도 수도원은 역사적 예술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성은 기사들의 수도회의 포르투갈지부 본거지였지만 교황이 기사들의 수도회 포르투갈지부 본거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포르투갈의 디니스(D.Dinis)왕은 이 성을 그리스도 수도회로 1319년에 변경함으로써 그리스도 수도원이 탄생되게 되었다. 그리스도 수도원은 기사들이 사용했던 최초의 기도실인

지붕과 기둥이 둥근 원형건물에서부터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맨 먼저 묘지의 수도원 경내 회랑(Claustro do Cemiterio)과 세정의 수도원 경내 회랑(Claustro da lavagem)이 건립되었으며 그 후 마누엘 1세(D.Manuel)에 이어 조아오(D.Joao) 3세가 통치하면서부터 수도원의 규모는 확장되었다. 특히 1529년 이후 리스본의 안토니오(Antonio)에 의해 실행되었던 수도회 규정의 개정과 함께 수도원의 규모는 눈에 띄게 확장되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수도원의 규모가 커지게 되어 수도원

경내 회랑이 6개가 더 건립되었고 수도자들의 독방의 대형 복도, 부엌과 식당, 창고와 저수조 등이 건축되었다. 모든 건축은 건축가 Joao de Castilho가 이 공사를 담당하였으며 건축의 1/3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기인 스페인이 지배했던 때에는 수도원의 물공급 확장공사뿐만 아니라 수도원 안뜰의 주회랑 공사의 마무리 작업과 새로운 수위실을 세운 북쪽정면의 공사에 전력을 쏟았다. 이 때의 건축가들은 Filipe Tercio와 Pedro Ferandes de Torres 였다. 그리스도 수도회의 존재와 수도회의 막강한 경제력을 정당화하는



마누엘 양식의 성당내부



그리스도 수도원 평면도

역사적 이유들은 17세기 말부터 수정되었고 19세기초 그 당시 포르투갈의 정치상황과 자유주의는 수도회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1834년에 수도원은 문을 닫게 되었다.

2. 건축적 특징

포르투갈에는 물론 성당만을 건립한 예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큰 수도원 내에 성당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립하는 것이 예사였다. 여기에 소개될 그리스도 수도원 이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수도원의 예를 들자면 바탈라(BATALHA)수도원, 알코바싸(ALCOBACA)의 산타 마리아(SANTA MARIA) 수도원 리스본(LISBONNE)의 히로니미트(HIERONYMITES)수도원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여기에서 소개되는 그리스도 수도원의 양식은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마누엘 양식으로서 포르투갈에서는 고딕양식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에서 나온 독특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이 비롯된 것은 마누엘(Manuel)1세 치하때에 성당건축시 사용, 번성했기 때문에 마누엘 양식이라고 불리우며 짧은 기간(1490~1520)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의 예술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독창성과 중요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마누엘 양식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바다의 열정과 그 당시 탐험을 통하여 발견한 머나먼

미지의 신대륙으로 말미암아 포르투갈 전역이 활기찬 열정으로 변하고 이베리아 반도의 강으로 1006km에 이르는 타즈강 연안지방의 새로운 위력과 화려함을 표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건축양식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그 당시의 포르투갈 역시 고딕성당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수도원의 건축은 성당 기둥의 높이나 궁륭의 리브조작은 설계상으로 고딕양식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나선으로 꼬인 기둥은 완전히 다른 양식을 보여주며 여기에서 새로움과 활기를 찾아볼 수 있다. 항해용 닻줄을 나타내는 쇠시리가 개선 아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첨두형으로 교차된 궁륭에는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부조된 굵은 리브가 있고 그 모양은 뾰족한 끝이 넷으로 된 별모양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매듭을 맺은 장식적인 닻줄과 분할된 아치위에는 평평하게 변한 궁륭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조각에서 또한 마누엘 양식이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즉 창문, 문, 원화창, 난간에는 월계수가, 양귀비 꼬투리, 장미, 옥수수 이삭, 도토리, 떡갈나무, 잎사귀, 산형화다발, 아티초크, 엉겅퀴, 진주, 비늘무늬, 밧줄, 닻, 지구의, 혼천의(옛날,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던 기계)등으로 장식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수도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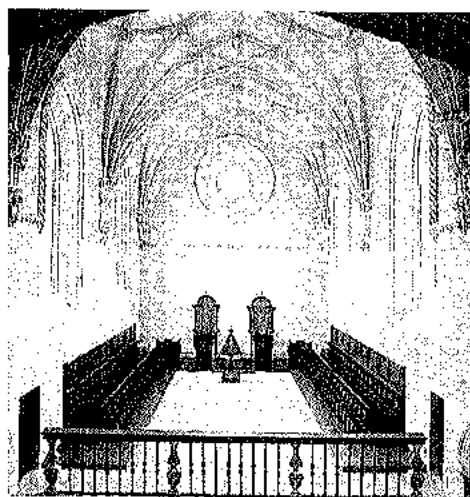
십자가는 이러한 모든 장식을 틀로 하여 발전하여 나감으로써 독특한 양식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3. 성당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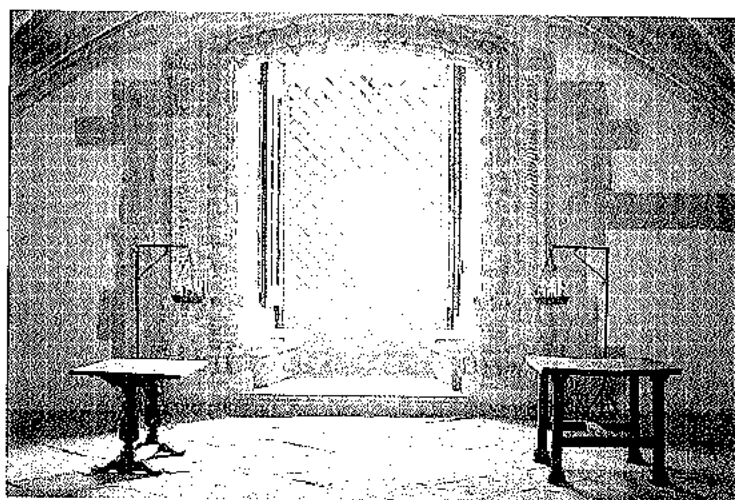
3-1. CHAROLA(지붕과 기둥이 둥근 원형건물)

12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축물로 외면적으로는 로마네스크식의 둥근지붕이 크레노가 있는 테라스로 변형된 넓은 부벽위에 얹혀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견고한 성채모습을 닮은 이곳은 성당기사들의 최초 기도실이었다.

카롤라의 내부는 8각형으로 로마 비잔틴 양식이며 둥근 천정으로 끝이 나있다. 조상, 그림, 위데자 양식(12~16세기의 스페인의 아라비아 예술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양식)의 회장벽토, 벽화 등의 화려한 장식은 16세기초(1510년~1515년)의 것으로서 성당의 기사들에 의해 받아 들여졌던 동양적 정취가 남아 있다. 후에 Diogo de Amada는 카롤라를 새로운 내진으로 개조했다. 나무로 조각한 황금빛 까치발 위에 있는 입상들은 아치에 고정되어 있고 입상 위로는 플랑드르 영향을 받은 고딕양식의 단점이 있다. 이 입상들은 예언자들을 나타내며 16세기 후반의 나무로 된 다색배합 작품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벽의 가운데 부분은 약 2.5m×4m 크기의 색칠한 나무 판자로 되어있으며 나무 판자의 위쪽부분은 반원형이며 벽위쪽



내진



제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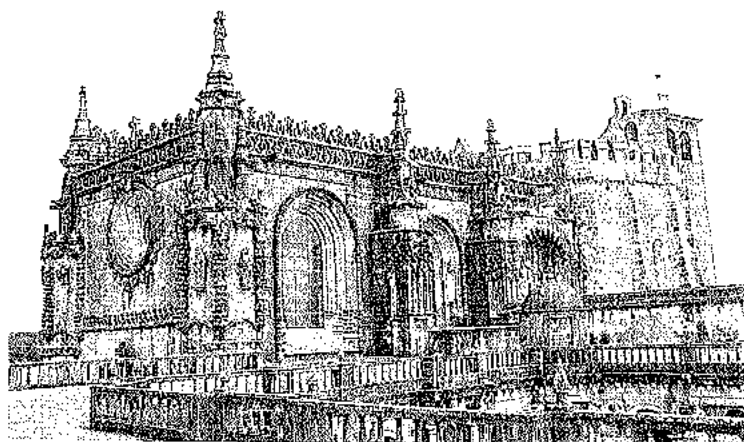
구석에는 감긴 리본을 달고 있는 천사들이 그려져 있다. 이 벽에 그린 그림은 Domingos Vieira Serrao 또는 Simao de Abreu가 1592년에서 1600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몇 점의 그림이 19세기 초반에 제거 또는 파손되었으며 남아 있던 22점의 그림은 1834년 남자수도회가 없어진 후 미술 아카데미로 옮겨져 보관되었다. 10년이 지나 코스타 카브랄(Costa Cabral)장관 덕분에 이 작품들 대부분을 다시 카롤라로 옮겨올 수 있었다. 벽 위쪽에 있는 네트랑프화들에는 화가 Simao de Abreu의 작품이 있다. 아래부분에는 8개의 측면 제단이 있으며 이 제단들은 장식 벽 그림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지금은 “남시하는 안토니오(Antonio)성인”과 “베르나르도(Bernardo)성인” 두 그림만이 남아있다. 두 작품은 모두

1536년에서 1538년 사이 그레고리오 로페스(Gregorio Lopes)가 제작했다. 카롤라의 중앙은 8각형으로 로마 비잔틴 양식의 기둥머리를 가진 아치로 나누어져 있다. 아치 안쪽에는 조각한 황금색 백함으로 십자가를 교대로 넣어 꾸몄고 아치 내부의 정점에는 그리스도의 약자 XPS가 있다. 훌륭하게 조각된 단집 3점이 궁륭에 있는데 올리비에 드 강(Olivier de Gand)의 작품으로서 플랑드르 양식이다. 기둥에 세워져 있는 입상들은 나무로 제작되었고 16세기의 다색 배합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카롤라 외부에는 좁은 천창 둘레에 큰 날개가 달리고 긴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리스도 수난의 증표를 지니고 있는 벽화가 있다. 16세기 초의 이 벽화들은 1533년에서 1562년까지 수도원의 화가였던 Femao Rodrigues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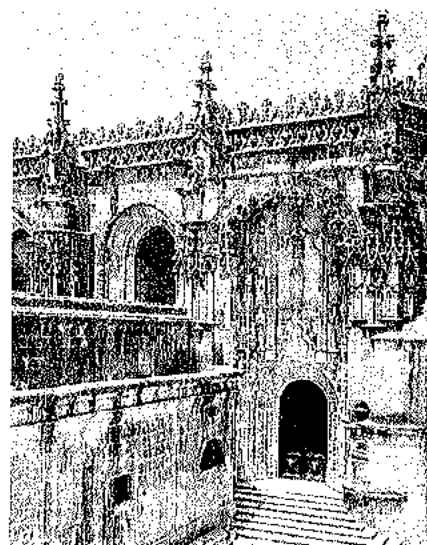
1511년에서 1521년까지 활동이 왕성했던 토마르의 화가 Femao Eanes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단으로 가는 통로의 천창에서는 문장모티프가 있는 벽화 자국을 볼 수 있으며 포석이 깔린 카롤라의 바닥끝에는 종루로 이어지는 문앞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 무덤은 1529년 수도회의 개혁자였고 마드리드에서 1551년 생을 마친 리스본의 수사 Antonio의 돌무덤이다.

3-2. 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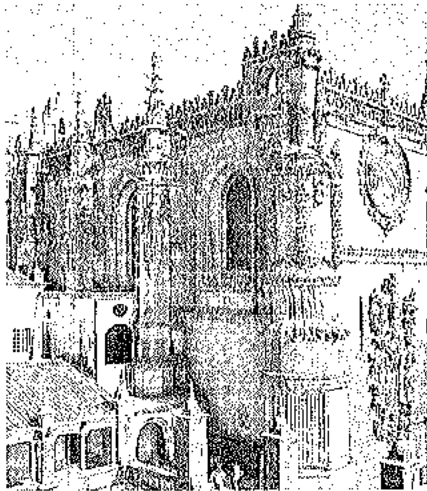
내진에는 고딕식 측면기둥과 함께 4개의 대형창문이 있어 내부가 밝지만, 둘레를 대칭적 줄무늬로 새겨 장식한 서쪽의 둥근창으로 인해 한층 더 밝다. 벽에 붙어 있는 성직자석은 리스본에 있었던 산타 조아나(Santa Joana) 수도원의 내진에 있던 것이다.



남측 전경



성당 정문



서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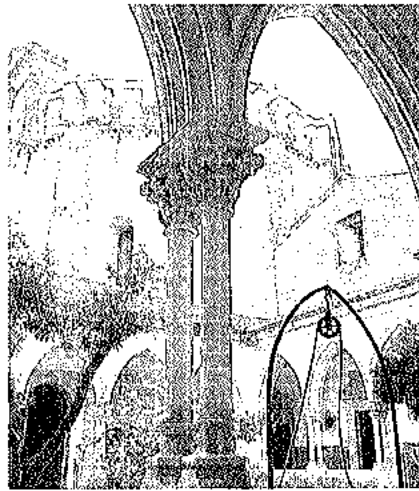
플랑드르 사람인 Olivier de Gand과 Fernao Munoz의 공동작품인 본래의 성직자석은 19세기 프랑스의 침입때 파손되었기 때문에 1920년대에 이곳으로 옮겨놓았다.

3-3. 제의실

내전의 아래부분은 1510년 Diogo de Amada에 의해 공사가 시작되어 마누엘(Manuel)1세가 Diogo de Braga에게 보낸 1510년 6월 13일자 편지에서 한 명령때문에 제의실로 정해졌으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수도회 참사회의 집회소로 사용되어 이 내부공간은 일반적으로 참사회실로 알려졌다. Diogo de Amada가 설계를 하고 즉시 시작했던 본래공사는 Amada가 북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 전설 책임을 맡고 떠나게 됨에 따라 joao de Castilho가 마무리를 지었다. 이 제의실의 천장은 평평한 아치로 되어 있으며 뾰족한 까치발에서 나와 여러 개로 분할된 아치로 천장에 줄무늬가 들어 있다. 대형 유리창의 내부장식, 그중에서도 특히 서쪽으로 향한 유리창의 내부장식과 기둥의 장식은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다. 기둥의 모티브들은 유럽의 후기 고딕양식에 속하지만 구성은 인디언 예술을 생각해 한다.

4. 외부

카폴라를 등지고 있는 성당외부는 고딕양식의 구조이지만 화려하기도 하고 때때로 격렬하기도 한 장식 즉 마누엘 양식의 독특함이 잘 드러나



수도원 경내 회랑

있다.

4-1. 정문

성당 앞들을 향해 남쪽으로 열려 있는 정문은 Joao de Castilho의 작품이다. 정문은 고딕양식 기둥과 Diogo de Castilho의 작품으로 나무랄데 없이 훌륭한 벽감사이로 마누엘 양식과 르네상스식의 모티브로 세공한 반원형 아치의 아키텐트 셋으로 되어 있다. 화려한 플랑브와이양 양식의 단집아래 한 가운데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조각이 있으며 정문 맨 윗쪽에는 주랑이 있다. 두 부벽위에 세워져 보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느낌을 주는 합각의 위쪽에는 장식줄무늬로 세공을 한 궁륭형 단집이 있다.

4-2. 남쪽 정면

성당의 옆쪽으로 D.Joao 3세 수도원 경내 회랑을 지을 당시 남쪽 정면의 일부분을 없앴다.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두꺼운 부벽이 있고 부벽의 뾰족탑은 지붕위로 많이 올라와 있다. 맨 위에는 상징적 왕위처럼 천체의 꽃모양 장식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왕관 장식이 건물 전체둘레를 꾸미고 있다. 이것은 수도회와 기사단의 융호하에서 이 건물이 건립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4-3. 서쪽 정면

서쪽 정면 전체는 창문의 외부 배치가 잘 표현된 화려한 조화라고 할 수 있다. 남쪽 정면의 장식보다 훨씬 뚜렷하고 북쪽 정면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서쪽 정면은 아주 힘있고 격렬하게 장식되어 있다. 물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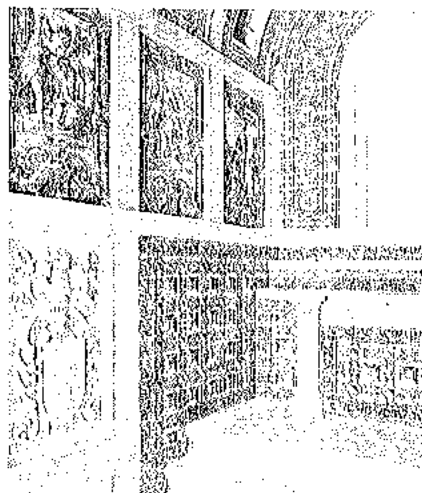
항해용 부표, 닻줄, 매듭과 고리가 마치 환경의 불안정과 영웅적 행위의 영원함을 묘사하는 것처럼 번갈아 가며 나타나 있다. 모든 마누엘 양식의 예술에서 가장 과장되게 표현된 자연주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맨 아래는 기하학적 줄무늬로, 가운데는 둥글게, 위쪽은 거대한 나무뿌리가 비쭉 올라와 있는 두 개의 장중한 교대로 둘러싸여 있는 유명한 창은 건축에서 가장 놀라운 창작품으로 칠창살 주위에는 꽃장식과 산호로 배열했고 맨 밑은 거대한 뿌리를 받치고 있는 사람의 얼굴로 마무리져있다. 밧줄 모양의 쇠시리, 낚시 부표와 닻줄, 백합꽃 한 줄기가 수평적으로 정면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 위로는 가장자리가 도드라지고 가운데는 우묵한 원화창이 있으며 나선형 동아줄과 천체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한 쇠시리로 수평 벽을 처리하였다. 창문의 앞에 서면 눈에 두드러지게 돌출한 측면의 교대에서 확연한 장식을 볼 수 있다. 왼쪽에는 마누엘 왕의 좌우명을 지닌 두 천사의 입상과 황금양털 기사단(1429년에 필립 르 봉(Philippe le Bon)이 만든 기사단을 상징하는 사슬이 있고 오른쪽에는 포르투갈의 왕들을 나타내는 입상들이 있다. 14세기 유행의 쇠사슬 갑옷을 입은 무사 D.Dinis왕이 그의 문장속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고 로마풍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날개달린 철모를 쓴 D.Manuel왕이 그의 문장속에 혼천의를 지니고 있다. 역시 로마풍의 옷을 입고 날개달린 철모를 쓴 D.Joao 2세가 갑옷과 문장에 새로운 무기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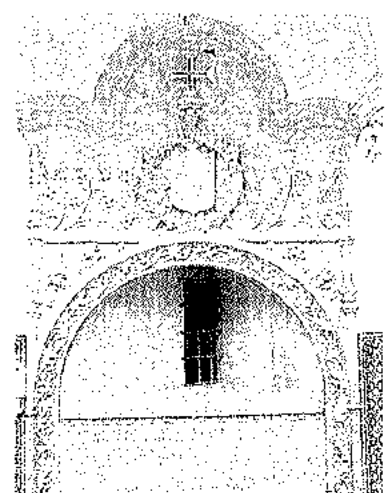
또한 여기서는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만든 자르티에르 기사단의 수도회의 비를 볼 수 있다. 영국의 7대 헨리왕이 죽고 그의 아들 8대 헨리왕이 1509년 6월 24일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그는 포르투갈의 마누엘 왕의 부인이었던 마리아 왕비의 여동생 카타리나 공주와 결혼을 하였다. 마누엘 왕과 헨리왕 사이에 이어졌던 우정과 사랑의 표시로 1511년 헨리왕이 자르티에르(Jarretiere) 수도회를 마누엘 왕에게 넘겨주었다.



필립 제의실



포토카리로의 작은 제단



개인적 무덤

5. 경내 회랑

5-1. 묘지의 수도원 경내 회랑

수도원에서 첫번째로 건축된 회랑으로 1420년 D.Henrique 왕자가 세운 것이다. 그때까지 수도원의 조수사들은 성 입구 암자나 성당의 앞뜰 지하에 묻혔기 때문에 수사들과 수도회의 기사들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했다. 이렇게 해서 묘지의 수도원 앞뜰 회랑은 성당 기사단 본부의 우두머리들과 현재 토마르시의 Santa maria dos Olivais 성당에 있는 그리스도 수도회의 우두머리들의 전통적 합사묘가 되었다. 직사각형 설계는 Femao Goncalves가 했다. 이 회랑은 궁륭형 주랑으로 각각의 면은 4개의 리브를 가진 첨두형 아치가 5개씩 있다. 첨두형 아치는 매끈한 이중기둥으로 시작되어 식물 모티브를 가진 기둥머리로 마무리 지어졌다. 이 주랑은 묘석으로 바닥을 깔았고 대부분의 묘석에는 아직도 숫자가 남아 있다. 측면은 흰도기 벽돌색과 청색의 돌을 사용하여 동양적인 디자인으로 장식했다. 회랑의 중앙에는 흰색과 청색줄의 도기벽돌로 페르시아식으로 디자인한 화단이 있고 북동쪽 끝에는 우물이 있는데 이곳의 물은 성수로 공급되어 사용되었다.

마누엘(D.Manuel) 1세와 스페인의 필립(Filipe) 2세가 통치할 당시 행해졌던 보충공사로 벽무덤을 만들고 인접공간을 개조하였다. 즉 구 제의실(Saristia Velha), 필립제의실(Sacristia Filipina), Portocarreiro의 작은 제단(Capela dos

Portocarreiros)은 도기벽돌로 장식되어 있으며 카롤라로 들어갈 수 있게 남쪽이 뚫려 있는 복도 등이 그것이다.

5-1-1. 구 제의실

D.Henrique 왕자 때의 썸 조르지(St Gorge)작은 제단이 있던 곳이다. 천장은 궁륭형이며 꼭대기는 둥근 돌 하나로 막아놓았는데 이 돌에는 Almeida가문의 문장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서쪽벽 위 아치 한 가운데 분묘형 작은굴 밑에는 1426년 이 작은 제단을 기증했고 왕자의 양부모였던 Almeida의 Vasco Goncalves와 그의 부인 Mecia Lourenco의 고딕양식의 무덤이 있다.

5-1-2. 필립 제의실(Sacristia Filipina)

바로크식 직사각형 공간으로 서쪽이 뚫려 있으며 짧은 가로면에 묘석과 기둥이 넷있고 각각의 기둥에는 인두주가 있다. 긴 세로면에는 가는 벽기둥들 위로 견고한 아치가 두개 있고 제의실은 반원형 궁륭으로 되어 있다.

입구에는 1620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진 도리아식 반원주(반쪽이 벽속에 박힌 원주)로 받쳐진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현판문이 있다.

5-1-3. Portocarreiro의 작은 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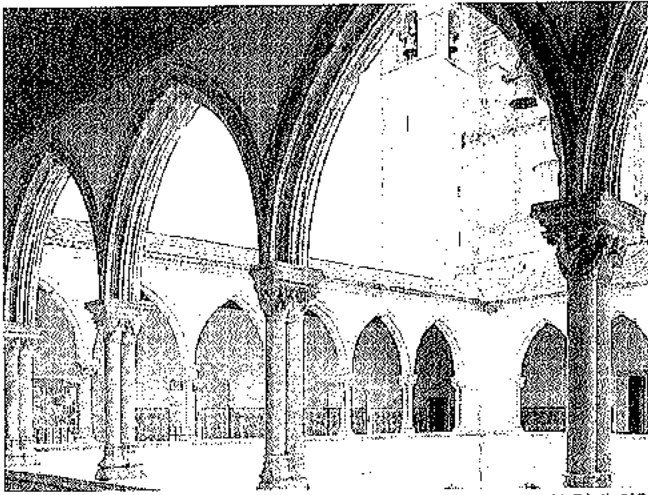
이 제단은 북서쪽 끝에 있으며 그리스도 수도회의 교구감독관이었던 Antonio Portocarreiro가 자신과 그의 후계자들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1626년 건립했다. 내부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17세기 도기벽돌로 장식을 했고

미장닐로 치장한 반원형 궁륭이 있다. 도기벽돌 장식으로 그리스도 생애의 여러가지 장면을 묘사해 놓았다. 제단 오른쪽 벽에는 건립자의 묘석이 있다.

5-1-4. 개인적 무덤

이 묘지의 수도원 경내 회랑에는 16세기말의 수도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인적 무덤이 몇몇 보존되어 있다. 남쪽벽에는 옛날에 미이라를 볼 수 있게 놓아 두었던 첫번째 무덤이 삼각형 합각으로 장식한 르네상스식 작은 공간위에 있다. 삼각형 합각에는 1584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으며 아치와 장식벽사이 한가운데 Faria가문의 문장을 부조로 새겨놓은 계란형태의 돌이 있다. 이것은 종교재판소의 판사였고 로마에서 D. Joao 3세의 외교관이었던 Baltazar de Faria의 무덤이다. 남쪽벽을 따라 카롤라로 가는 복도를 지나면 1502년 D. Manuel 1세 왕의 로마대사였고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와 형제였던 D. Diogo da Gamas의 무덤이 있다. 1523년의 지하묘지로 Simao Gomas가 필립 제의실을 꾸민 후인 1594년 복원공사를 했다. 이 무덤은 조각한 잎사귀로 장식한 소벽으로 테두리를 두른, 움푹 들어간 아치 밑에 있다. 양쪽에는 가느다랗고 작은 두 기둥이 독특한 마누엘 양식으로 솜씨 좋게 제작된 수평줄 하나를 받치고 있다. 이 수평줄 장식 위쪽 한 가운데 부정확하게 묘사된 Gamas가문의 대형 프랑스식 문장이 당시의 양식으로 꾸며진 원 속에 들어 있다.

원의 위에는 원과 거의 같은 크기의



세정의 수도원 경내 회랑



산타 바르바라 수도원 경내 회랑

십자가가 있으며 전체는 3요으로 나누어진 꽃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꽃모양 장식의 두 측면이 짧은 것으로 보아 여기 있는 무덤은 만 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져 왔다고 간주된다. Portocarreiro의 작은 제단과 펠립 제의실 사이 서쪽에는 종교재판소의 판사이면서 그리스도 수도회의 기사였던 Pedro Alvares Seco의 무덤이 있다. 1599라는 년도가 새겨진 바로크식 작은 기도실 속에 있는 무덤은 조그만 아치로 되어 있다.

5-2. 세정의 수도원 경내 회랑

D. Henrique 왕자가 개량할 때 지어진 것으로 정방형 뜰에서 수사들의 옷을 세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회랑은 카롤라가 있는 언덕 아래에 건립되어 있어 묘지의 수도원 경내 회랑과 통할 수 있도록 이층으로 올려야만 했다. 아래층은 윗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8각기둥 위에 고딕식 첨두장식으로 처리를 했고 윗층에는 첨두형 아치가 이중기둥위에 얹혀 있다. 이중기둥의 머리는 식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지붕이 없는 가운데 공간에는 오늘날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큰 수반 2개가 있고 한 가운데에는 빗물을 받아놓는 저수조가 하나 있다. 기하학적 모티브를 가진 흰색과 청색 도기벽돌의 미장넬로 장식을 한 윗층은 18세기까지 수도사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문학단체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 회랑의 동쪽은 D. Henrique 왕자가 옛날에 사용하였던 “카타리나 궁전(Paços de D.

Catarina)”과 인접해 있고 남쪽에는 딸로 가꾼 테라스가 있으며 서쪽은 묘지의 수도원 경내 회랑을 향하고 있고 북쪽은 현재 “제 3지역 군 병원” 소속이 된 곳과 면해 있다.

아래층에는 19세기까지 수도원장의 저택으로 사용되던 성 속에 있는 “알메디나(Almedina)문”과 통하는 옛날 도로가 있다. 서쪽벽에서 기하학적 모티브를 가진 화장벽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5-3. 산타 바르바라 수도원 경내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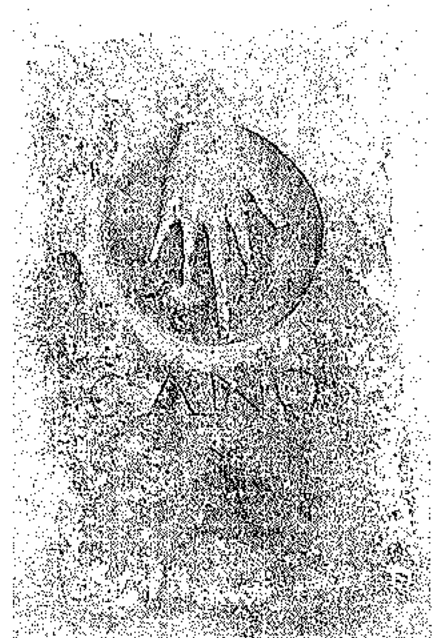
이 회랑에서는 16세기 후반의 간결한 건축술을 볼 수 있다. 기둥 사이의 공간이 셋이며 두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윗층의 북쪽이 숙소의 수도원 경내 회랑의 남쪽과 연결되어 합쳐져 있다. 이 회랑 윗층에는 고전적 기둥 10주가 지지하고 있던 지붕이 있었으나 마누엘 양식의 창이 있는 내진 정면의 전망을 위해 19세기 중엽 페르난도(Fernando)2세의 명령으로 제거했다.

아래층은 르네상스식의 기둥머리가 있으며 매우 독창적인 12주의 굽은 기둥과 같은 양식으로 장식된 까치발위에 얹혀있는 궁륭의 리브 등 내부의 모든 것과 비교해 볼 때 규모가 축소된 느낌이 든다. 회랑의 크기는 15m×14m로 북서쪽 방향이 더 길다. 바닥은 포석을 깔아 포장을 했고 회랑 한 가운데 저수조가 있다. 북쪽회랑 벽속에 직사각형의 조그만 건축용 석재가 박혀 있으며 이 둘에는 CANO라는 글자와 함께 사람의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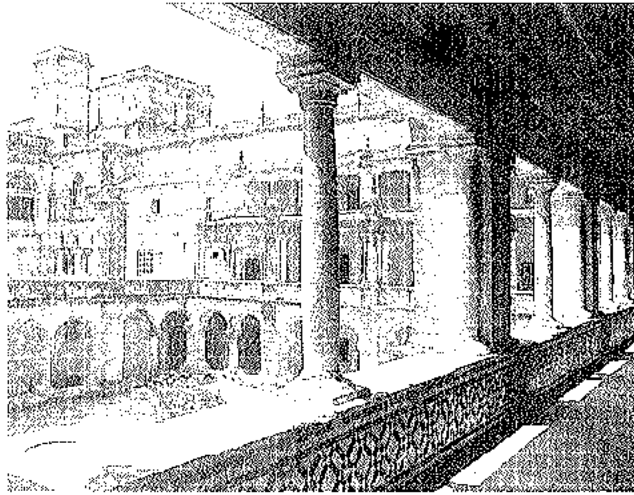
모양이 새겨져 있다. CANO는 숙소의 수도원 경내 회랑에서부터 파이프가 이어져 있으며 D. Joao 3세의 수도원 경내 회랑 분수에 물을 공급한다는 표시이다.

5-4. 숙소의 수도원 경내 회랑

1541~1542년 때의 것으로 수도원을 방문하는 귀족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어졌다. 각 회랑의 길이가 29m씩 모두 같은 길이로 두 층으로 되었으며 북쪽에는 보조층이 한층 더 있다. 아래층에는 혼합식(코린트식과 이오니아식을 합친 것)의 기둥이 강한 버팀벽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이중 아치를 받치고 있다. 남동쪽 꼭대기에 빗물을 받아 D. Joao 3세의 수도원 경내 회랑의 분수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조가



사람의 손모양



숙소의 수도원 경내 회랑

있다. 회랑 가운데 공간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포석이 깔린 안뜰에는 높고도 둥근 화단이 다섯개 있다. 위층은 고전적 열주(줄지어 늘어선 기둥 전체)로 된 베란다를 이루고 있으며 이 열주는 대륜을 받치고 있다. 베란다 기둥의 기둥머리의 위쪽 부분에는 샘틀이 있고 샘틀 안쪽벽에는 1543년이라는 연도와 AMEN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지붕이 나무로 된 이 베란다는 숙소(북쪽과 동쪽)와 구고문서관(서쪽)보다 먼저 있었다. 서쪽에는 계단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동쪽의 공동침실 복도의 대기실인 윗층 베란다 입구이며 다른 하나는 회랑 아래층으로 가는 통로이다.

5-5. D. Joao 3세의 수도원 경내 회랑

D. Joao 3세는 성당과 수도사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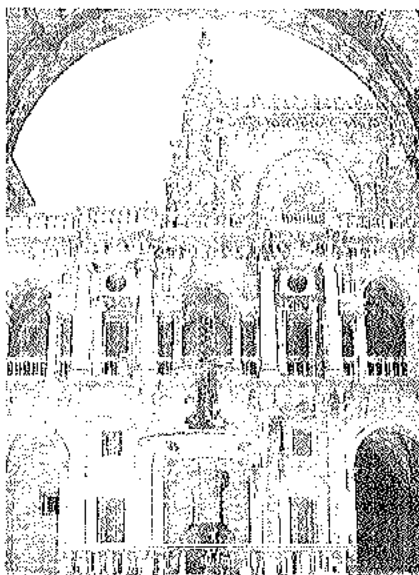
공동침실 사이에 종교 행사때 쓸 수 있는 훌륭한 통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1533년경 Joao de Castilho에게 이미 건립된 건물 전체의 남쪽에 수도원 경내회랑을 짓기 위한 설계를 맡겼다. 르네상스 초기양식의 설계도에서 후일 Diogo de Torrelva가 제시한 좀더 나은 설계도에 따라 건립한 4군데 입구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수도원 분의 첫번째 입구는 북동쪽 입구다. 남동쪽 입구는 오늘날 황폐한 채 남아있는 구 참사회회의실 아래층과 이어져있고 남서쪽 입구는 식당옆에 있는 강단으로 향하고 있으며, 북서쪽 입구는 식당으로 통해 있고 공동 침실 복도로 나가는 계단과 이어져 있다.

1540년 D. Joao 3세는 Castilho의 설계에 따른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14년뒤 Diogo de Torrelva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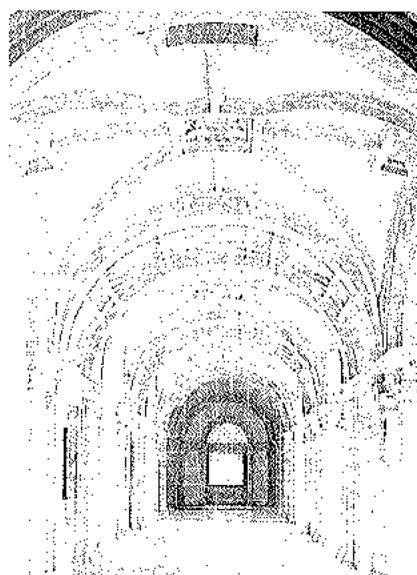
새로운 설계에 따른 공사를 부탁했다. 공사가 시작된 때는 이미 카타리나(D. Catarina)왕비가 섭정을 할 때였다. 먼저 가장 시급했던 통로 즉 공동 침실에서 성당과 내진으로 가는 회랑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통로는 성당의 측면과 인접해 있고 구 제의실의 두 창문을 가렸다. 이 모든 새로운 설계는 앞에서 언급한 미누엘 양식의 과다한 장식을 배척하는 고전주의로의 복귀였다. 1564년 Torralva가 사망했을 때 프란시스코 로페스(Francisco Lopes)와 건축가 필립 테르치오(Filipe Tercio)가 그 뒤를 이었으며 그 때는 이미 필립(Philippe)2세의 치하로 바뀌었던 때였다. 공사의 마무리는 페드로 페르난데스 데 토레스(Pedro Fernandes de Torres)가 했으며 회랑의 아래층 안뜰 한 가운데 있는 분수에 십자가 모양으로 서명을 했다. 아래층의 북서쪽 코너에 있는 세면대 역시 테르치오(Tercio)의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합각벽에는 1593년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것은 건축가가 죽기 4년전의 연도를 나타내고 있다.

5-6. 수도원 경내 주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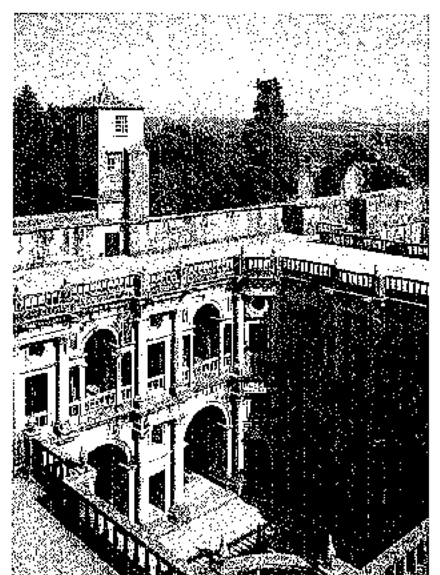
“필립의 수도원 경내 회랑(Claustro dos Filipes)” 또는 “주회랑(Claustro Principa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두 층으로 되어 있고 벽이 기하학적으로 된 궁륭형 회랑이다. 테라스로 된 지붕은 밀랍의 테라스라고 불리었다. 수도회가 수도원 부근에 소유하고 있던



D. Joao 3세의 수도원 경내 회랑



수도원 경내 회랑



수도원 경내 주회랑

벌통의 봉방(벌집의 구멍)을 말리기 위해 이 테라스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층에는 4개의 주랑이 있고 각 주랑에는 토스카나식의 굽은 기둥위에 얹힌 반원형 대형 아치가 셋 있다. 기둥머리는 고전적 엔타블처(기둥 상부에 걸친 수평부로 위로부터 Comice, Frieze, Architrave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짐)로 마무리져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에는 문이 있으며 문 위에는 창이 나 있다. 윗층에도 4개의 주랑이 있고 아래층과 같은 수의 아치가 있다. 그러나 기둥은 이오니아식이며 기둥사이의 간격도 윗층보다 더 넓다. 밀랍의 테라스의 남서쪽 코너와 이어지는 계단 입구에 있는 문의 상인방에는 IHVS라고 새겨진 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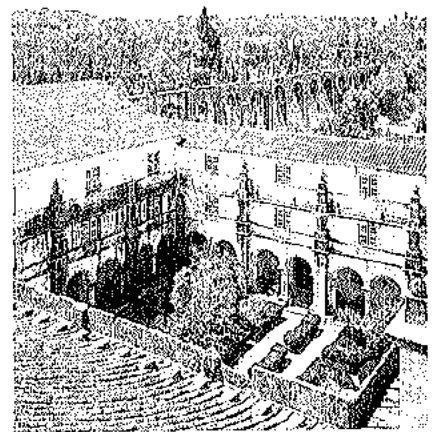
5-7. 빵의 수도원 경내 회랑

빵의 수도원 경내 회랑이라는 이름은 수도원의 입구에서 꿀을 넣어 만든 옥수수 빵이나 조그만 빵조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이 회랑의 서쪽 모퉁이에 있는 부속 건물 중의 하나에는 거대한 빵굽는 화덕이 있고 여기서 수도원 자체에 필요한 빵과 보시에 필요한 빵을 구워 수도원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북쪽 문으로 오는 극빈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9.5m×32.2m로 직사각형인 이 회랑은 Joao de Castilho가 설계했다. 1528년 건축이 시작되어 15년 뒤에 끝이

났다. 주랑과 베란다가 있는 두 층으로 되어 있다. 남쪽 일층에는 부엌과 세빌리아의 점토로 만든 33개의 항아리가 있는 기름저장 지하창고가 있다. 동쪽에는 식량 창고의 책임자들이 살던 부속건물이 있으며 서쪽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빵을 굽던 거대한 화덕과 나무를 저장했던 창고가 있다. 2층에는 높은 난간이 있는 베란다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있다. 2층에는 “강의실”과 “수도원장의 집”이 있다. 외부에서 보면 넓은 박공 때문에 금방 구별되는 강의실의 합각벽은 르네상스 양식의 돌을 세김으로 꼭대기가 장식되어 있다.

5-8. 까마귀의 수도원 경내 회랑

이 회랑은 빵의 수도원 경내 회랑 남쪽에 위치하며 정방형으로 반원형 아치가 있는 주랑이 둘 있다. 현재 포르투갈 선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아래층 남쪽 주랑은 직사각형으로 천장은 궁륭형이다. 수도원의 옛날 도서관이 이 위층에 있었다. 서쪽 주랑의 까치발 위에는 1546이라는 연도가 있다. 이 주랑은 궁륭형 공간으로 지하창고와 저장창고가 있으며 수사들의 주택과 통하는 복도가 있다. 북쪽 주랑의 일층에는 부엌과 부속실이 있고 이층에는 수사들의 독방이 있다. 동쪽 주랑의 일층에는 수도원 식당이 있으며 이층에는 공동침실의 복도가 있다. 서쪽과 남쪽면에는 한 층이 더 있다. Antonio Bemardo da Costa Cabral이 건물의 이



까마귀의 수도원 경내 회랑

부분을 개인 주택으로 만들었다.

5-9. 화장실의 수도원 경내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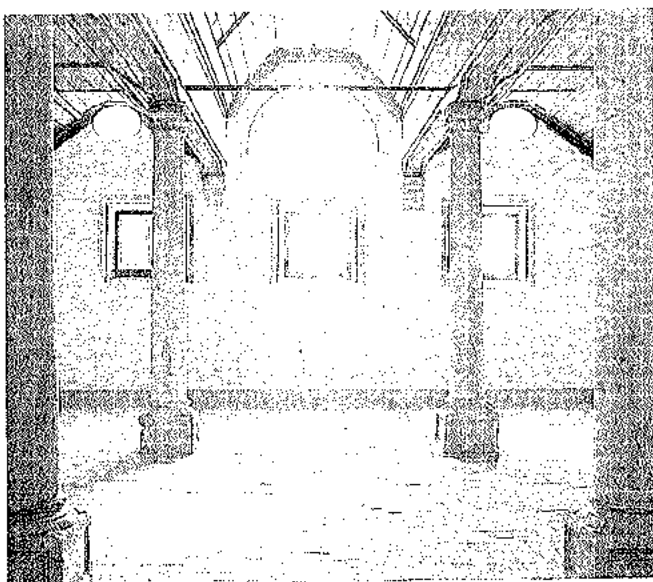
호랑가시나무의 안뜰

(호랑가시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움) 북쪽에 직사각형의 화장실의 수도원 경내 회랑이 있다. 거대한 지하 구덩이 위에 수도원의 각 층에 연결되는 위생상의 부속건물이 있다. 이곳은 수도원의 모든 건물과는 떨어져 편리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회랑의 중앙에 저수조 울타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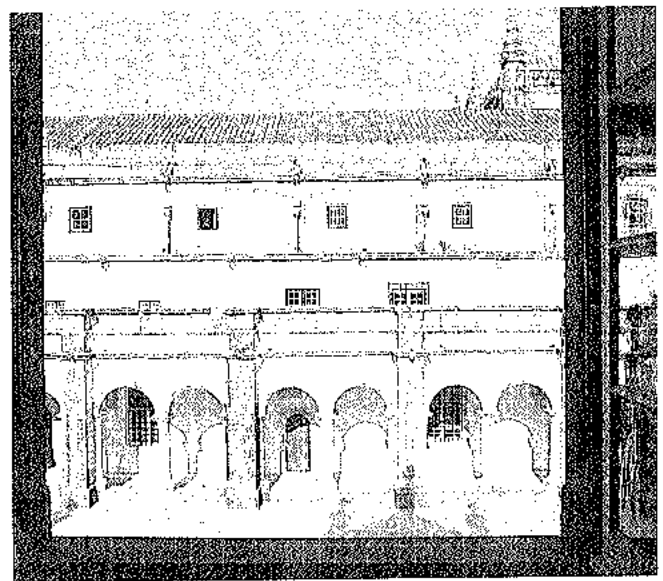
6. 기타

6-1. 수도자들 독방의 복도(공동침실의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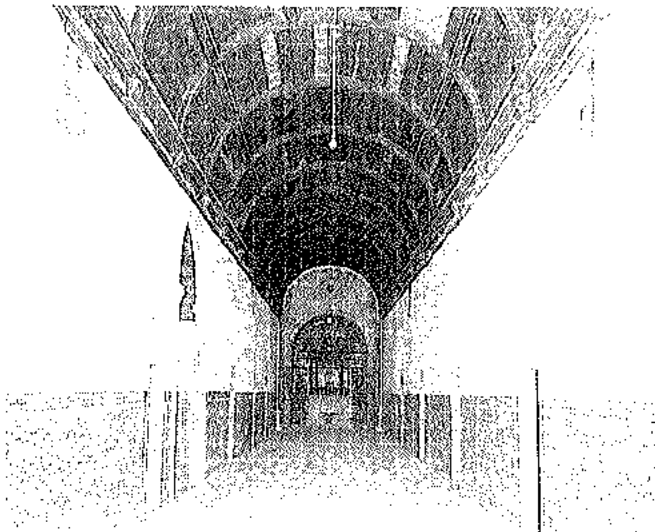
라틴형 십자가 형태로 구상되었으며 북쪽에서 남쪽 사이의 복도는 43.5m×4.2m, 서쪽에서 동쪽 사이의



빵의 수도원 경내 회랑



빵의 수도원 경내 회랑



수도자들 독방의 복도



수련의 복도

복도는 49m×4.2m로 높이는 49m이다.

복도에는 5개의 넓은 창문이 있어 밝다. 북쪽 끝에 있는 창문 가운데 기둥이 있고 기둥 윗쪽에 1541년이라는 년도가 새겨져 있다. 벽 아래쪽의 1/3을 청색과 백색의 도기벽돌로 장식한 두 복도의 천장은 딱갈나무로 미장널을 붙인 반원형 궁륭으로 되어 있다. 복도의 설계도에서 십자가형의 맨 윗부분인 “수련의 작은 제단”은 정방형으로 가운데에는 왕좌제대가 있다. 미장널을 붙인 반원형 궁륭인 천장은 저부조가 새겨진 직사각형의 오목한 판자로 되어 있다. 장식 모티프가 많고 유사점이 없는 것으로 매우 특이한 장식이다. 이 작은 제단속에 점토로 된 입상이 하나 있다.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 또는 “빌라도의 베란다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Inacia da Incamacao fecit(sic)-1654라고 서명되어 있다.

이것은 Inacia da Incamacao가 1654년 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작은 제단을 막고 있는 철분은 1927년 설치되었다. 1529년 리스본의 Antonio 수사의 개혁이후 이 복도는 수도회 수사들의 거주지역과 통하게 되었다. 전통에 따르면 이곳은 몸을 따뜻하게 하던 거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큰 벽난로와 벽에 등을 기댈 수 있는 돌로 된 작은 벤치가 있다. 남쪽 복도의 벽에 기대어 설치된 작은 세면대는 Pegoes의 수로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합각벽에는 1617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다.

6-2. 수련의 복도(대학생들의 복도)

공동침실의 동서쪽 복도 아래층에 있는 이 복도는 옛날 수련 수도사들과 1919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은 선교회의 대학생들이 사용하던 거주지로 가는 통로였다. 이 복도는 빵의 수도원 경내 회랑의 이층과

까마귀의 수도원 경내 회랑의 이층과 연결되어 있고 천장은 아주 낮으며 모서리가 둥그스름한 궁륭형이다.

6-3. 교회참사회의 구건물

수도원 성당 앞뜰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 있다. 일층은 사제들의 참사회, 이층은 기사들의 참사회를 위해 설계했으나 궁륭이 무너져 건물은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황폐한 채로 남게 되었다. 초기 르네상스식의 외부에는 ANI DNI 1545(주님의 해 1545)라고 새겨져 있고, Soeiro성인을 나타내는 고부조 인물 돌을 새김이 있는 조그만 창문이 있으며 이 창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입구의 문에는 같은 양식으로 제롬 성인을 나타내는 고부조 인물 돌을 새김이 있다. 인물 돌을 새김의 주위에는 이 성인들의 삶을 저부조로 섬세하게 묘사해 놓았으며 DEUS PROPITIUS ESTO MIHI PECOTI(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새겨 놓았다. 1540년 왕실의 위급함으로 인해 7년전 부터 중단되어 있던 건축이 재개되어 수도사들의 독방과 교회참사회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었다. 층이 차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누엘 양식 성당 남쪽을 둘러싸고 있는 계곡 부분을 파야만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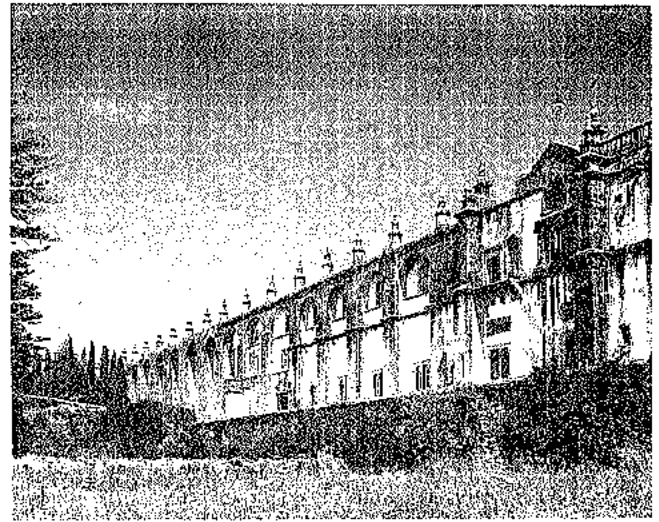
이렇게 해서 교회참사회의 건물 아래층은 Joao de Castilho가 한 르네상스식 설계와 일치하게 건립되었다. IHS(인류의 구세주)라는 명구가 적힌 서판을 받치고 있는 천사가 위에 있는 제단도 역시 Joao de



교회참사회의 구건물



수위실과 왕들의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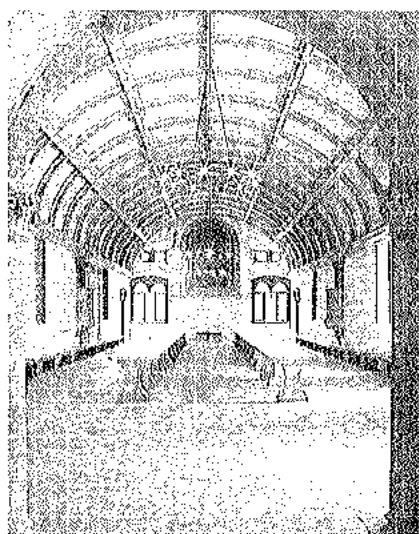
Pegoes의 고가식 수로

Castilho가 제작한 것이며 위층에서는 고딕식과 마누엘 양식이 절충된 흔적을 볼 수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흉상으로 장식을 한 직사각형의 높은 부벽이 외부로 받치고 있는 건물전체는 동쪽과 서쪽의 열린 창에 의해 채광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은 Pero de la Gorreta공사를 했다. 포르투갈의 왕으로 스페인의 펠립(Filipe)2세를 선포한 의회가 열린 곳이 참사회의 건물이거나 아니면 성당 정문 앞의 앞뜰에서였다.

6-4. 수위실과 왕들의 거실

Castilho의 첫번째 설계도에는 D.Joao 3세의 수도원 경내 회랑으로 가는 문이 있었으나 마지막에 가서는 건립되지 않았다. 기능적이고도 고상한 입구를 수도원에 설치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한 결과, 북쪽 정면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결국, 숙소의 수도원 경내 회랑과 오늘날 군병원이 자리잡고 있는 수도원의 옛날 약국자리 사이에 17세기의 수위실이 생기게 되었다. 보통 “왕들의 방”으로 알려져 있는 실은 계단과 마찬가지로 측면을 흰색과 청색의 도기벽돌로 장식한 직사각형 공간으로 방식을 놓기 위해 자리를 우묵하게 판 돌벤치가 들 있으며 미장넬을 붙인 천장은 색칠한 나무로 되어 있다. Filipe Terzi의 제자인 Diogo Marques Lucas가 설계를 한 것으로 입구와 계단을 건축할 당시 지면의 바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옛날 성벽의 유적을 이용해 북동쪽의 작은 담까지 연장하여 위층에 “기사들의 살롱”이라 불리우는 거실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내부의 천장은 미장넬로

치장을 한 나무로 되어 있고 돌출한 3개의 창문이 있어 밝다. 가장 큰 창문은 동쪽을 향한 것으로 그 합각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1600년이라는 연도가 있다. 이 “기사들의 살롱”은 “외무실 복도” 맨 끝에 위치해 있다. SALUS INFERMORUM이라는 글이 새겨진 아치로 둘러친 서쪽 창문에서부터 외무실 복도라 할 수 있다. 외무실 복도는 매끈 매끈한 16주의 기둥으로 받쳐진 넓은 배란다부터 시작되어 뒷계단에서 끝이 난다. 이 모든 지역은 현재 제 3지역 군 병원이 자리잡고 있다. 쉽게 알 수 있는 왕들의 거실은 종교 의식을 위한 장소와 숙소의 수도원 경내 회랑처럼 다른 목적을 위한 장소들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 접대의 장소다. 묘지의 수도원 경내 회랑에서 왕들의 거실로 가는 사람은 누구나 고해실 복도에 있는 세면대를 볼 수 있다. Portocarreiros의 작은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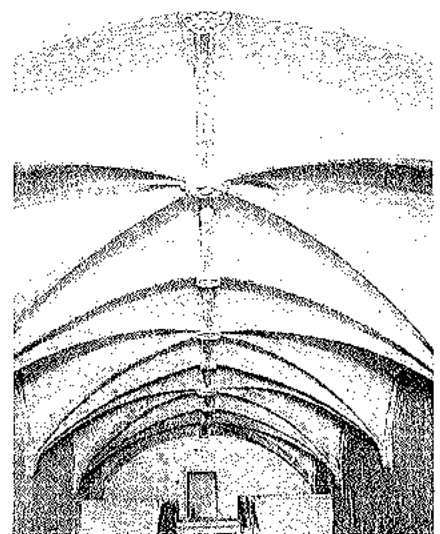


수도원 부엌과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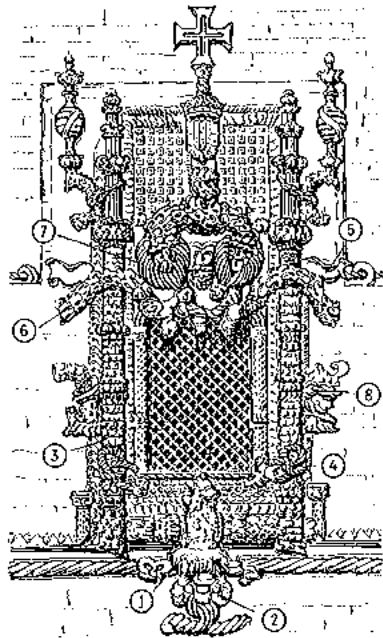
공사보다 한 해 먼저 끝난 것으로 17세기의 작품이다. 다리아본드 형의 도기벽돌로 장식했으며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정화샘의 물을 나눌 때 영적 위로가 생겨 당신의 마음속에 퍼집니다. 만일 당신의 손과 함께 마음을 씻으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은총의 격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5. Pegoes의 고가식 수로

처음에는 주요 회랑들 속에 있는 일련의 개방된 저수조에 의해 물을 공급했으나 후에는 빗물을 모으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수도원에 물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 수도원에서 포르투갈의 왕으로 선출된 스페인의 펠립 2세의 통치가 끝난 16세기 말에, 수도원 북서쪽에 있는 샘물을 도관으로 수송할 수로를 건설하여 물 공급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왕이 재정을 부담하고 Filipe Terzi의 감독하에



수도원 성당 천정



마누엘 양식 창문 그림

1593년 시작된 공사는 Pedro Fernandes Torres 감독을 거쳐 Diogo Marques Lucas의 감독하에 완성되었다. 수로는 물이 새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비늘 모양으로 기와를 연결한 도판에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수로 군데 군데에 무거운 불순물이 침전할 수 있는 물 탱크가 있다. 수로 전체를 보면 본래의 두 샘에 다른 두 샘이 합류되어 있고 지층의 기복이 심한 문제는 제일 높은 곳인 Carregueiros 계곡에 반원형의 높은 아치 58개가 들어 있는 아케이드를 세워서 해결했다. 아케이드 기둥의 최고 높이는 220m이며 이 아케이드 양 끝에는 궁륭형의 집을 두 채 지었다. 집 중앙에는 물을 경사(침전물을 제거하고 윗물을 따라 옮기는 것)시키기 위한 넓은 수조가 있다. 수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집의 북쪽 외부에는 포르투갈의 문장이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새겨져 있다. “무적의 카톨릭 왕 필립1세가 1593년에 이 수로를 건설케 하였으며 그의 두번째 아들인 가장 존엄하고 기독교적인 왕 필립이 1613년 끝내게 했다.”

6-6. 수도원 식당

DJoao 3세의 수도원 경내 회랑과 까마귀의 수도원 경내 회랑사이에 수도원 식당이 있으며 Joao de Castilho의 16세기 작품이다. 오목하게 깎은 판자를 둥글게 연결한 반원형

궁륭인 천장은 양 측면에 설교단을 만들어 미학적으로 장식을 한 내부에 독특한 느낌을 준다. 두 설교단은 말, 천사, 빨나팔, 괴수의 눈을 나타내는 르네상스식 장식띠로 둘레를 장식하고 있으며 한 설교단에는 1536년이라는 연도가 표시되어 있다. 식당의 북쪽 끝에는 구식 창고로 사용했으며, 부엌과 식당 사이에서 음식을 나르던 공간으로 사용되던 얇고막힌 공간이 있다. 대리석으로 된 식탁은 나중에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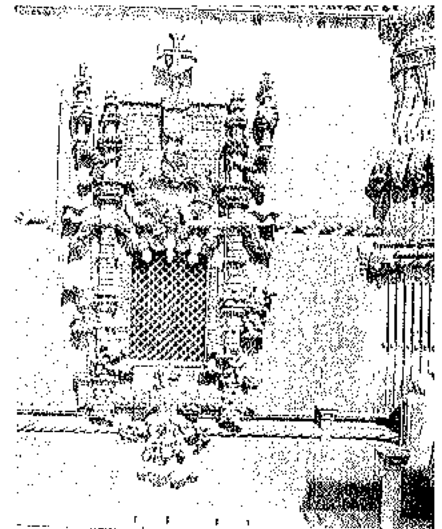
7. 맺음말

그리스도 수도원은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오랜기간 동안 건축되었고 위치가 그리 낮지 않은 곳에 성처럼 둘러싸여 있어 다른 일반 수도원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토마르(Tomar)시의 그리스도 수도원 성당은 본문에서 설명되었지만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에서 나타난 양식으로서 마누엘(Manuel)1세때 나타났기 때문에 마누엘 양식이라 불리우며 포르투갈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특이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이 발생된 배경은 그리스도의 문장을 단 범선들이 아프리카 해안을 탐험하고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제국에 도착하였을 때인 15세기초는 바다의 열정으로 그리스도 수도회가 영광의 시기를 갖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로만 치솟는 고딕양식에 항해용 닻줄을 나타내는 쇠시리가 개선편과 연결되었으며 기둥에는 나선으로 기둥이 꼬이게 함으로써 새로움과 활기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특히 창문의 장식은 마누엘 양식의 장식으로 포르투갈에서도 으뜸으로 꼽고 있다. 선장(2)의 흉상에 의해 받쳐진 코르크 떡갈나무의 뿌리(1)에서부터 장식은 닻줄 모양의 쇠시리로 된 두 개의 뿔대를 따라 계속 이어져 있으며 수 많은 식물 모티브와 바다 모티브속에서 산호(3), 닻줄(4), 베를 만들기 위한 코르크 나무(5), 해초(6), 닻줄(7), 사슬(8) 등을 구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마누엘 1세의 상징인 혼천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전통적 마누엘 양식마크나 식물



마누엘 양식 창문

모티브로 가득 장식한 까치발에서부터 나온 리브로 줄무늬가 그어져 있고 Diogo de Arruda의 후계자였던 스페인의 Joao de Castilho에 의해 세워진 정문은 스페인의 Salamanca의 금속세공 양식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성당의 카롤라(Charola : 지붕과 기둥이 둥근 원형건물)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무덤을 모델로 12세기에 건립되었는데 8개의 기둥이 두층으로 되어 있고 둥근 천정으로 덮혀 있는 8각형 건축물을 받치고 있으며 환형의 궁륭으로 된 후진주위의 회랑은 이 8각형을 외부의 16각형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Joao 3세의 수도원 경내 회랑의 경우 1557년에서 1566년 사이에 Diogo de Torralva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두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래 층의 기둥은 토스카나식이며 윗층의 기둥은 이오니아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관심을 끈다.

이와 같이 포르투갈에서 독특하게 발생된 마누엘 양식에 대해서 이 나라의 시대에 따른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더욱 깊이 다룸으로써 예술적, 건축적 본질을 찾아 정리하고 분석해 나간다면 또다른 독특한 건축양식을 창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宋『營造法式』〈大木作制度〉註解 (3)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s(3)

金度慶/(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朱南哲/(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Do-Kyoung & Joo, Nam-Chul

1-3. 飛昂

飛昂 其名有五, 一曰 機, 二曰 飛昂, 三曰 英昂, 四曰 斜角, 五曰 下昂.

造昂之制有二;

一曰 下昂, 自上一材 垂尖向下, 從料底心下取直, 其長二十三分°. 其昂身上徹屋內, 自料外 斜殺向下, 留厚二分°. 昂面中額二分°, 令顯勢圓和. 亦有於昂面上 隨額加一分°. 訛殺至兩梭者, 謂之 琴面昂. 亦有自料外 斜殺¹⁾至尖者, 其昂面 平直, 謂之 批竹昂.

凡昂安料處, 高下及遠近 皆準一跳. 若從下第一昂 自上一材下出 斜垂向下, 料口內 以華頭子 承之. 華頭子 自料口外 長九分°, 將昂勢盡處 勻分 刻作兩卷瓣, 每瓣長 四分°. 如至第二昂以上 只於料口內 出昂, 其承昂料口及昂身下 皆斜開鑿口, 令上天下小 與昂身 上銜.

凡昂上坐料 四鋪作·五鋪作 并歸平, 六鋪作以上 自五鋪作外 昂上料 并再向下二分°至五分°. 如逐跳計心造 即於昂身 開方斜口 深二分°, 兩面 各開子廕 深一分°.

若角昂 以斜長 加之, 角昂之上 別施由昂. 長同角昂 廣或加一分°至二分°. 所坐料上 安角神, 若寶藏神或寶瓶.

若昂身於屋內上出, 皆至下不搏. 若四鋪作 用挿昂 即其長斜 隨跳頭. 挿昂 又謂之 挿昂, 亦謂之 矮昂.

凡昂栓 廣四分°至五分°, 厚二分°. 若四鋪作 即於第一跳上 用之, 五鋪作至八鋪作 并於第二跳上 用之 并上徹昂背, 自一昂至三昂 只用一栓, 徹上面昂之背. 下入枋身之半或三分之一.

若屋內徹上明造 即用挑幹, 或只挑一料 或挑一材兩架 謂一枋上下皆有料也. 若不出昂而用挑幹者 即騎束緊下方昂程. 如用平棊 即白搏 安蜀柱以叉昂尾. 如當柱頭 即以草栱或丁栱 壓之.

二曰 上昂, 頭向外留六分°. 其昂頭外出, 昂身斜收向裏, 并通過柱心.

如五鋪作單抄²⁾上用者 自櫨料心出 第一跳華栱心長 二十五分°, 第二跳上昂心長 二十二分°. 其第一跳上 料口內 用鞞楔. 其平棊方 至櫨料口內 共高 五材四架. 其第一跳 重栱計心造.

如六鋪作重抄上用者 自櫨料心出, 第一跳華栱心長 二十七分°, 第二跳華栱心及上昂心共長 二十八分°. 華栱上 用連珠料, 其料口內 用鞞楔. 七鋪作·八鋪作 同. 其平棊方 至櫨料口內 共高 六材五架. 於兩跳之內 當中 施騎料栱.

如七鋪作 於重抄上 用上昂兩重者, 自櫨料心出 第一跳華栱心長 二十三分°, 第二跳華栱心長 一十五分°, 華栱上 用連珠料, 第三跳上昂心 兩重上昂 共此一跳 長 三十五分°. 其平棊方 至櫨料口內 共高 七材六架. 其騎料栱 與六鋪作同³⁾.

如八鋪作 於三抄上 用上昂兩重者, 自櫨料心出 第一跳華栱心長 二十六分°, 第二跳·第三跳 并華栱心各長 一十六分°. 於第三跳華栱上 用連珠料. 第四跳上昂心 兩重上昂 共此一跳 長 二十六分°. 其平棊方 至櫨料口內 共高 八材七架. 其騎料栱 與七鋪作 同.

凡昂之廣厚 并如材. 其下昂 施之於外跳, 或單栱 或重栱, 或偷心 或計心造. 上昂 施之裏跳之上 及平坐鋪作之內, 昂背 斜尖 皆至下料底外, 昂底 於跳頭料口內出, 其料口外 用鞞楔. 刻作三卷瓣.

凡騎料栱 宜單用, 其下跳 并偷心造. 凡鋪作 計心·偷心 并在總鋪作次序制度之內.

飛昂

飛昂의 명칭에는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 침(機), 둘째 바양(飛昂), 셋째 영양(英昂), 넷째 사각(斜角), 다섯째 하양(下昂)이다.

昂을 만드는 制度에는 두가지가 있다⁴⁾;

주) —————

1) 原文에는 '殺'로 되어 있으나 이는 '殺'의 誤記임이 분명하다.

2) 원문에는 '抄'라 되어 있으나 '抄'는 '抄'의 誤記임을 앞서 1-2항의 주3)에서 밝힌 바 있다.

3) 原文에는 7鋪作의 上昂위에 栱栱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데, 문맥상 上昂위에 栱栱을 올리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梁思成的 註釋(『營造法式註釋』卷上, p.115, 北京中國建築工業出版社)에는 原文에 이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원문에 上昂위에 栱栱을 올려놓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4) 飛昂에는 下昂과 上昂의 두 종류가 있으며, 본 <飛昂>條에서는 이 두 종류의 飛昂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 下昂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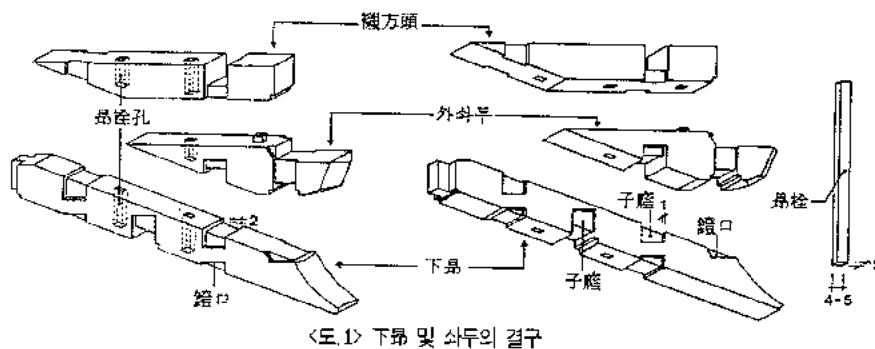
下昂은 하나의 부재가 위로부터 아래로 곧장 뻗어내려 있는 것으로 材 중심선으로부터 돌출한 직선거리가 23분이다⁶⁾. 昂身의 윗쪽(뒷쪽)은 건물 내부로 뚫통된다. 昂은 材 바깥면에서부터 아래로 경사지게 깎아내는데 그 끝부분은 두께 2분을 남긴다. 昂面의 가운데 부분은 2분을 오목하게 하는데, 그 오목한

모습은 부드럽게 한다. 또한 昂面의 상부 오목한 부분에 1분의 높이를 더하고, 이 부분을 양측으로 둥글게 깎아낸(誼殺) 것이 있는데, 이를 頰面⁷⁾이라 한다. 또한 材 바깥면에서부터 下昂의 끝부분까지 경사지게 깎아내고 그 昂面을 평평하게 한 것이 있는데, 이를 批竹昂이라 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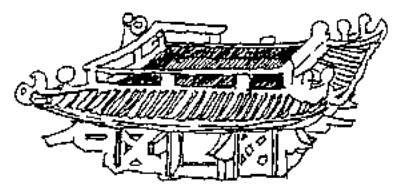
昂에 材를 얹는 위치는 그 수직, 수평거리를 모두 1출목에 따르도록 한다. 가장 아랫 단에 위치한 昂은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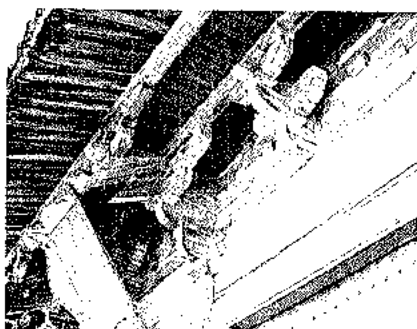
- 5) 下昂은 기다란 角材를 시가래와 평행하게 栱包와 함께 결구하여 그 外端을 외부로 돌출시켜 처마를 받게 하고, 內端은 지붕구조 속에 넣어 지붕의 구조가 下昂의 內端을 누르도록 하여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부의 하중을 받도록 한 부재이다. 下昂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栱包構造에서는 材의 깊이를 깊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 出山數를 많게 하여야 하므로 栱包의 段數가 많아 栱包가 높게 된다. 따라서 栱包의 段數, 즉 栱包의 높이를 높게 하지 않으면서 처마를 깊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下昂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下昂구조는 일반적으로 외출목에 사용한다. 下昂을 사용한 4鋪作에서 8鋪作까지의 각 鋪作에 대해서는 뒤의 <總鋪作次序> 항목에 도면과 그려 놓도록 할 예정이다(<도1, 9> 및 <사진1, 3, 4, 5, 7> 참조).
 - 下昂의 발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중국 東漢시대에는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漢賦에 이미 '昂', '櫨'(昂의 다른 명칭) 등의 단어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본 『營造法式』 권1 <總釋>조에서는 何晏의 『景福殿賦』를 인용하여 "正昂飛櫨", "櫨櫨角落以相承"(방정필자)이라고 기록하고, 『文選』 李善의注를 인용하여 "飛昂之形類鳥之飛, 今人名昂爲阿, 栱曰櫨昂, 櫨創昂也"(방정필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飛昂이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에는 주너의 보충재로 사용되던 것이 隨唐대에 응용되면서 발전하게 되고 佛光大殿과 같은 下昂구조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唐宋 이후에는 昂의 기능이 점차 퇴화하여 장식적인 기능에 치우침으로써 昂 자체의 구조적 기능은 퇴화되었다(中國科學院自然科學研究所 主編, 『中國古代建築史』, p.68, 北京科學出版社, 1990).
 -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건축에서 下昂구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부여박물관 소장 百濟銅塔片<도2>과 서울 전성우 소장 新羅銅佛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삼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古代日本의 法隆寺金堂<도3>이나 같은 法隆寺에 소장되어 있는 仁壽寺<사진2, 도4>에 下昂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下昂구조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이후의 예로 실제적인 건물은 아니지만 고려시대에 그려진 불화(日本 西福寺所藏 觀經變分變相圖)에도 下昂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下昂구조는 백제 이래 고려시대까지 계속된 전통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下昂이 실제 건물에 사용된 현존하는 예로는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花嚴寺(建國後1605년 중창)<도5>이 유일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下昂을 사용하고 있는 실제 건물의 유례가 거의 없는 점에 대해서 朴大儼은 無下昂式 栱包가 발달하면서 점차 下昂을 활발히 사용하지 않다가 假昂의 도입에 의해 下昂의 사용이 결정적으로 소멸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박대은, 『下昂에 관한 研究』, p.94,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12).
 - 6) 下昂을 사용한 공포에서 가장 바깥 출목의 중심선에서 下昂의 昂頭가 돌출한 직선거리를 규정한 것이다(<도6> 참조).
 - 7) 頰面은 下昂의 가운데 부분을 미세하게 위로 돌출시켜 凸형으로 만든 것으로, 그 형태가 서문고의 표면과 같아서 '頰面'이라 하는데 명칭이 붙은 것이다.
 - 8) 下昂은 昂頭, 昂身, 昂尾로 구성된다. 昂頭는 昂이 외부로 돌출하는 머리부분으로 昂尖이라고도 하며, 淸代에는 '昂嘴'라고 하였다. 昂身은 昂의 몸체이다. 昂尾는 昂이 주심선상을 지나 내부로 돌출하게 되는 昂의 후미로 천장이 가설되지 않아 노출되는 경우에는 '挑昂'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 여기에서의 내용은 昂尖을 가공하는 방법과 그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본 『營造法式』에서는 下昂을 昂尖의 가공형식에 따라 頰面昂과 批竹昂으로 구분하고 있다(<도6, 7>). 이 두가지 형식 외에도 宋代에는 양점을 직선형으로 하고, 양 옆으로 경사진 곡선으로 깎아낸 형식도 있다. 이러한 형식을 頰面昂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梁思成, 『營造法式』 卷1, p.109, 北京中華書局, 1983)<도8, 사진3, 5>.



<도 1> 下昂 및 쇄두의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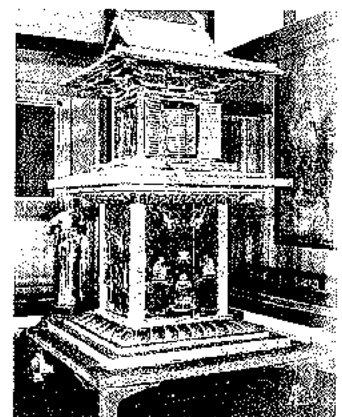
<도 2> 부여박물관 소장 百濟銅塔片
(출처: 朱南哲, 『韓國建築意匠』, p.70)



<사진 1> 西省五臺 佛光寺大殿 栱包



<사진 2> 山西太原 晉祠戲殿 전면 주간포



<사진 3> 日本 法隆寺 所藏 玉虫厨子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의 부재가 경사지게 돌출하여 뻗어 내리도록 하는데, 枋口안에서 華頭子⁹⁾로 하여금 이를 받도록 한다. 華頭子は 枋口밖으로 돌출한 길이가 9분이며, 華頭子가 昂과 만나는 곳까지의 길이를 2등분하여 兩卷瓣을 세기는데, 瓣의 길이를 4분¹⁰⁾으로 한다. 아래에서 두번째 단 이상에 위치한 昂은 반드시 枋口안에서 돌출하며, 그 昂을 받는 枋口와 昂身의 아랫면에 모두 경사지게 鎧口¹¹⁾를 파내는데, 위는 크고 아래는 작게 하여서 昂身과 더불어 서로 맞물리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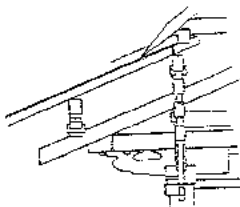
昂위에 枋을 놓는 경우 4鋪作과 5鋪作에서는 枋의

위치를 동일한 수평선상에 놓고, 6鋪作 이상에서는 5鋪作 바깥의 昂위에 놓인 모든 枋을 2~5분씩 점차 낮추어 놓는다¹²⁾. 해당 출목선상이 斗心造인 경우에는 昂身에 方形的 경사진 홈(方斜口)을 파는데 그 깊이는 2분으로 하고, 양면에는 각각 깊이 1분의 了腹¹³⁾을 판다¹⁴⁾.

角昂¹⁵⁾은 下昂의 길이에 斜長을 더하고, 角昂위에 별도로 由昂¹⁶⁾을 설치한다. 由昂의 길이는 角昂과 같으며, 높이(廣)는 1~2분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由昂 위에 枋을 놓고 이 위에 角神¹⁷⁾을 놓는데, 이 角神은 寶藏神이나 寶瓶으로 한다.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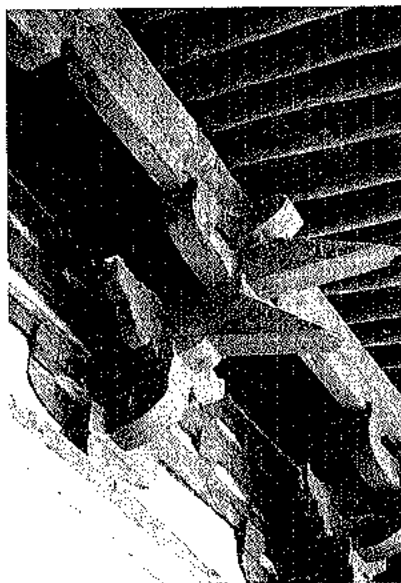
- 9) 華頭子: 下昂을 사용한 栱包에 있어서 下昂부재 아래에 栱을 사용하는 경우 栱의 外端을 下昂의 경사도에 맞추어 斜切함으로써 下昂 아래의 소로 밖에서 下昂을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兩卷瓣으로 장식한다<도6>.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下昂을 사용한 유일한 건축물인 완주 花嚴寺極樂殿의 공포에서는 중심포와 주간포 모두 제3단의 살미 위에 下昂을 올려 놓았는데 下昂을 받는 제3단의 살미 외단은 그 상변을 下昂의 아랫면에 맞추어 斜切하고 그 아랫면에 초각을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營造法式』과 같은 華頭子의 구성을 하고 있다<도5>. 또한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살미의 外端이 仰舌形으로 된 경우 仰舌가 시작되는 부분의 아랫면에 약간의 초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예: 완주 화암사극락전 제1,2단 살미<도5>, 鳳序寺大雄殿<사진6>, 瑞山 開心寺大雄殿, 慶州 神廟寺祖師堂 등). 朴大鵬은 이러한 초각을 下昂의 華頭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隱山華頭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朴大鵬, 『下昂에 관한 研究』, p.41, 고려대학교사학위논문, 1987.12).
- 10) 枋口밖에서부터 下昂과 만나는 곳까지의 華頭子의 길이는 9분이며 그 半이면 4.5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原文에서 每 瓣의 길이를 4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도6> 참조).
- 11) 소로위에 昂을 올려 놓거나 昂위에 소로를 놓는 경우에 昂의 상면이나 하면의 경사면이 소로와 견실하게 결구되도록 하기 위해 소로와 昂에 파는 경사진 형식의 홈을 말한다<도1>.
- 12) 下昂위에 소로를 놓을 때, 6鋪作 이상에서는 2개 이상의 下昂을 사용하게 되어 출목수와 그 거리에 따라 소로의 높이를 균등하게 맞출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출목 이상에 위치한 소로는 그 높이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같이 下昂위에 올려놓는 소로의 높이에 대한 조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면은 뒤의 <總鋪作次序> 항목에 개제하도록 하겠다.
- 13) 下昂을 瓜子枋, 慢機枋과 견실하게 결구하기 위하여 下昂의 昂身에 홈을 파는 것을 말한다(1-2항의 주8) 및 본 항의 <도1> 참조).
- 14) 이와 같이 下昂을 다른 부재와 결구시키기 위한 홈에 대해서는 <도1>을 참조.
- 15) 공포에서 45°방향으로 사용된 下昂을 말한다. 45°로 사용된 부재가 栱인 경우에는 角栱이라 한다(1-2항의 주43), 주44) 및 본 항의 <사진7> 참조).
- 16) 공포에서 45°방향으로 下昂을 사용하는 경우, 맨 위의 下昂과 角梁 사이에 下昂과 같은 모양의 부재를 사용하는데 이를 由昂이라 한다(1-2항의 <도16> 및 본 항의 <사진7> 참조). 枋心包나 枋脚包의 경우에는 下昂 위에 쇠두를 사용하는데, 공포에서 由昂이 사용되는 위치는 중심포, 주간포에서 쇠두가 사용되는 위치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由昂이 쇠두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고, 由昂이 下昂과 동일한 구조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梁思成, 『營造法式』, p.109, 北京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 또한 由昂의 기능에 대해 “由昂은 쇠두가 지니는 주요한 구조적 기능을 대신한다. 건물 기둥부분은 상부의 하중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처마가 비교적 많이 돌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枋栱의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由昂을 사용함으로써 포작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1출목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여 돌출부분의 지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 경우도 있다(徐伯安, 郭慶輝, 『宋<營造法式>述語釋義』, <建築史論文集> 第六輯, p.31, 北京清華大學出版社, 1984).
- 17) 공포에서 下昂을 사용하는 경우에 下昂위에 由昂을 설치하여 橫櫓方과 角梁(추녀)를 받도록 한다. 이 때 由昂 위에 하나의 枋을 놓고 이 위에 초각을 한 부재를 놓아 角梁을 받도록 하는데, 이 조각한 부재를 角神이라 한다(1-2항의 <도16> 및 본 항의 <사진7> 참조). 角神에는 寶藏神과 寶瓶을 조각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목조건축에서는 江華 佛燈寺大雄殿 공포에서와 같이 限大위에 각종의 조각물을 설치하여 추녀를 받도록 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角神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角神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사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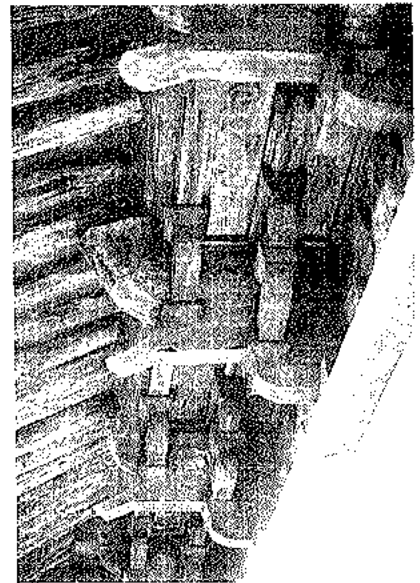
<도.3> 日本 法隆寺金堂의 공포도
(출처: 伊藤延男 外, 『日本の建築1』, p.27)



<사진.4> 山西太原 晋祠敝殿 전면 주간포(내부)



<사진.5> 山西五臺 佛光寺殊殿 공포



<사진.6> 馬傳寺大雄殿 공포

昂身이 실내에서 위로 돌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下平樑¹⁸⁾까지 이른다. 4鋪作에서는 挿昂¹⁹⁾을 사용하며, 그 길이와 경사도는 출목에 따른다. 挿昂은 쟁양(掙昂) 또는 왜양(矮昂)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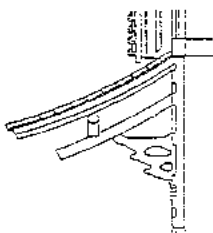
昂栓²⁰⁾은 너비를 4~5분, 두께를 2분으로 한다. 4鋪作인 경우에는 第1출목에 昂栓을 사용하고, 5~8鋪作인 경우에는 第2출목 위에 昂栓을 사용한다. 昂栓은 위로는 모두 昂의 상면을 관통하며, 1昂부터 3昂까지는 단지 하나의 昂栓만을 사용하며, 위에 위치한 昂의

상면을 관통한다. 아래로는 栱身の 半 또는 1/3까지 삽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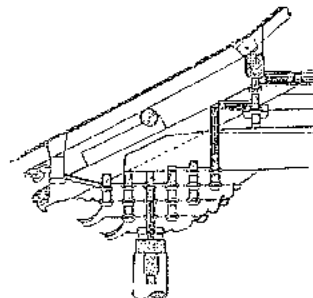
실내가 徹上明造인 경우에는 挑幹²¹⁾을 사용하는데, 도리와는 1材나 1材2架로 연결한다²²⁾. 栱의 上·下에는 모두 枋을 둔다. 외부로 下昂을 돌출시키지 않으면서 挑幹을 사용한 것²³⁾은 東關方 아래의 昂樑을 올라탄다²⁴⁾. 만약 平樑를 사용한 경우에는 昂尾에 蜀柱²⁵⁾를 세워 枋을 받는다. 기둥머리에 사용된 경우에는²⁶⁾ 草栱²⁷⁾이나 丁栱²⁸⁾으로 이를 누른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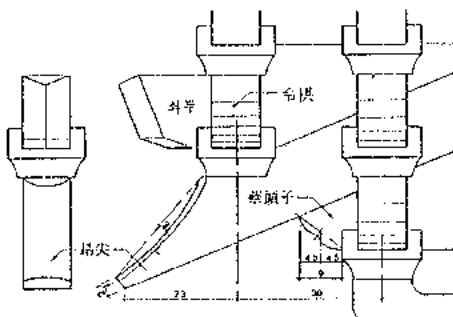
- 18) 樑은 우리말의 굴도리에 해당하는 말로 내부가구에서 가장 상부에 위치한 것으로부터 脊樑, 上平樑, 中平樑, 下平樑이라 부른다. 이러한 위치에 따른 분류는 우리의 분류방식과 일치하여 각 각 宗道里, 上中道里, 中中道里, F中道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下平樑의 경우에 그 의미가 우리와는 약간 다르다. 즉 下平樑은 일단 우리말의 下中道里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우리말의 柱心道里나 內日道里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樑, 즉 도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 19) 挿昂은 昂尾가 건물의 내부까지 돌출하지 않고 외부로만 돌출하여 柱心線에서 그치도록 한 昂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은 4鋪作에서 사용하며<도9>, 경우에 따라 5鋪作이나 6鋪作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다. 5鋪作에서 挿昂을 사용하고 있는 예로 山西大同 善化寺山門을 들 수 있다(12항의 <사진2> 참조).
- 20) 昂栓은 상하의 昂과 昂, 혹은 昂과 栱을 결속하기 위해 이들 부재에 홈을 파고 그 홈에 수직으로 끼워넣는 부재이다<도1>. 여기에서 '栓'은 우리말의 '산지'와 비슷한 명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1) 건물내부에 천장을 가설하지 않고 지붕의 가구를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昂尾도 노출되게 된다. 이렇게 노출되는 昂尾는 천장에 의해 가려지는 昂尾와는 다른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昂尾를 '挑幹'이라 하여 천장을 가설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昂尾와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다.
- 22) 이는 昂尾 위에 枋을 받기 위해 枋과 栱을 설치하는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도면은 뒤에 <總鋪作次序> 항목에서 개재할 것이다.
- 23) 이와 같은 구조로 된 예로 江蘇蘇州虎丘 雲巖寺 二門(宋代)을 들 수 있다고 한다(梁思成, 『前掲書』, p.111~112 참조).
- 24) '東關方'이나 '昂樑을 올라탄다.'라는 말이 뜻하는 의미나, 그 실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5) 우리말의 동지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侏儒柱> 항목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 26) 여기에서는 下昂이 柱心包에 사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昂尾는 보와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내부로 길게 뻗지 못하게 되어 구간포에서 내부로 길게 뻗게 되는 昂尾와는 다른 구성을 하게 된다.
- 27) 내부에 천장을 가설하는 경우 이 위에 위치하여 노출되지 않는 보의 총칭으로, 외부로 노출되는 明袱과 상대되는 개념의 보이다. 실질적으로 지붕의 하중을 받으며, 천장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장식적인 가공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梁> 항목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 28) 한쪽 끝은 축면의 공포나 기둥위에 놓이고 다른 한쪽은 보위에 놓이는 보의 일종으로 평면상으로 볼 때 그 결구된 모습이 '丁'자형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衙樑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梁> 항목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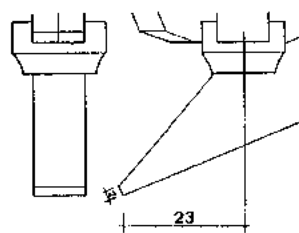
<도.4> 日本 法隆寺 所藏 玉虫厨子の 공포도
(출처:伊藤延男 外, 『日本の建築1』,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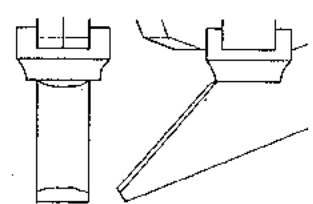
<도.5> 完州 花巖寺極樂殿 공포도
(출처:文化財管理局, 『完州 花巖寺 實測報告書』, p.53)



<도.6> 昂尖(琴面昂)부분 상세도(단위:분)
(출처:양사성, 『營造法式註釋 卷上』, p.243)



<도.7> 批竹昂(단위:분)



<도.8> 琴面批竹昂

2. 上昂²⁹⁾ :

上昂머리는 바깥쪽으로 6분을 돌출시킨다. 昂頭는 바깥쪽으로 돌출하며, 昂身은 안쪽을 향해 경사지게 설치하는데, 모두 柱心을 통과한다.

5鋪作 單杪³⁰⁾ 위에 사용하는 경우³¹⁾에는 櫨料의 중심선에서부터 돌출하여, 第1출목의 華栱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25분이며, 제1출목에서 第2출목 上昂중심까지의 거리는 22분이다. 第1출목의 栱包안에는 轉輦³²⁾을 사용한다. 櫨料口로부터 平棊方까지 이르는 전체 높이는 5材4架가

된다. 第1출목은 重栱口³³⁾이다.

6鋪作 重杪위에 사용하는 경우³³⁾에는 櫨料의 중심에서 돌출하여 第1출목의 華栱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27분이며, 다시 第2跳의 華栱 중심을 거쳐 上昂 중심에 이르는 전체 거리가 28분이다. 華栱 위에는 連珠料³⁴⁾를 사용하며, 그 栱口안에 轉輦을 설치한다. 7鋪作과 8鋪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櫨料口안에서 平棊方까지 이르는 전체 높이는 6材5架이다. 두 출목 안 중심에 해당하는 곳에 栱栱을 설치한다.

주) —————

29) 上昂은 下昂과 더불어 飛昂의 일종으로 그 구조적인 기능은 下昂과는 반대이다. 즉 下昂이 외출목에 사용되고 공포의 층수를 높게 하지 않으면서 출목수 또는 출목한 깊이를 얇게 하는데 사용되는데 반하여, 上昂은 일반적으로 내출목이나 平杪鋪作에 사용되며, 공포의 층수를 높게 하면서 공포가 돌출한 깊이, 즉 출목깊이를 적게 하는데 사용한다<도10~14>. 그런데 본 『營造法式』의 上昂에 대한 규정을 보면 5鋪作에서 8鋪作까지의 上昂에 대해서는 각 출목의 거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권30 <大木作附錄1>에서도 上昂側樣의 항목에서 上昂을 사용한 5鋪作에서 8鋪作까지의 栱包를 그려 놓고 있다.) 4鋪作에 사용된 上昂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최소한 『營造法式』 기록 당시에는 上昂은 4鋪作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上昂이 사용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현재 중국에서도 上昂이 사용된 예로는 用直, 保聖寺 大殿, 蘇州 玄妙觀, 清殿<도14> 등 그 예가 매우 적다고 한다(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北京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 p15).

아와 같이 上昂의 설계가 매우 격기는 하지만 그 출현은 비교적 빨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上昂은 일종의 斜撐材로 漢代의 明器와 画像石(碑)에 斜撐式으로 출목을 형성한 질구가 보이기 때문에 漢代에 이미 上昂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中國科學院自然科學研究所 上昂, 『前編』,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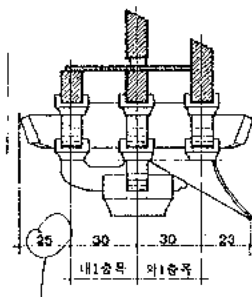
30) 여기에서 '杪'는 華栱이 내부로(下昂을 사용한 경우에는 외부로) 완전한 제모습, 즉 卷頭形을 이루어 돌출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돌출한 段의 수에 따라 한 단만 돌출한 것을 '單杪', 두 단이 돌출한 것을 '重杪' 혹은 '雙杪', 세 단이 돌출한 것을 '三杪'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總鋪作次序> 항목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31) 한 단의 華栱위에 하나의 上昂을 놓고, 출목수가 2출목인 5鋪作으로 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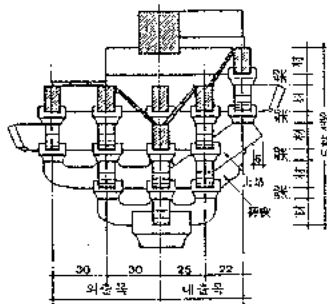
32) 轉輦은 下昂에서 사용되는 卷頭子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재로 上昂의 昂頭 혹은 下昂의 昂尾 아래에 華栱과의 사이에 놓아 이들 부재를 받는 楔形의 부재이다. 宋代 건축에서의 '菊花頭'와 비슷하며, 일반적으로 3쌍을 조각한다<도10~14> 참조).

33) 華栱을 두 단 놓은 위에 하나의 上昂을 사용하고, 출목수가 3출목인 6鋪作으로 된 경우이다<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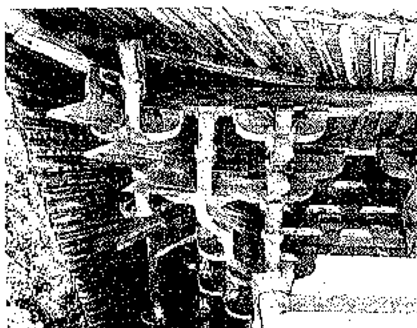
34) 栱料 上下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連珠料'라 한다. 連珠料은 일반적으로 上昂을 사용한 공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출목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鋪作(혹은 上昂의 後尾)의 높이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徐伯安, 郭黛姮 『宋(營造法式) 連珠樑』, <建築史論文集> 第六輯, p43, 北京清華大學出版社, 1984). 즉 上昂의 특성상 아래에 있는 부재가 華栱인 경우 上昂과 華栱 사이의 큰 높이 차를 조절하면서 출목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도10~13>. 그러나 현존하는 실례에서 連珠料을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고, 蘇州 玄妙觀, 清殿과 같은 경우에는 소로와 栱을 사용하여 上昂과 그 아래의 華栱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도14>.



<도 9> 轉輦을 사용한 4鋪作(단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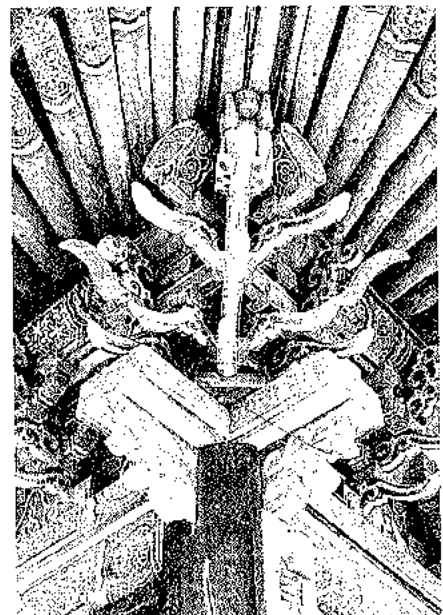
<도 10> 5鋪作 單杪上 用單上昂(단위:분)



<사진 7> 西省五臺 佛光大殿 공포



<사진 8> 山西五臺 南禪寺大殿 공포



<사진 9> 江華 傳燈寺大雄殿 공포

7鋪作으로 重抄위에 上昂을 2重으로 사용하는 경우³⁵⁾에는 櫨料 중심에서 돌출하여 第1출목의 華拱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23분이다. 다시 第2출목의 華拱 중심까지 거리는 15분이다. 이 華拱위에 連珠料를 사용한다. 다시 第3출목의 上昂 중심까지 2重의 上昂을 합하여 제3출목에 해당하는 하나의 출목으로 취급한다 거리는 35분이다. 櫨料口 안에서 平棊方까지 이르는 전체 높이는 7材6契이다. 上昂위에 料拱을 올리는 방법은 6鋪作과 동일하다.

8鋪作으로 3抄위에 上昂을 2重으로 사용하는 경우³⁶⁾에는 櫨料의 중심에서 第1출목의 華拱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는 26분이다. 第2출목과 第3출목의 華拱 중심까지의 거리는 각 16분씩이다. 第3출목의 華拱위에 連珠料를 사용한다. 第4출목의 上昂중심에 2重의 上昂을 제4출목에 해당하는 하나의 출목으로 취급한다 이르는 거리는 26분이다. 櫨料口 안에서 平棊方에 이르는 전체 높이는 8材7契가 된다. 料拱을 올리는 것은 7鋪作의 경우와 동일하다.

昂의 廣厚는 모두 材와 같다. 下昂은 외출목에 설치하는데, 單拱造나 重拱造로 하기도 하고, 偷心造나 計心造로 하기도 한다. 上昂은 내출목이나 平坐鋪作에 사용한다. 昂 상면의 경사진 돌출부는 아래에 위치한 料底面의 바깥쪽까지 돌출한다. 昂의 아랫면은 跳頭의 料口안에서부터 돌출하며, 그 料口의 바깥쪽에 韃靼을 설치한다. 韃靼에는 3卷瓣을 세긴다.

上昂위에 올리는 料拱은 당연히 單材³⁷⁾를 사용하며,

그 아래에 위치한 각 출목은 모두 偷心造로 한다. 鋪作의 計心, 偷心은 總鋪作次序 制度의 항목에 있다.

1-4. 爵頭

爵頭 其名有四：一曰 爵頭，二曰 舛頭，三曰 胡係頭，四曰 野蠅頭。造舛頭之制；用足材，自料心出長二十五分°。自上樓斜殺向下六分°，自頭上量五分°，斜殺向下二分°。謂之鵲臺。兩面留心，各斜抹五分°。下隨尖，各斜殺向上二分°，長五分°。下大樓上兩面開龍牙口，廣半分°，斜稍向尖。又謂之鵲眼。開口與華拱同，與令拱相交，安於齊料下。若累鋪作數多，皆隨所出之跳，加長。若角內用，則以斜長加之。於裏外令拱兩出，安之。如上下有礙昂勢處，即隨昂勢斜殺於放過昂身。或有不出舛頭者，皆於裏外令拱之內，安到心鼓卯，只用單材。

爵頭：

爵頭的 명칭은 네개가 있다. 첫째 작두(爵頭), 둘째舛頭(舛頭), 셋째 호손두(胡係頭), 넷째 부중두(野蠅頭)이다.

舛頭³⁸⁾ 만드는 制度：足材를 사용하며, 料의 중심에서 돌출한 길이는 25분이다. 윗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6분을 경사지게 깎아내고, 그 머리의 상면 5분을 해야려 아래로 향해 경사지게 2분을 깎아낸다. 이를 鵲臺라 한다. 가운데를 남긴 양면을 각각 5분씩 경사지게 깎아낸다. 아래 부분은 날카로운 부분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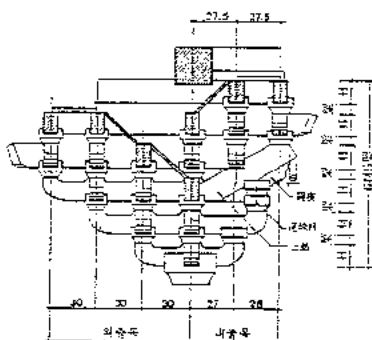
주) _____

35) 華拱을 두 단 높은 위에 上昂을 1重으로 사용하고, 출목수가 4출목인 7鋪作으로 된 경우이다<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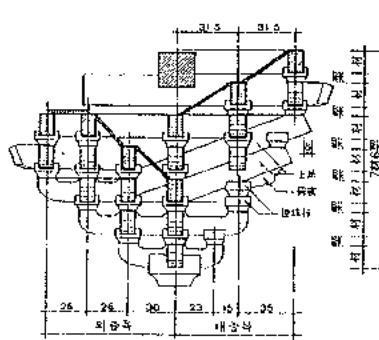
36) 華拱을 세 단 높은 위에 上昂을 1重으로 사용하고, 출목수가 5출목인 8鋪作으로 된 경우이다<도.13>.

37) 『營造法式』 原本에는 ‘單用’이라 되어 있지만, 실례나 『營造法式』 原本의 圖說을 볼 때 單拱인 경우가 없고 모두 重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의미를 單拱이 아닌 重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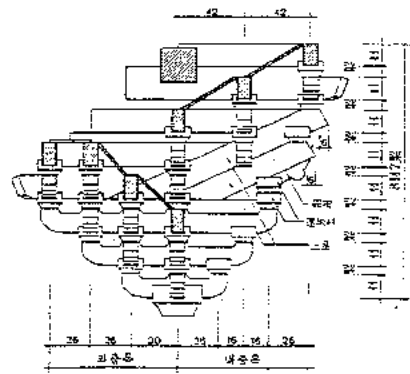
38) 舛두는 料拱에 있어서 令拱과 작교하여 결구되는 보방향의 부재이다<도.1> 및 각종 공포도 참조). 또한 舛두는 주로 주간포에서 사용되는 부재로 주심포에서는 보방목에 해당한다. 즉 주심포에서는 보의 단면이 주삼선상에서부터 1材, 또는 1材1契로 좁아져 바깥으로 돌출하는데, 이것이 주간포에서의 舛두와 같거나 비슷한 형태로 되는 것이다. 물론 주심포에서 보방목 위치에 있는 부재를 보와는 다른 별도의 부재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이와같은 舛두의 사용에 대한 규정은 소위 ‘多親系’ 형식, 즉 공포의 발전단계에서 주심포와 주간포가 동일한 형태로 되는 단계의 정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營造法式』에서 규정하고 있는 舛두의 형태는 연속해서 경사진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宋代의 ‘馬舛頭’와 비슷하며, 우리나라 건축에서 보머리를 가공할 때 많이 사용하던 소위 ‘三盆頭’ 형식과도 비슷하다<사진 6>. 舛두의 외단부 형태가 본 『營造法式』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예로는 河南登封 少林寺初祖庵(1125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된 舛두는 그 예가 그리 많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다. 즉 舛두의 외단부 형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때문에 舛두는 건물의 시대성이나 지역성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도.15, 사진 1, 3, 5, 9>.



<도. 11> 6鋪作 重抄上 用單上昂(단위: 분)



<도. 12> 7鋪作 重抄上 用重上昂(단위: 분)



<도. 13> 8鋪作 三抄上 用重昂連(단위: 분)

각각 위로 2분, 길이 5분 만큼을 경사지게 깎아낸다³⁹⁾. 아래 부분 긴 면위의 양면으로 龍牙口를 내는데 너비가 半分이고 斜梢向尖하도록 한다. 또 이를 鋪眼이라 한다. 開口는 華栱과 같으며 令栱과 서로 직교하여 齊心科⁴⁰⁾ 아래에 놓는다.

鋪作數가 많은 경우에는 그 출목수에 따라서 쇄두의 길이를 조절하며, 內出日과 外出日의 令栱과 직교하여 이를 얹힌다. 귀포에 사용된 경우에는 斜枋을 더한다. 上下로 昂勢와 맞지 않는 곳이 있을 때에는 쇄두의 뒷부분을 昂勢에 맞추어 경사지게 깎아 昂身에 맞추어 놓는다. 쇄頭를 돌출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內日과 外日의 令栱 안쪽에서 중심까지 股卵⁴¹⁾를 끼운다. 單材만을 사용한다.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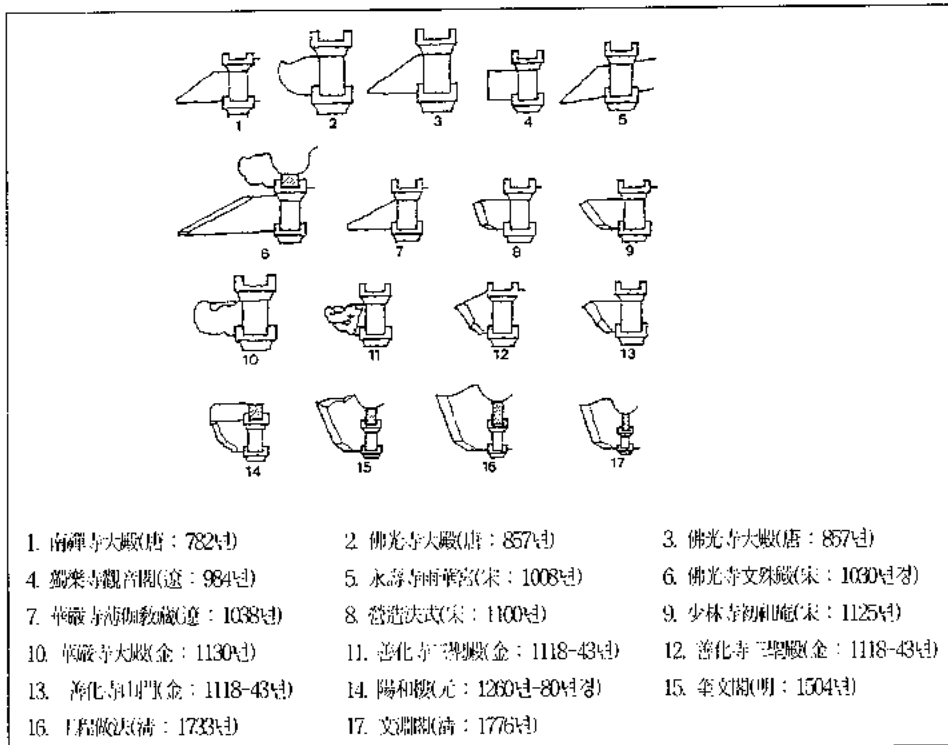
- 國日開發研究院 『營造法式(一)』, 1984
國日開發研究院 『營造法式(二)』, 198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定州 花嚴寺 實測報告書』, 1985
朴大鶴 『下昂에 관한 研究』, 서울: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2
徐伯安, 郭黛娟 『宋<營造法式>述語匯釋』, <建築史論文集> 第六輯, 北京:清華大學出版社, 1984
梁思成 『營造法式註釋 卷上』, 北京: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
伊藤延男 外, 『日本の建築I-古代I』, 東京:法政出版社, 1977
李誠 『營造法式』,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68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 서울:문예출판사, 1992
張起仁, 『韓國건축대계IV-한국건축사전』, 서울:보성문화사, 1991
張起仁, 『韓國건축대계V-木造』, 서울:보성문화사, 1991
朱南哲 『韓國建築意匠』, 서울:一志社, 1987
中國科學院自然科學研究所 主編 『中國古代建築技術史』, 北京:科學出版社, 1990
Liang Ssu-ch'ang, 『A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84

주) —————

39) 쇄두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도16>은 이렇게 쇄두를 만드는 방법을 순서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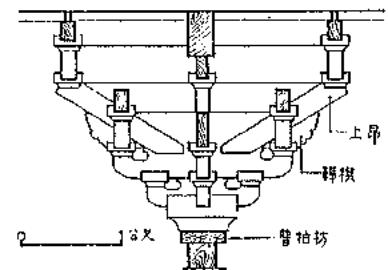
40) 최외단에 사용된 도리방향 첨차인 令栱의 중앙에 쇄두와 직교하는 부분 위에는 놓인 소로의 일종으로, 상부에는 '一' 자형의 홈을 파서 상부의 장혀나 檁方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교> 항목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1-2항의 <도1> 참조).

41) 鼓卵은 장부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그 끝부분을 크게 해서 부재를 서로 결구할 때 부재가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우리의 주먹장, 또는 나비은장 등의 형태로 된 장부를 鼓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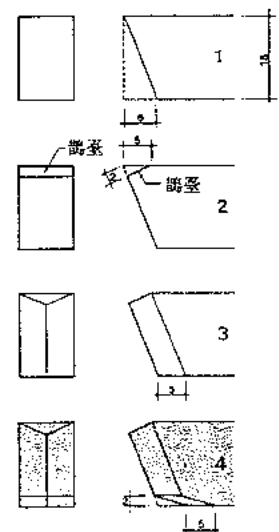


<도 15> 쇄두의 시대적 변화

(출처: Liang Ssu-ch'ang, 『A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 p. 116 및 徐伯安, 郭黛娟, 『前掲書』, p. 53)



<도 14> 江蘇蘇州 玄妙觀三清殿의 上昂
(출처: 梁思成, 『前掲書』, p. 116)



<도 16> 쇄두 만드는 순서(단위: 분)

기상청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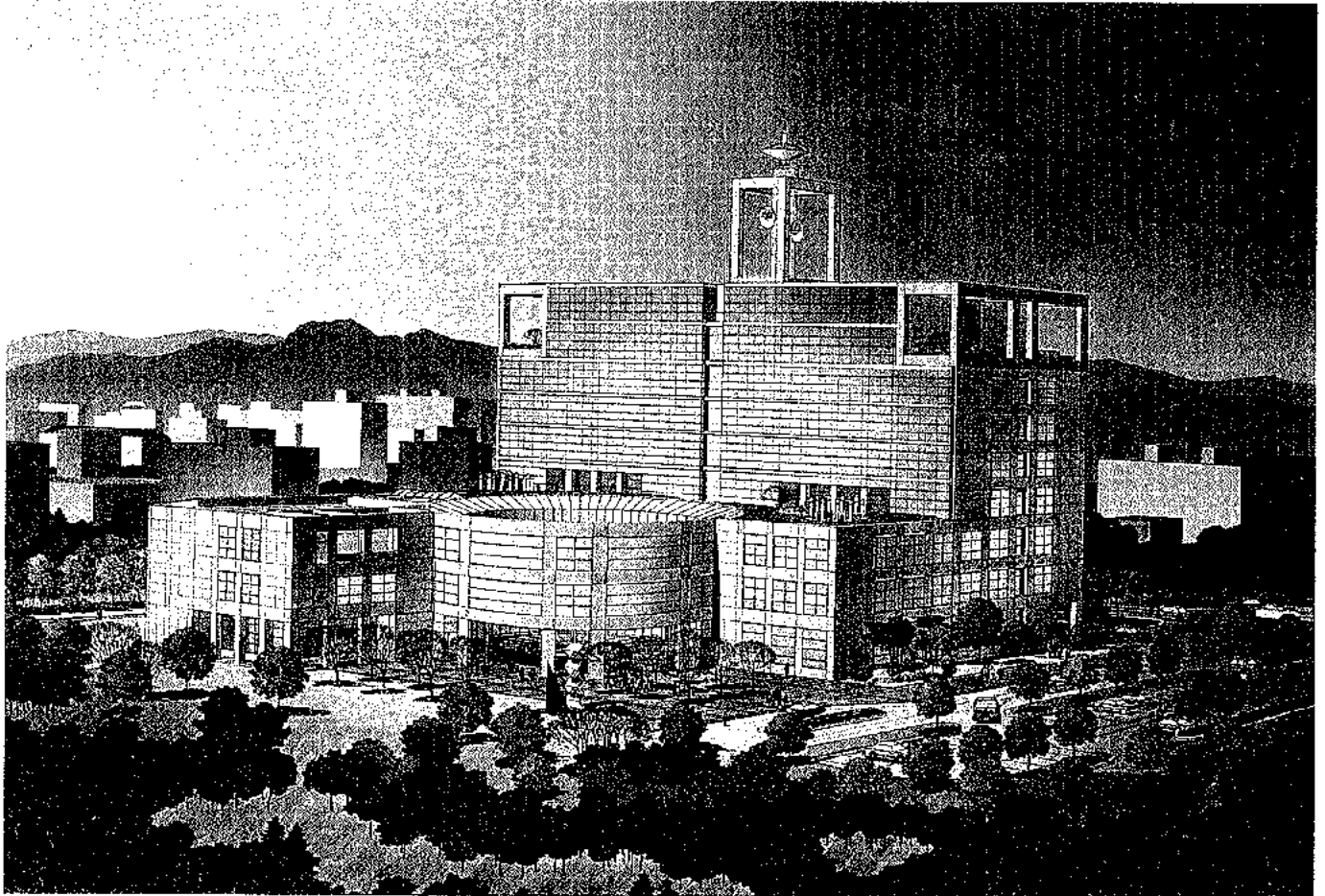
기상청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적극대처하고
기존청사의 극심한 노후와 기구확대로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 지난 10월 20일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10월 29일 당선작을 발
표했다.

총 6개 사무소에서 출품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원도시 건축안

이 선정되었고, 우수작은 신조종합건축안이, 가작은 종현건축
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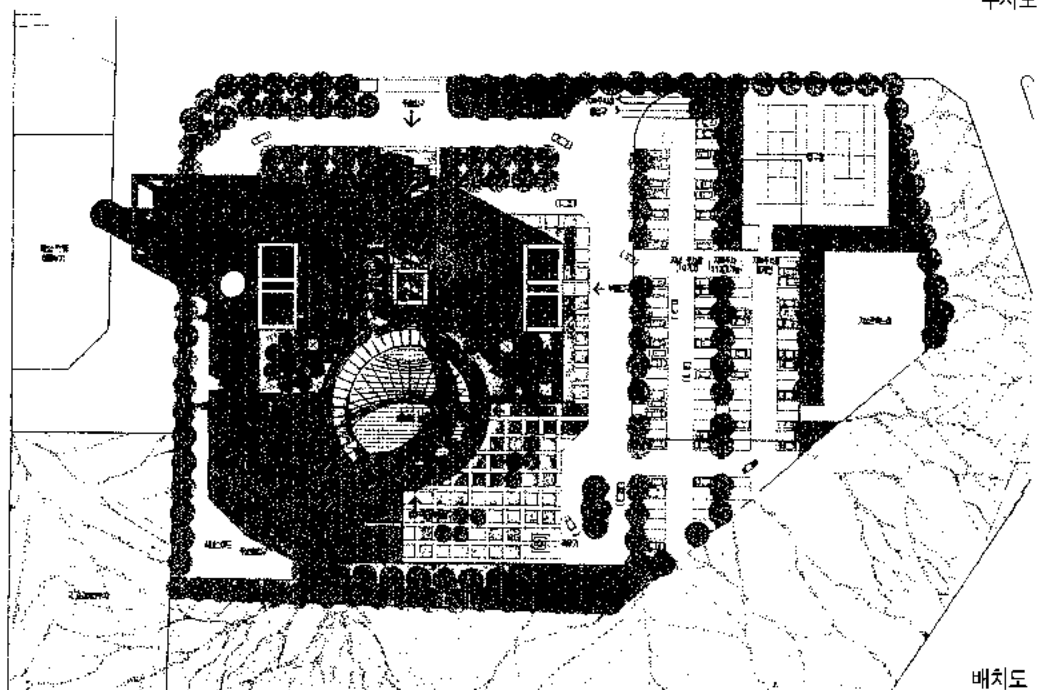
심우갑(서울대), 이정덕(고려대), 윤도근(홍익대), 이리형(한
양대), 기상청국장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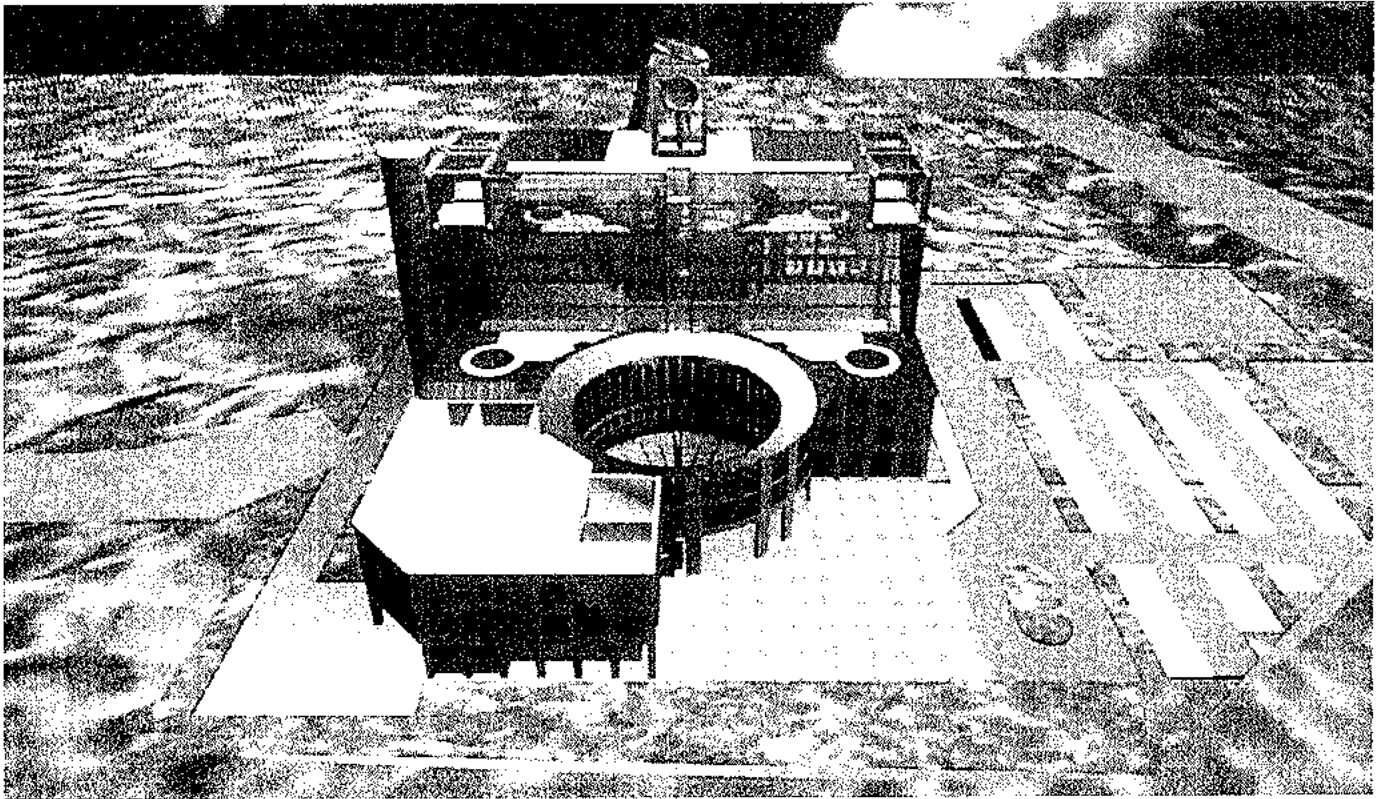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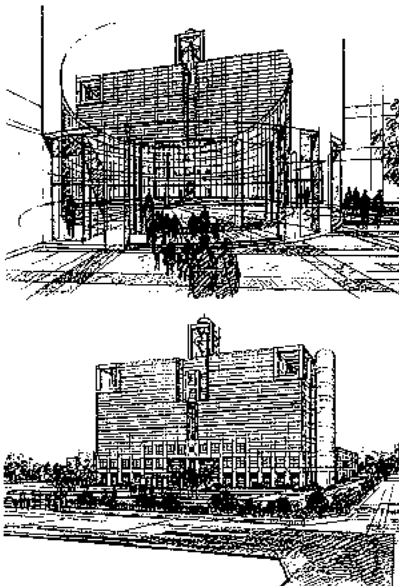
내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
지역 / 일반주거지역
지구 /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8,182㎡
건축면적 / 3,791㎡
연면적 / 18,105㎡
건폐율 / 20.85%
용적률 / 24%
규모 / 지하2층, 지상9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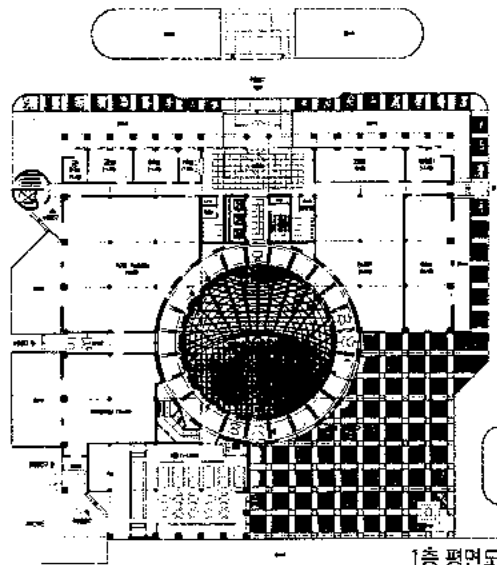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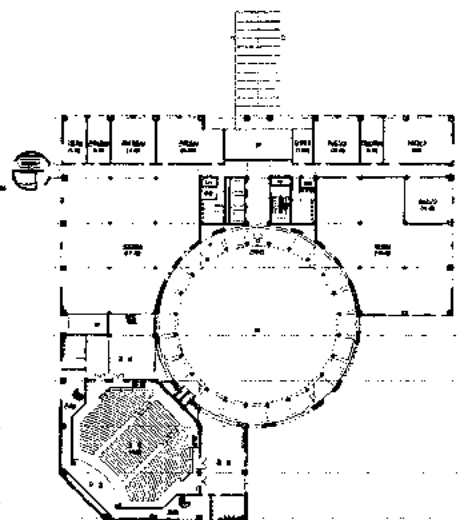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미지 스케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요즈음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화되고 사회생활이 다양화되는 한편 기상재해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기상정보 및 기상예보 적중률의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상청은 우수기상인력 및 신장비의 확보, 기상업무의 전산화, 새로운 예보기법의 연구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상업무현대화 계획"을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단계로 1991년까지 자동기상

관측장비, 컴퓨터 및 신형기상레이더 등 최신 기상장비를 도입, 설치하였다. 또한 종합기상정보망(COMIS)을 구축하여 기상관측, 분석, 통신을 단일체로 결합하는 한편 한국형 예보기법을 수행하여 수치예보를 실시하는 등 예보의 적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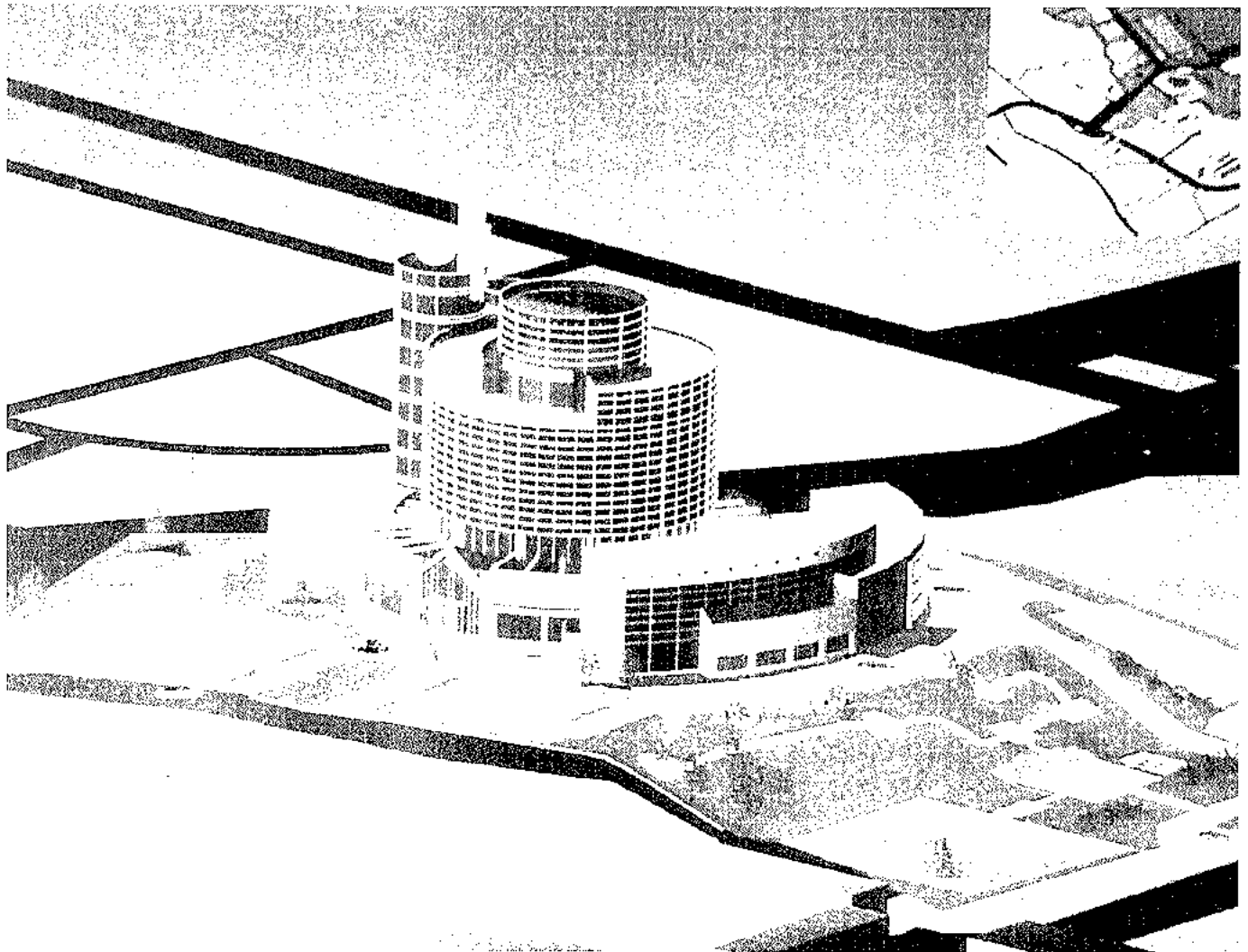
주어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대지조사를 하였으나 주어진 자료(현황 및 지적사항)가 미흡하여 대지경계의 파악과 등고선의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더욱 주어진 프로그램의 파악을 위하여 현시설에 대한 답사를 행하였으나, 기존사용방법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통합된 영체계를 입안해 놓음으로서, 답사사항과 일치시켜 파악될 수 없었다. 이러한 주어진 기능에 대해 많은 분석을 해 보았으나, 현상설계의 성격상 상당한 부분이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추후 파악,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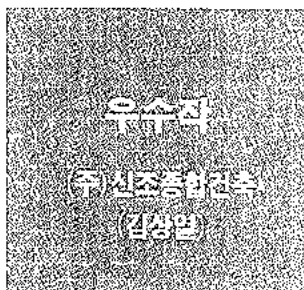
그리고 보면, 이와같은 기상

청 청사+연구소 건물이 일반 공모의 성격에 맞는지는 생각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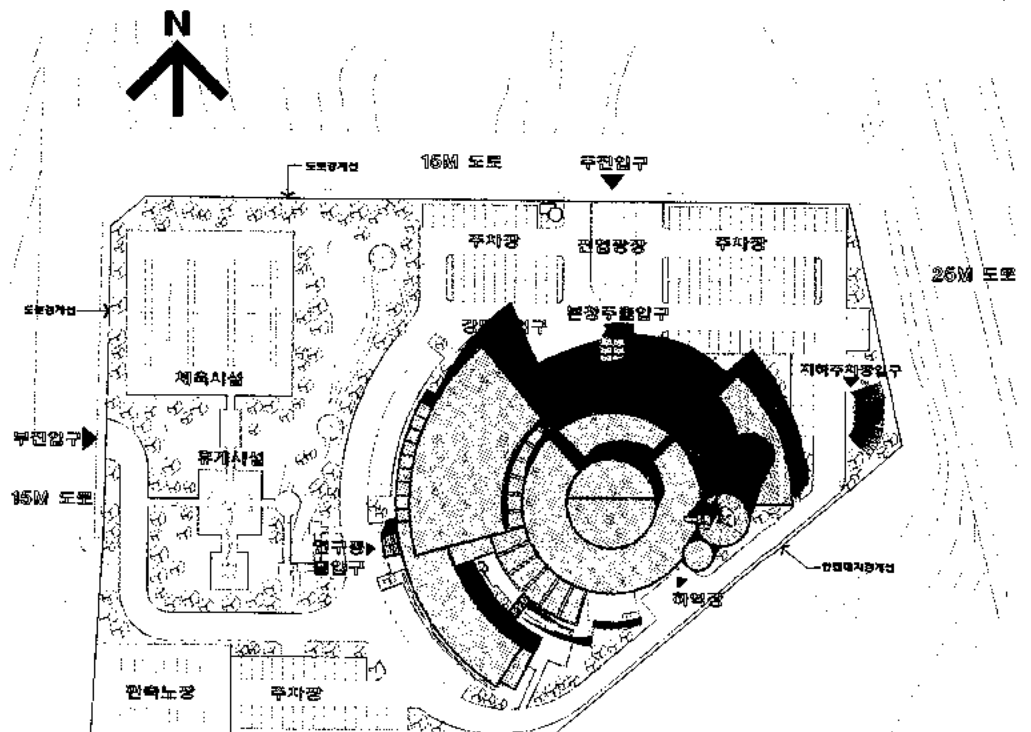
정부기관중 특수한 용도의 건물로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또,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모든 장비가 하이테크놀로지화 되어야 하는 건물로서 파악되었으며 교육 및 건학기능이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건물이다. 청사 기능과 건학인원의 동선분리 및 홍보, 전시 기능의 확보에 계획의 주안점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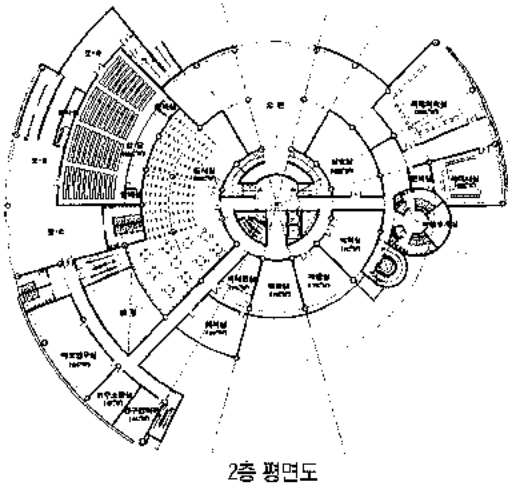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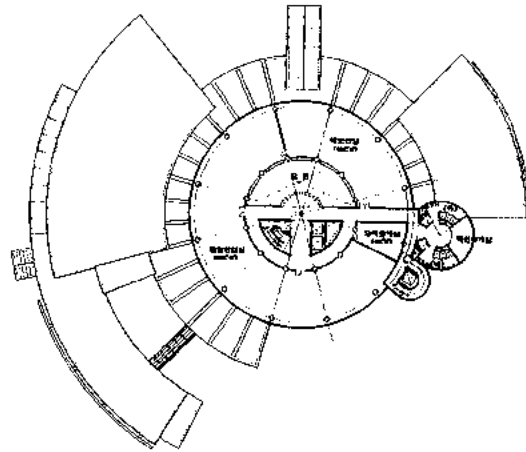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동작구 선대
방동 460-1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
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8,182㎡
규모 / 지하1층, 지상9층
건축면적 / 3,804.67㎡
연면적 / 18,052.19㎡
건폐율 / 20.93%
용적율 / 79.73%
구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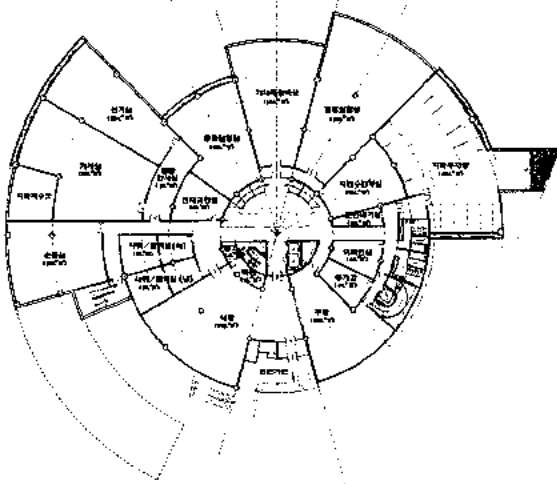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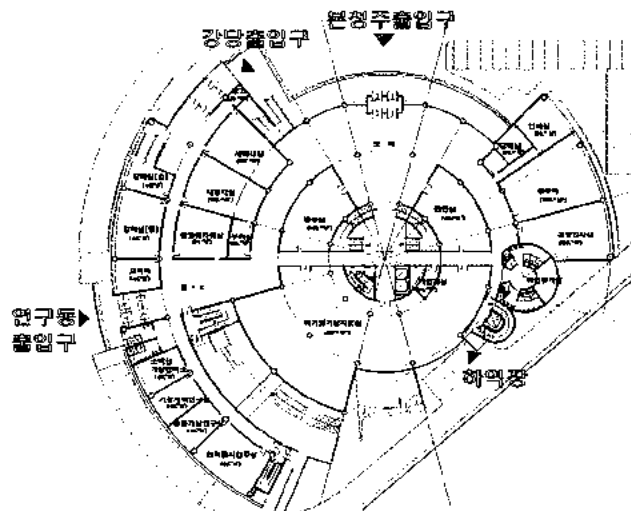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본 계획은 신뢰감,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갖는 기상청 청사의 모습을 상징하고, 21세기에 대처한 업무처리의 과학화, 능률화, 융통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배치 및 평면계획은 공간의 밀도에 높낮이를 두어 공간별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배치계획은 건물이 배치되는 부분을 고밀화하여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주변의 공지를 확보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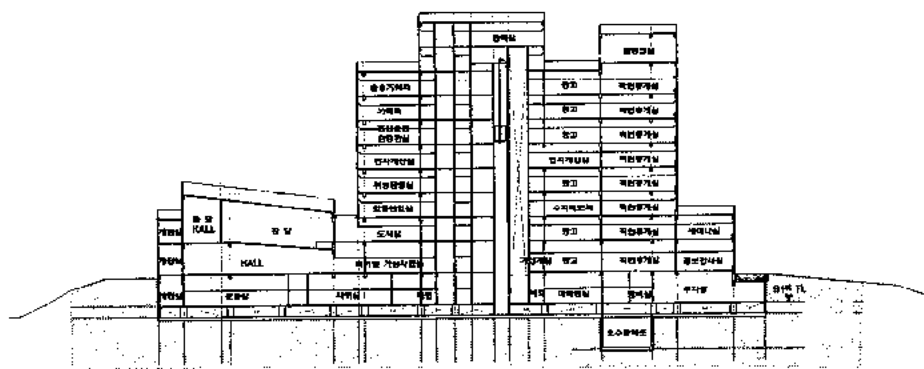
평면계획은 사무동, 연구동, 집회, 교육동간의 상호 영향을 고려하여 아트리움식 복도로써 분리/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매개공간이 되게 하였다.

입면 계획은 고층부에서 사방을 육안 관측할 수 있으며 기상

위성을 상징하는 배관한 유리로 하였고 저층부는 화강석의 중량감을 이용, 관청으로서의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계획의 접근 과정은 각 공간의 제자리 찾기 작업과 그에 따른 질서를 이루는 과정이었다.



횡단면도

속초공항 여객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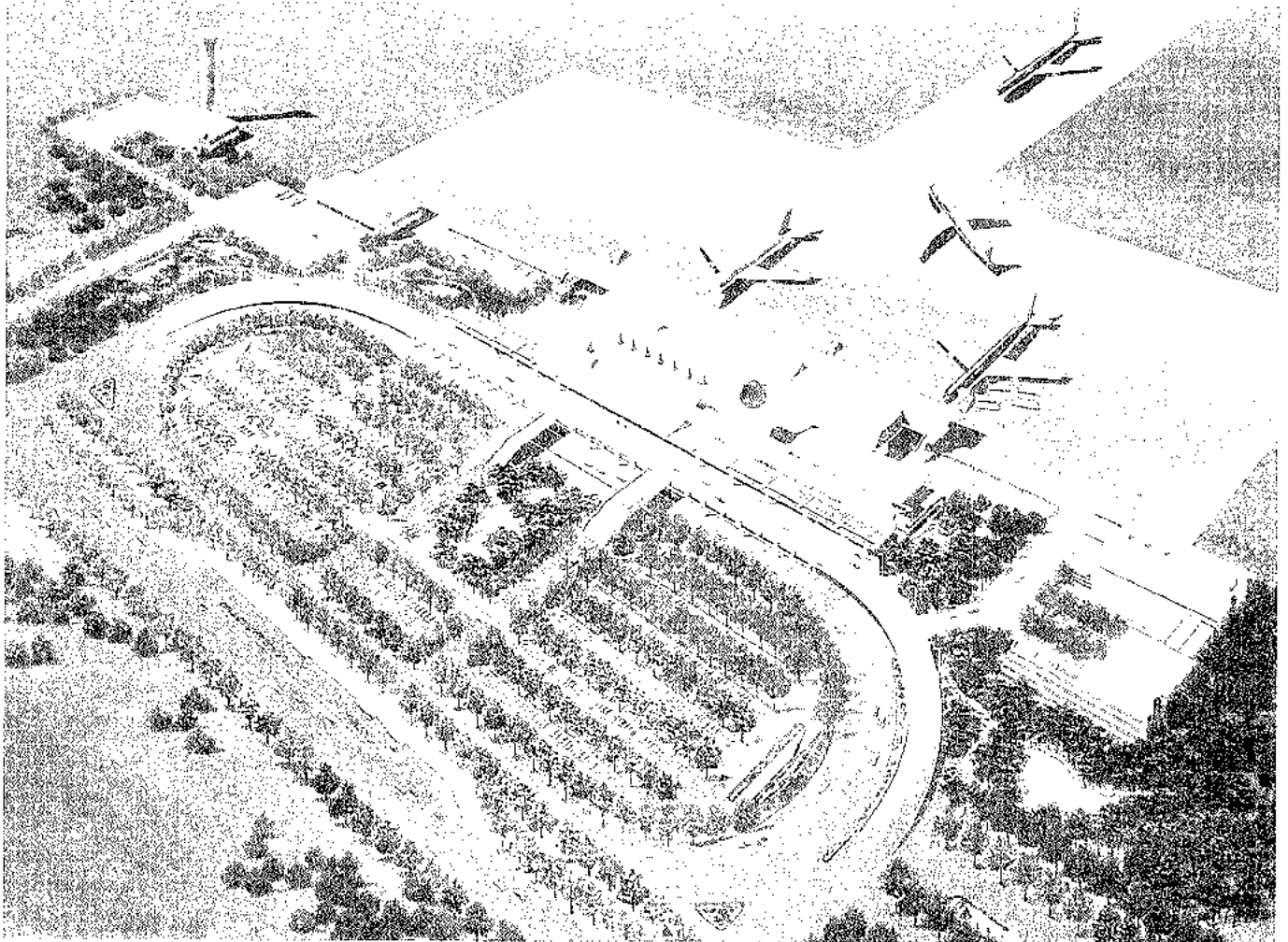
교통부에서는 설악·영동권의 국제선 거점 공항의 기능과 교통량의 확대에 따라 속초공항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 지난 10월 6일 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4개 사무소에서 출품한 가운데 우수작으로는 공간종합건

축안이, 가작으로 아공건축안과 원도시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송중석(연세대), 유희준(한양대), 이경희(연세대), 도문호(교통부), 유임형(공항공단)



조감도

당선작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송기덕)

지역면적 / 약 1,910,000m²
(비행장지역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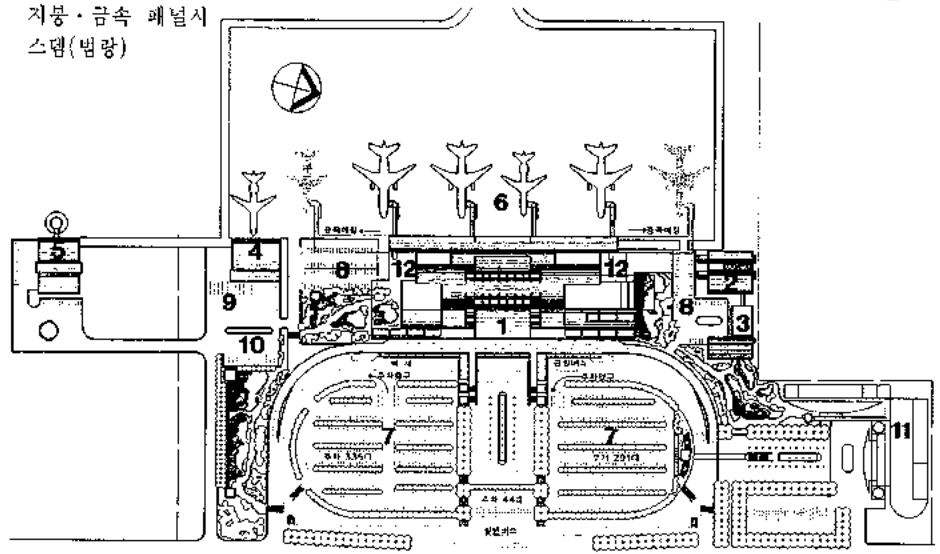
건물면적 / 21,945m²

층수 / 지상2층,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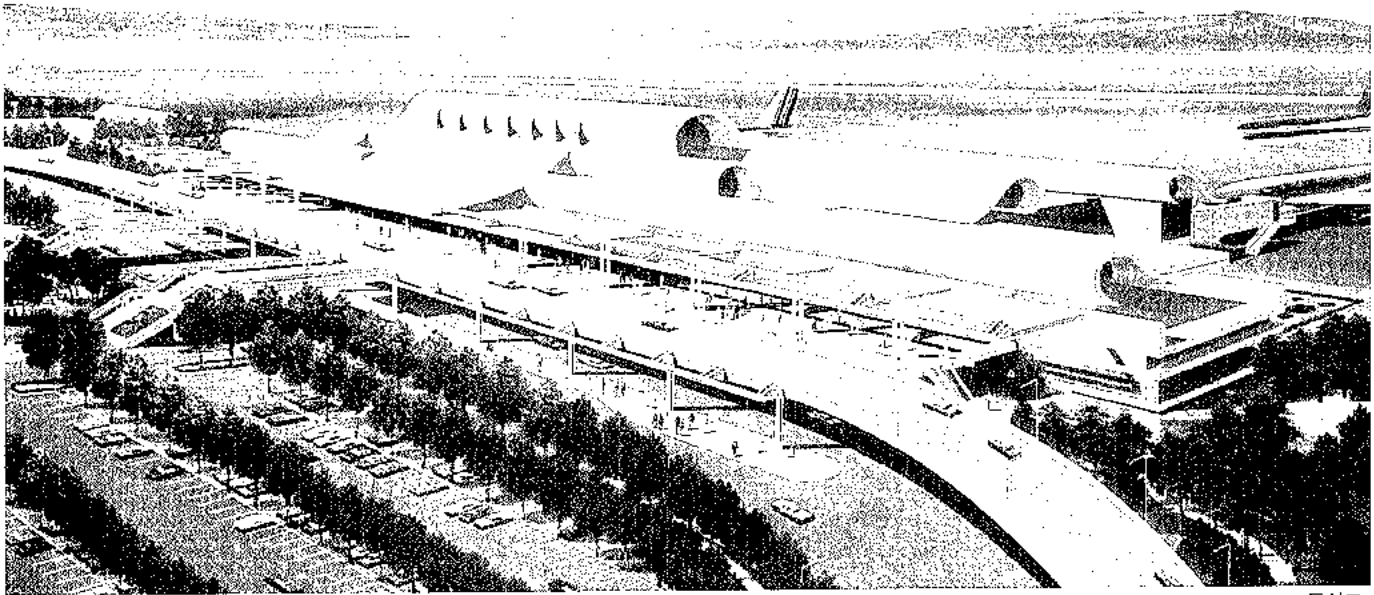
구조 / R.C조+철골조

외부마감 / 외벽-CONC P.C
불소수지도장 글래스 커튼월

지붕·금속 패널시
스템(범랑)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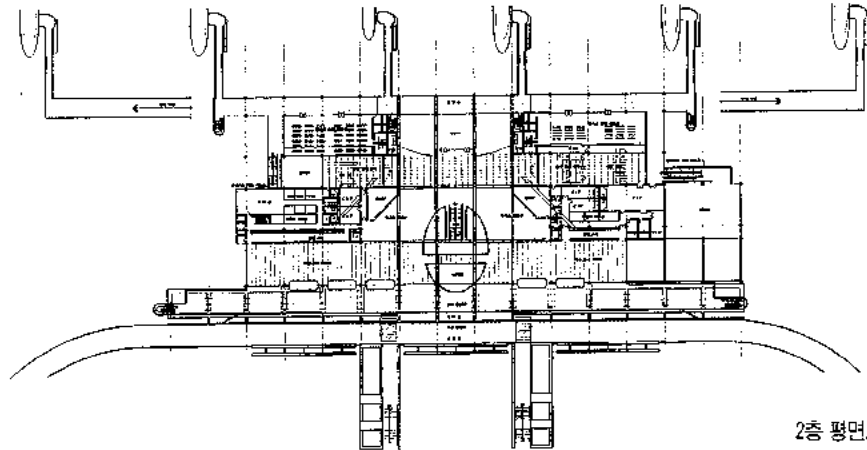
투시도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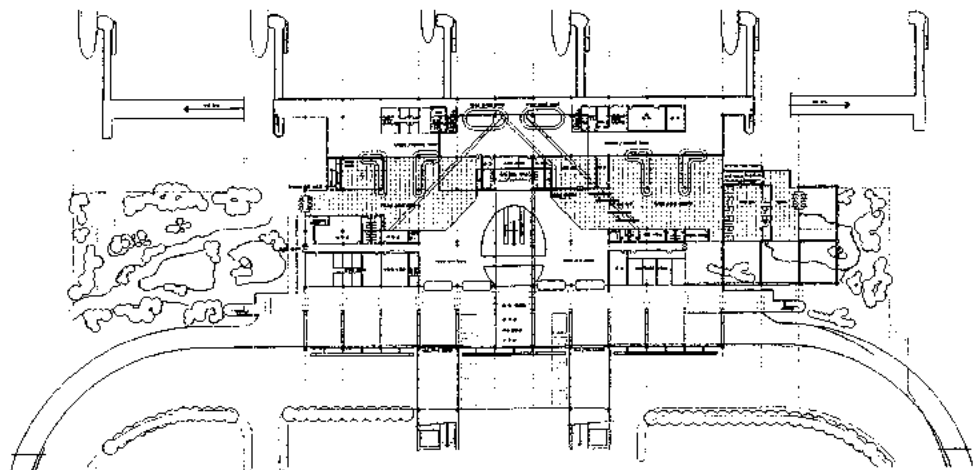
- 날로 변화, 성장하는 공항의 기능과 교통량의 확대에 따른 확장성 용이
- 차량 및 여객의 동선을 고려, 교차 정체의 최소화
- 외부 공간에 조경시설 및 보행자 동선을 차도와 구분하여 여객의 쾌적성 및 안정성 부여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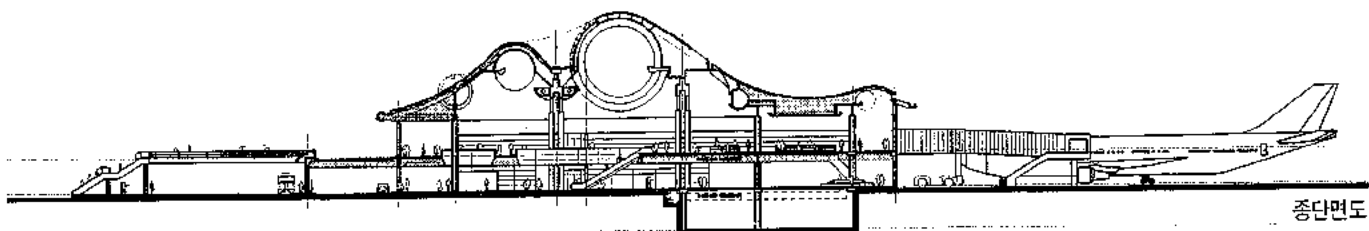
- 도착공간과 출발공간의 수직적 구분과 국제선과 국내선의 평면적 구분
- 장래 확장시 구분된 기능에 따라 간편한 증축과 여객동선의 간결한 처리
- 기능단위별로 필요로 하는 모듈을 적용하여 융통성 확보와 증축등에 의한 기능확장이 경제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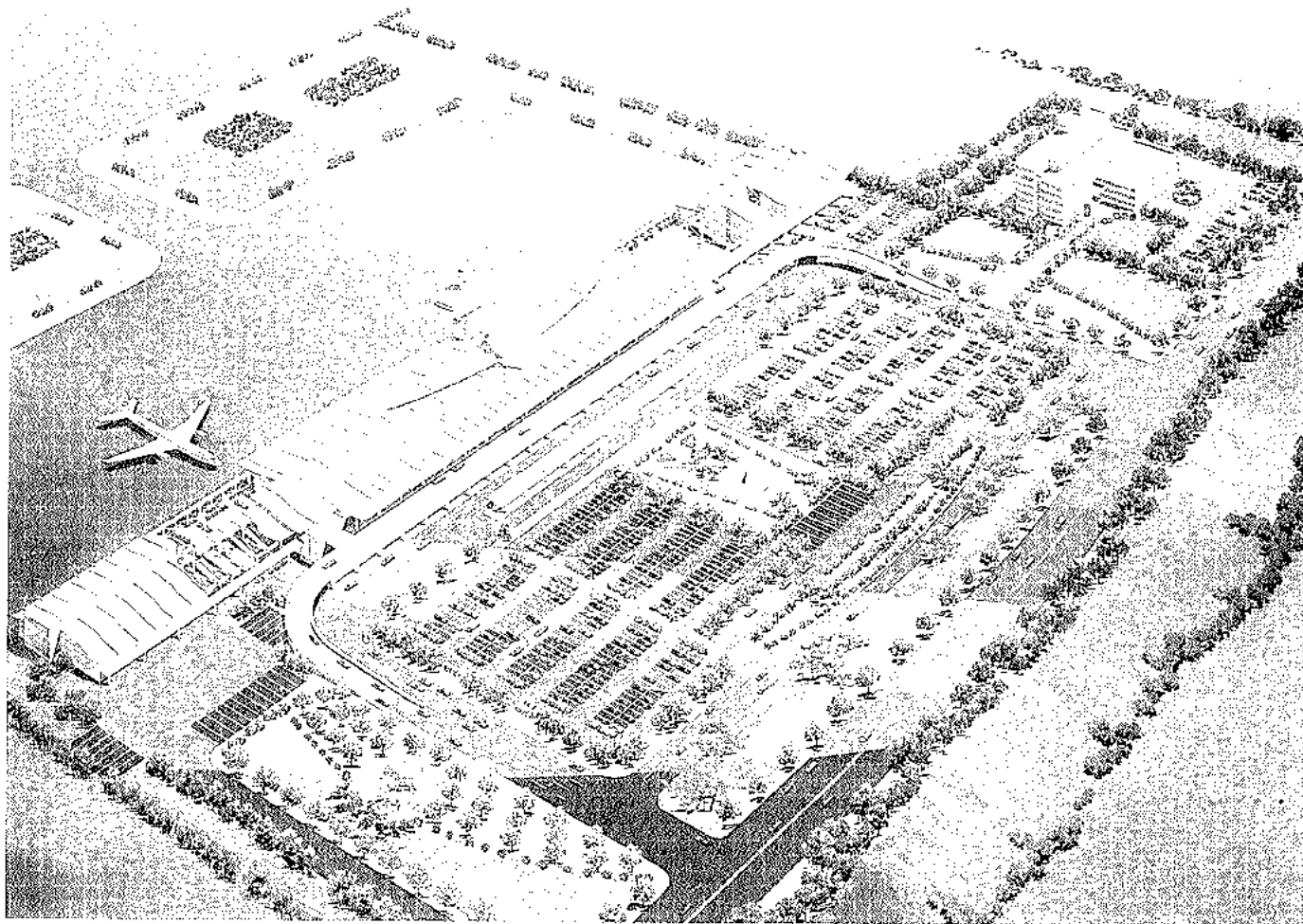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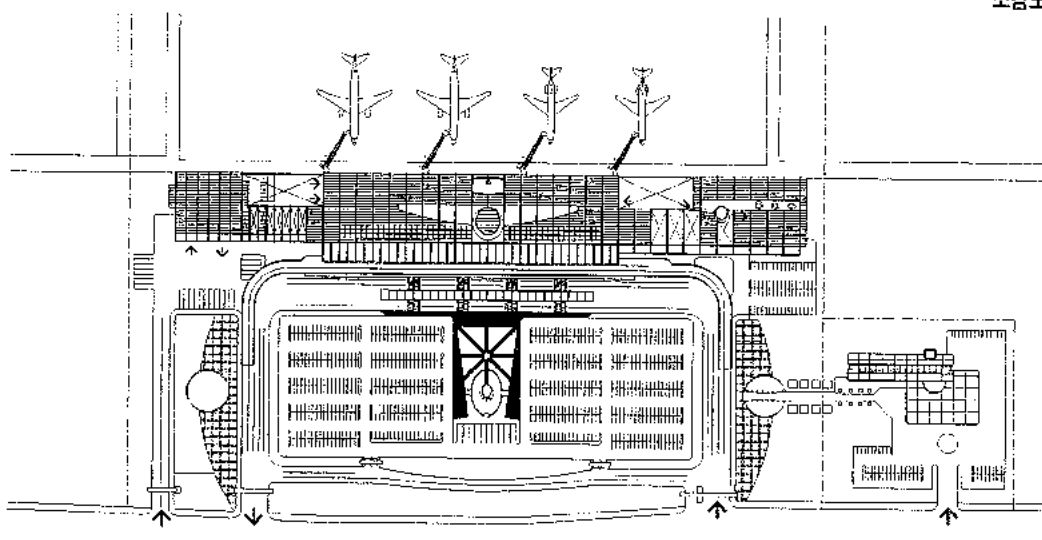
종단면도



조감도



대지위치 / 강원도 속초시 인근 지역
 용도 /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업 지역
 대지면적 / 약 1,900,000㎡(비행장지역 포함)
 연면적 / 23,011.65㎡



배치도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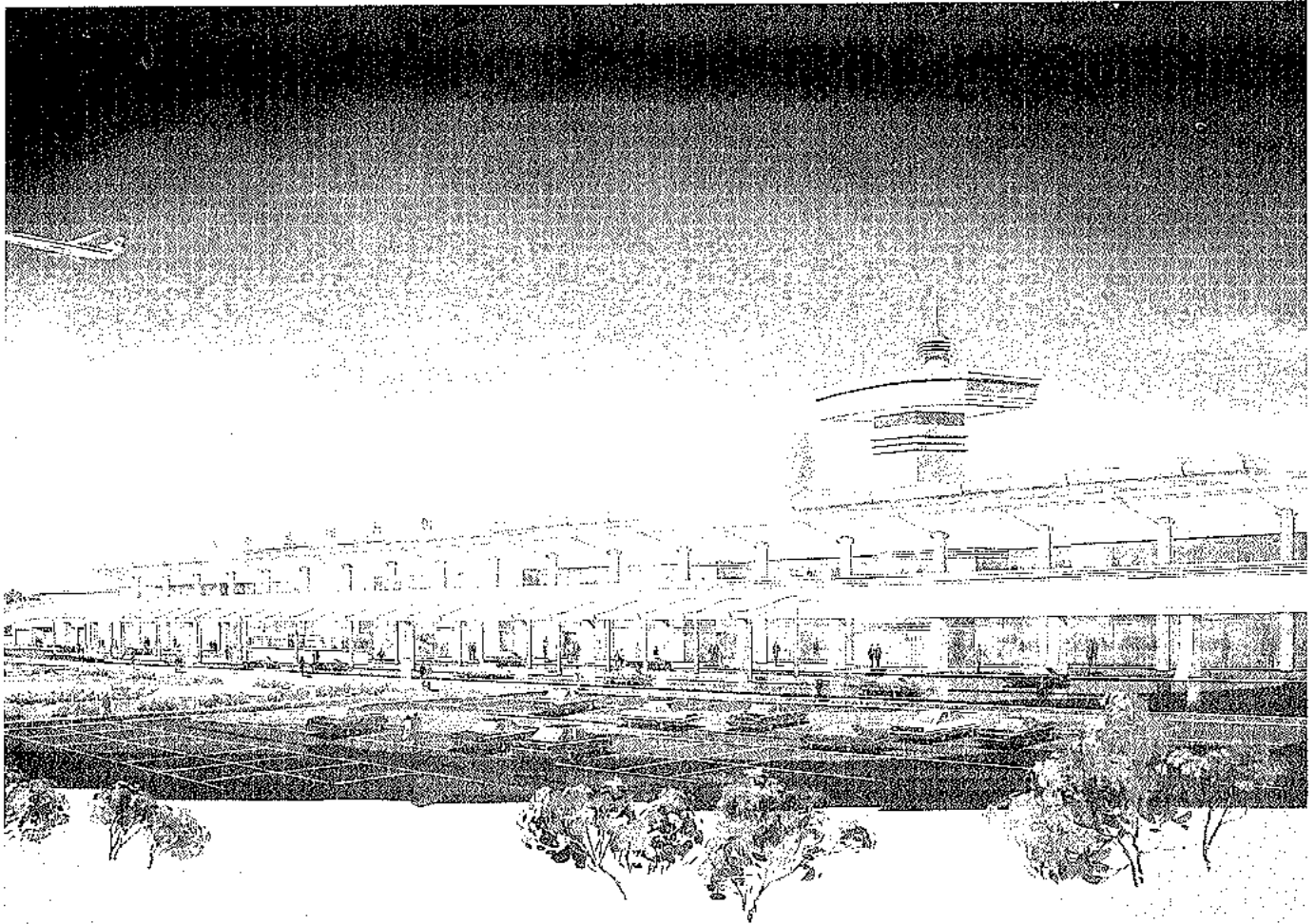
속초공항 현상설계는 설악, 영동권의 국제선 거점 공항의 개발을 여하이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시작되었다. 신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으로서 동아시아는 막강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Infrastructure 특히 운송시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속에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거점공항의 개발은 단순히 공항을 짓는 것 이상이며, 우수한 강원

지역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공항으로서의 발돋움에 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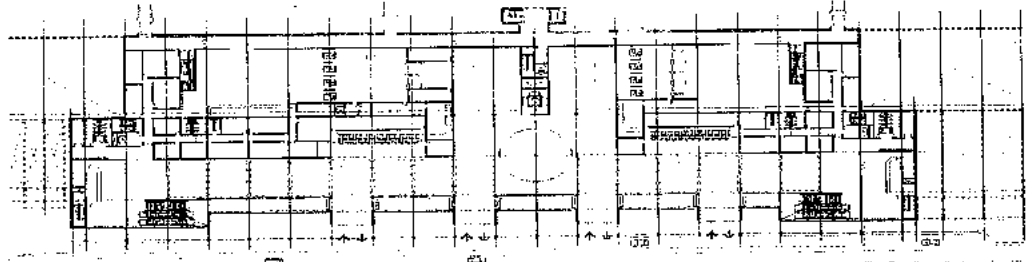
FUNCTION VERSUS FORM

기능과 형태의 조절이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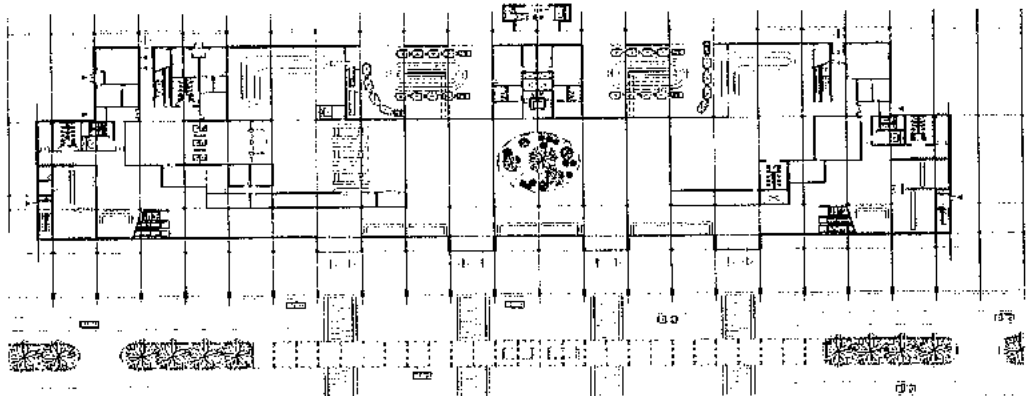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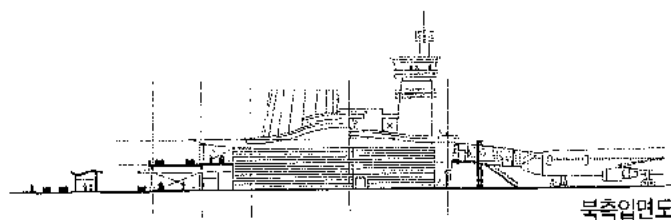
큰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 공항의 특성상 기능은 단순, 완벽해야 하고 관광거점공항으로서 특징적인 Form을 창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면을 직시하고 걷는 인간의 보행특성상 공항의 동선, 기능은 직선적이고 최단거리가 적합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조형은 직선적인 형태에서 시작하여 변화를 갖게 되었다. CIQ의 동선, 증축의 방향, 부대시설의 요구까지 이러한 직선의 방향성에 포함시켜 단순하고 Unique한 형태를 만들어 내면서 Aurside와 Security문제도 동시에 해결하였다. 최종적으로 Aerodynamic한 형태의 가벼운 금속성 지붕을 금방 날라갈것 같은 새처럼 올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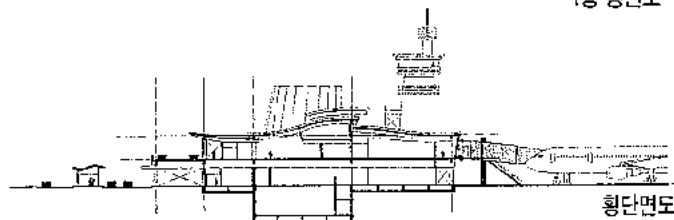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북측입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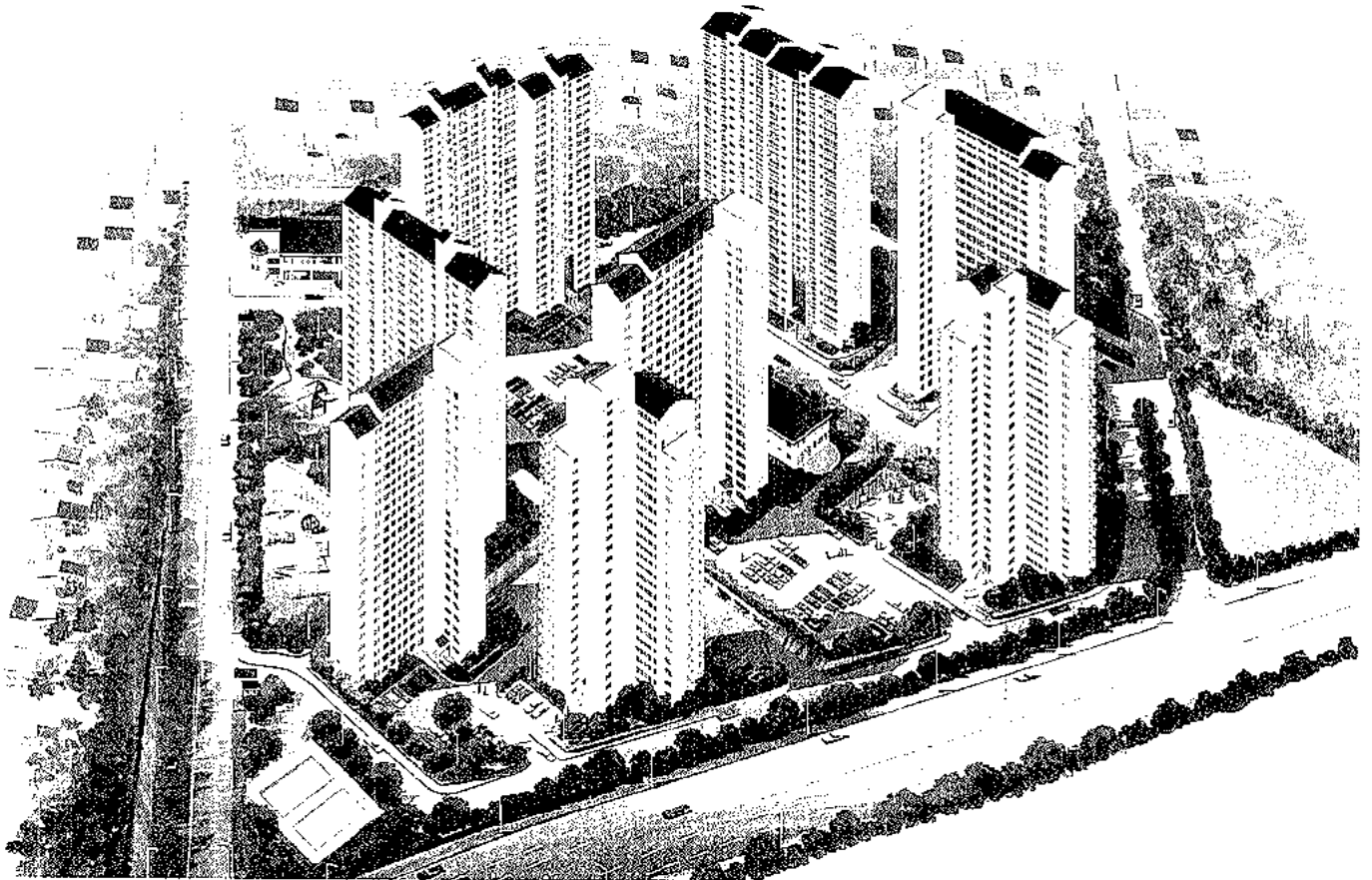
대전중촌지구 공동주택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전중촌주거환경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10월 4일 목성건축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진양종합건축안이, 가작으로는 원종합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안영배(서울시립대), 이호진(건축대), 이기승(목원대), 박영기(연세대), 윤영태(경희대), 최용목(건설부) 이정우·이치운(주공)



당선작
종합건축 목성
(이택준+이지수+정병욱+권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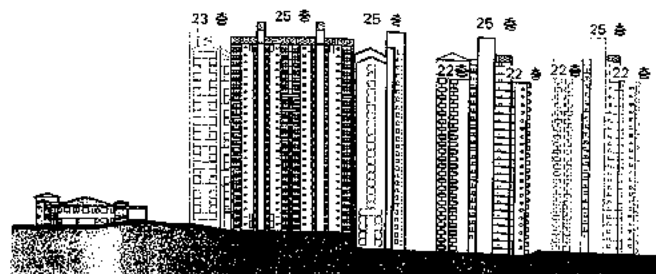
대지면적 / 23,622㎡
건축면적 / 4,205.93㎡
연면적 / 87,754.38㎡
건폐율 / 18%
용적률 / 304.11%
호수 / 12평형·88세대
15평형-541세대
18평형-136세대
25평형-200세대

□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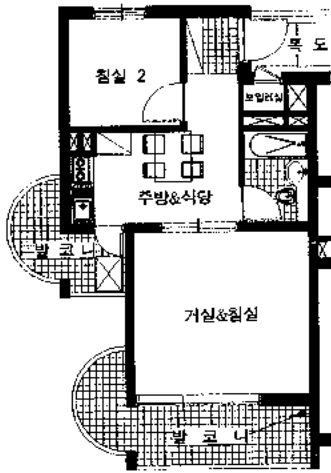
- 폐쇄적인 단지배치를 지양하고 개방감있는 배치유도
- 설계지구를 간선도로 및 철로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와 녹지경관을 최대 전망토록 배치
- 간선도로 및 철로변, 소음 차단을 위해 축벽과 코아 가 면하도록 배치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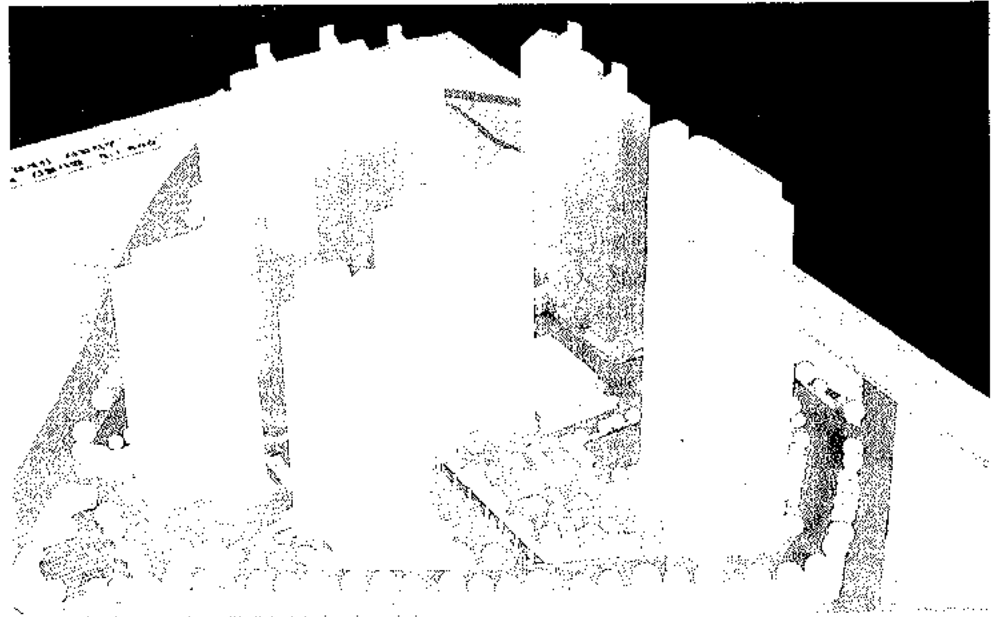
- 단지중앙 :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보로 거주민의 거주 안정성 도모
- 외곽 : 단지내 순환도로를 두어 내부·보행자 공간과 분리
- 단지남동측 : 사찰과 목원대측의 양호한 녹지공간을 전망토록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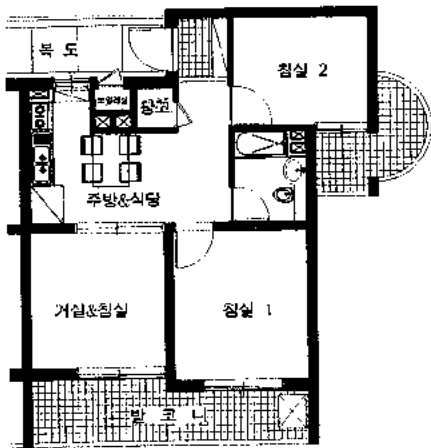
북쪽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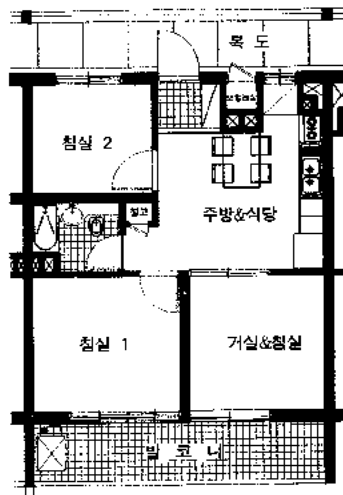
12평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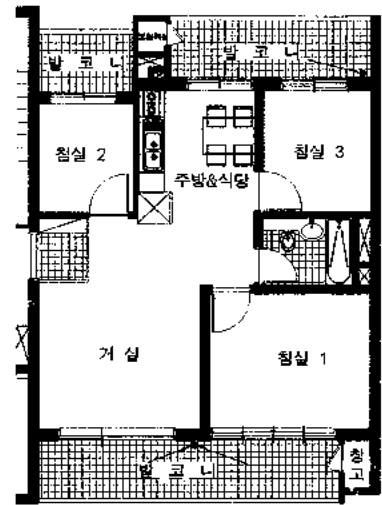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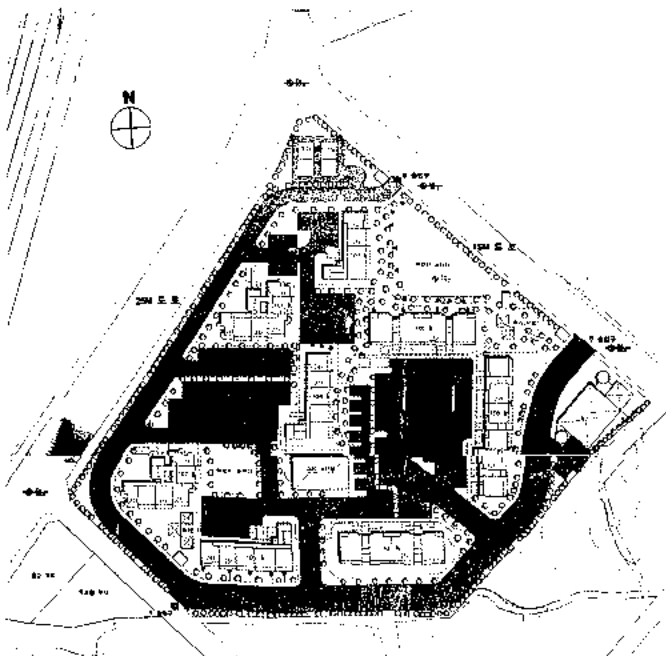
15평형 평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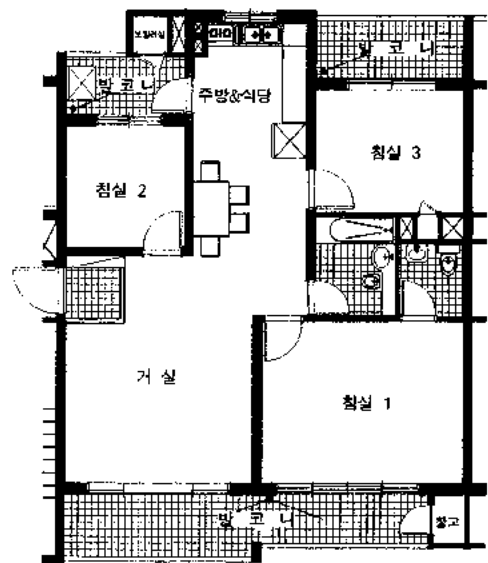
15평형 평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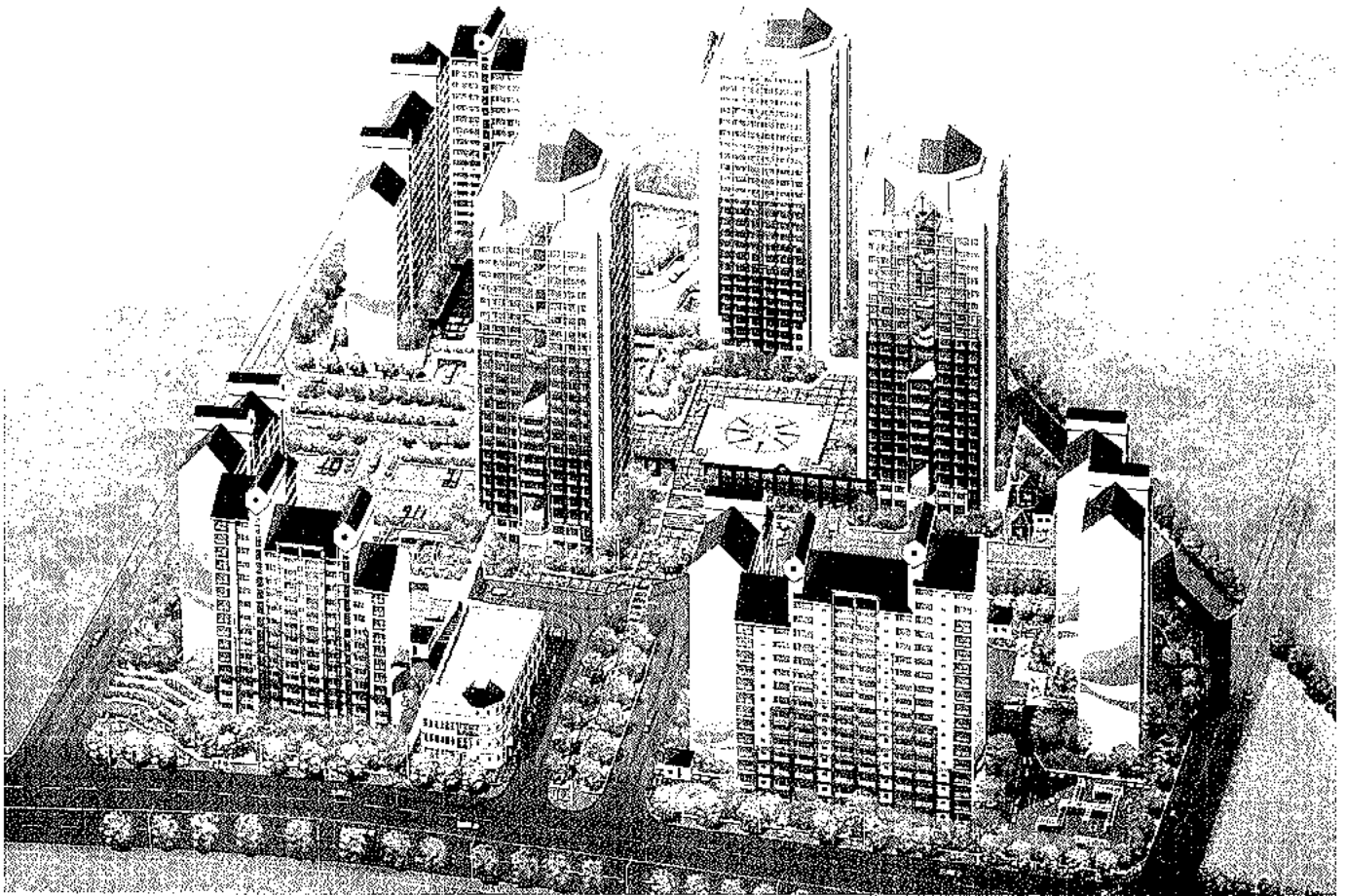
18평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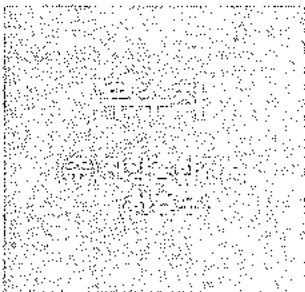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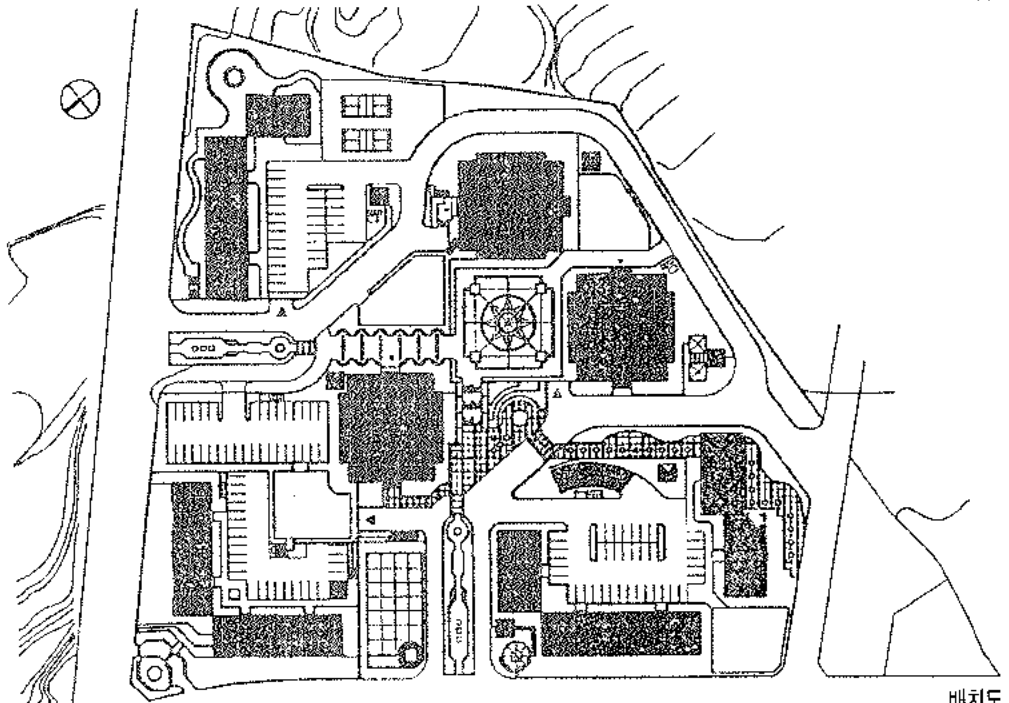
25평형 평면도



조감도



대지면적 / 28,350.00㎡
 건축면적 / 5,611.89㎡
 연면적 / 89,683.29㎡
 건폐율 / 235.38%
 세대수 / 961세대



배치도

□ 계획개념

-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성
- 공공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단지분리 구획으로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 단지내 중앙공원을 확보하

여 커뮤니티의 인식성을 높이고 단지의 구심축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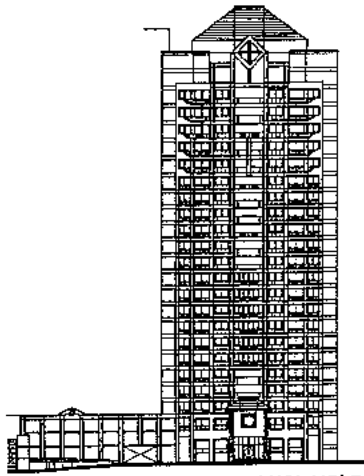
- 전통 건축의 배치 개념 도입, 공간의 흐름 유도
- 동선체계의 합리화
- 보차동선을 분리하여 보행

자 편의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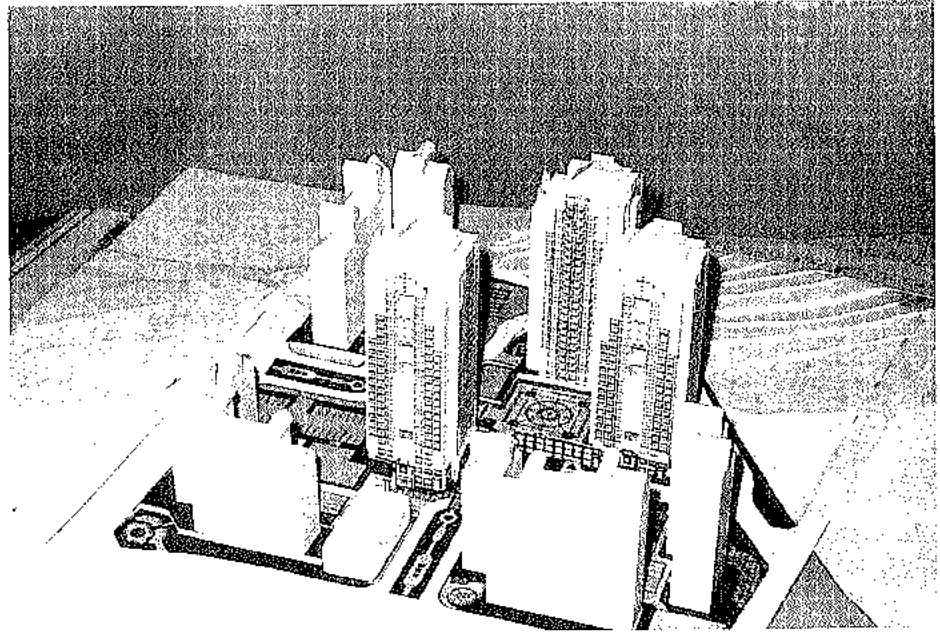
- 보행자 축을 설정하고 단지 내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 미래지향성 추구
- 획일화된 아파트 입면을 탈피하여 현대적 감각을 살리며, 미래지향적 이미지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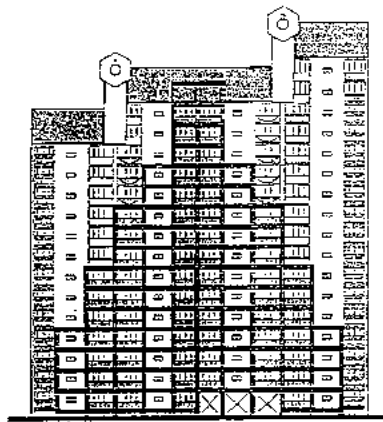
- 지형적 조건을 수용하고, 도시 Sky Line을 고려.
- 유효면적이 협소한 공간 배분지양. 공간의 연계성이 유지된 면적의 Open Space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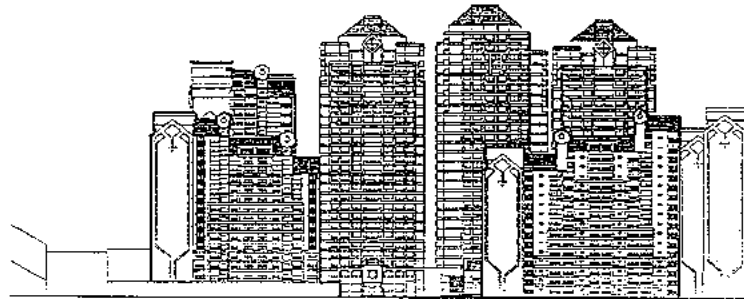
타워형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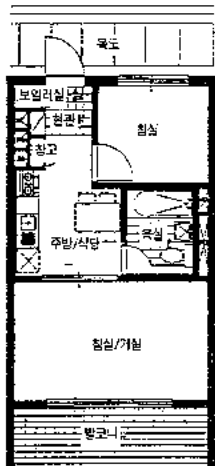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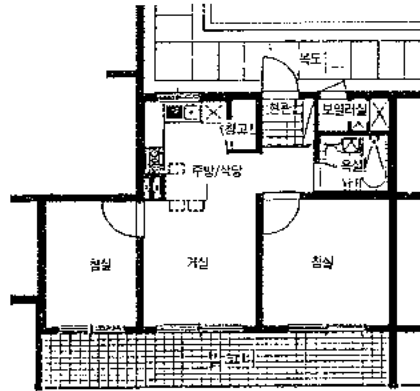
계단식형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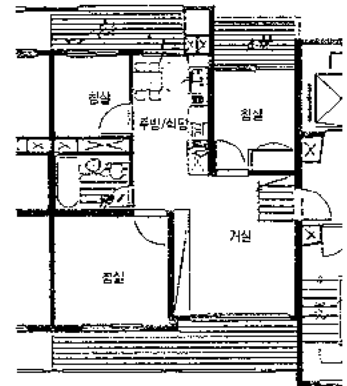
단지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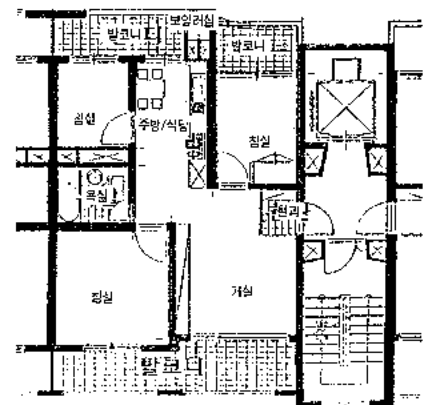
12평형 평면도



15평형 평면도



18평형 평면도



25평형 평면도

- 각 주거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웃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한 공간 확보
- 경제성 고려
- 서민 주택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적절한 평면, 공

- 간구성 모듈 및 경제적인 구조 모듈 선정
- 일조축을 고려하여 일조시간에 지속되도록 주동배치

1994년 10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 1천1백7십4만5천1백6㎡보다 4.4%(5십1만3천9백92㎡)증가한 1천2백2십5만9천98㎡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0월 누계 1억2백5십8만1천3백8㎡보다 16.2%(1천6백6십5만7백63㎡)증가한 1억1천9백2십3만2천71㎡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9월분 9백8십5만3천4백74㎡보다 24.4%(2백4십만5천6백24㎡)증가한 1천2백2십5만9천98㎡의 실적을 보였다.

地域別 前年對比 増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3년도	1994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060,528	1,673,565	612,565	57.8%
	대구	636,204	673,580	37,376	5.9%
	인천	265,429	357,676	92,247	34.8%
	광주	251,540	361,223	109,683	43.6%
	대전	162,872	236,200	73,328	45.0%
	충북	270,095	624,581	354,486	131.2%
	전북	293,679	475,036	181,357	61.8%
	전남	298,498	873,369	574,871	192.6%
	경북	645,833	940,730	294,897	45.7%
	경남	969,983	1,314,462	344,479	35.5%
	제주	80,699	85,906	5,207	6.5%
증가지역	부산	2,681,281	1,419,793	(1,261,488)	-47.0%
	경기	2,535,592	2,257,946	(277,646)	-10.9%
	강원	429,530	298,438	(131,092)	-30.5%
	충남	1,163,343	667,065	(496,278)	-42.7%
합	계	11,745,106	12,259,098	(513,992)	-4.4%

用途別 前月對比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 도 별	9월분	10월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675,416	610,656	(64,760)	-9.6%
다 세 대 주 택	306,512	320,106	13,594	4.4%
연 립 주 택	217,336	115,364	(101,972)	-46.9%
아 파 트	4,263,198	6,413,383	2,150,185	50.4%
근린생활시설	1,158,630	1,212,466	53,836	4.6%
중 교 시 설	65,299	74,461	9,162	14.0%
의 료 시 설	50,381	109,585	59,204	117.5%
교육연구시설	380,949	386,273	5,324	1.4%
업 무 시 설	342,441	342,182	(259)	-0.0%
숙 박 시 설	124,923	122,892	(2,031)	-1.6%
공 장	1,080,100	1,386,139	306,039	28.3%
기 타	1,188,289	1,165,591	(22,698)	-1.9%
계	9,853,474	12,259,098	2,405,624	24.4%

地域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0月分)

구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924	1,015	1,060,528	875	891	1,673,093	(49)	(124)	612,565	57.8%	
부산	848	1,335	2,681,281	818	1,031	1,419,793	(30)	(304)	(1,261,488)	-47.0%	
대구	1,045	1,758	636,204	1,169	1,321	673,580	124	(437)	37,376	5.9%	
인천	347	348	265,429	327	341	357,676	(20)	(7)	92,247	34.8%	
광주	298	347	251,540	273	279	361,223	(25)	(68)	109,683	43.6%	
대전	324	344	162,872	291	300	236,200	(33)	(44)	73,328	45.0%	
경기	1,925	3,038	2,535,592	1,600	1,954	2,257,946	(325)	(1,084)	(277,646)	-10.9%	
강원	686	946	429,530	454	543	298,438	(232)	(403)	(131,092)	-30.5%	
충북	608	759	270,095	456	554	624,581	(152)	(205)	354,486	131.2%	
충남	635	721	1,163,343	407	450	667,065	(228)	(271)	(496,278)	-42.7%	
전북	359	417	293,679	321	393	475,036	(38)	(24)	181,357	61.8%	
전남	600	787	298,498	451	708	873,369	(149)	(79)	574,871	192.6%	
경북	778	1,173	645,833	692	1,016	940,730	(86)	(157)	(294,897)	45.7%	
경남	1,162	1,572	969,983	995	1,225	1,314,462	(167)	(347)	344,479	35.5%	
제주	209	236	80,699	116	145	85,906	(93)	(91)	5,207	6.5%	
합 계	10,748	14,796	11,745,106	9,245	11,151	12,259,098	(1,503)	(3,645)	513,992	4.4%	()=마이너스

地域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10月分)

구분 건축사회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5,740	26,753	15,116,982	14,642	15,117	17,246,705	(11,098)	(11,636)	2,129,723	14.1%	
부산	9,350	12,303	11,193,838	9,084	10,392	8,571,062	(266)	(1,911)	(2,622,776)	-23.4%	
대구	12,196	15,770	6,562,567	13,270	14,148	6,499,453	1,074	(1,622)	(63,114)	-1.0%	
인천	5,954	6,185	5,156,752	4,462	4,622	5,655,006	(1,492)	(1,563)	498,254	9.7%	
광주	3,048	3,493	2,649,291	3,536	4,167	4,594,502	488	674	1,945,211	73.4%	
대전	3,535	3,904	3,362,956	3,782	4,009	3,063,618	247	105	(299,338)	-8.9%	
경기	18,917	24,582	23,122,676	18,958	23,064	27,119,833	41	(1,518)	3,997,157	17.3%	
강원	6,142	7,310	3,287,348	5,274	6,084	3,454,895	(868)	(1,226)	167,547	5.1%	
충북	6,551	8,238	4,006,713	5,829	6,925	4,426,561	(722)	(1,313)	419,848	10.5%	
충남	5,002	5,377	5,409,408	4,904	5,228	10,327,923	(98)	(149)	4,918,515	90.9%	
전북	3,561	4,301	3,696,690	3,536	4,248	4,776,377	(25)	(53)	1,079,687	29.2%	
전남	4,812	6,410	3,139,216	4,826	6,012	3,735,283	14	(398)	596,067	19.0%	
경북	7,558	10,787	6,865,531	7,354	9,912	8,794,864	(204)	(875)	1929,333	28.1%	
경남	11,010	14,026	8,174,257	10,492	12,459	9,880,797	(518)	(1,567)	1,706,540	20.9%	
제주	1,851	2,207	837,083	2,537	2,713	1,085,192	686	506	248,109	29.6%	
합 계	125,227	151,646	102,581,308	112,486	129,100	119,232,071	(12,741)	(22,546)	16,650,763	16.2%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0月分)

구분 용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2,783	3,176	526,316	2,748	2,821	610,656	(35)	(355)	84,340	16.0%	
다세대주택	385	453	177,234	634	692	320,106	249	239	142,872	80.6%	
연립주택	110	523	784,585	78	93	115,364	(32)	(430)	(669,221)	-85.3%	
아파트	236	1,143	5,532,731	196	1,021	6,413,383	(40)	(122)	880,652	15.9%	
근린생활시설	3,498	3,726	1,237,055	2,870	2,979	1,212,466	(628)	(747)	(24,589)	-2.0%	
종교시설	131	146	88,162	106	125	74,461	(25)	(21)	(13,701)	-15.5%	
의료시설	13	13	19,771	25	25	109,585	12	12	89,814	454.3%	
교육연구시설	144	179	182,950	162	219	386,273	18	40	203,323	111.1%	
업무시설	141	169	316,040	119	136	342,182	(22)	(33)	26,142	8.3%	
숙박시설	78	80	109,001	112	118	122,892	34	38	13,891	12.7%	
공장	853	1,417	1,186,959	868	1,261	1,386,139	15	(156)	199,180	16.8%	
기타	2,376	3,771	1,584,302	1,327	1,661	1,165,591	(1,049)	(2,110)	(418,711)	-26.4%	
합 계	10,748	14,796	11,745,106	9,245	11,151	12,259,098	(1,503)	(3,645)	513,992	4.4%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10月分)

구분 용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46,701	49,128	9,150,113	38,390	39,145	9,044,011	(8,311)	(9,983)	(106,102)	-1.2%	
다세대주택	9,247	10,119	4,570,745	6,966	7,515	3,514,866	(2,281)	(2,604)	(1,055,879)	-23.1%	
연립주택	688	1,528	2,216,433	953	1,191	1,767,136	265	(337)	(449,297)	-20.3%	
아파트	1,907	9,541	42,394,100	1,873	7,736	46,334,573	(34)	(1,805)	3,940,473	9.3%	
근린생활시설	37,499	39,763	14,209,032	37,545	38,680	16,943,362	46	(1,083)	2,734,330	19.2%	
종교시설	1,195	1,414	978,660	1,231	1,430	1,065,819	36	16	87,159	8.9%	
의료시설	165	174	271,081	213	242	619,419	48	68	348,338	128.5%	
교육연구시설	1,290	1,650	3,080,943	1,360	1,614	3,653,290	70	(36)	572,347	18.6%	
업무시설	1,323	1,457	3,439,408	1,131	1,226	3,616,813	(192)	(231)	177,405	5.2%	
숙박시설	1,115	1,177	1,525,083	1,710	1,807	2,166,033	595	630	640,950	42.0%	
공장	7,635	12,387	9,585,008	8,529	12,643	13,238,163	894	256	3,653,155	38.1%	
기타	16,462	23,308	11,160,702	12,585	15,871	17,268,586	(3,877)	(7,437)	6,107,884	54.7%	
합 계	125,227	151,646	102,581,308	112,486	129,100	119,232,071	(12,741)	(22,546)	16,650,763	16.2%	()=마이너스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총회 전경

본협회 제29회 정기총회가 25일(금) 오전 10시부터 본협회 대강당에서 재적대의원 497명중 4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건축사헌장낭독순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오용석 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무사안일이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고와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야하며, 건축문화창달을 책임진 이 시대의 건축전문인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가에 봉사하는 진정한 건축사상과 협회상 구현에 힘써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를 주축으로 전회원이 일심단결해 다

처울 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개임기간중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임·직원, 시·도회장 그리고 회원여러분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탄생되는 신임회장과 집행부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홍철차관보가 대독한 이날 치사에서 감우석 건설부장관은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에 발 맞추어 보다 넓은 안목으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기술향상을 통해 “세계화”를 추진해나가는 데 건축사여러분이 앞장서야 하겠으며 새시대의 건축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건축사상” 정립에 신임회장과 임원진을 구심점으로 전회원과 임직원이 한마음

으로 노력해 줄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공로패 수여가 있은 후에 94년도 임시총회 회의록을 유인물로 대체하여 승인하고, 추대위원의 추대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가 제1호의 안에 서 제8호의 안까지 일괄상정하여 심의에 들어갔다.

의안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 안 : 94년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 안 : 94년도 특별비상대책 특별회계 수지예산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 안 : 94년도 건축사시험 및 연수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의 안 : 임원개선

임기를 마치게되는 오용석회장의 뒤를 이어 새로이 집행부를 이끌어갈 21대 회장선거에 들어가 김규태, 김영수, 이신환회원이 입후보하여 정견발표에 이은 투표에 들어가 김규태(항도건축사사무소 대표)회원이 1차 투표에서 총 415명의 재적대의원 중 244표를 얻어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이사선임에 있어 신임회장의 추천에 의해 선임키로 함에 따라 신임회장의 추천과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종만(유임), 송인창, 김동준, 김태웅, 임인혁회원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감사는 이경호, 장성진, 김영석 회원이 추천되어 김영석 회원이 선출되었다.

· 제5호의 안 : 95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6호의 안 : 95년도 제1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7호의 안 : 95년도 제2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8호의 안 : 95년도 건축사연금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하고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개회사를 하는 오용석 회장



치사를 대독하는 홍 철 차관보

21대 회장에 김규태회원 당선

지난 11월 25일 본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9회 정기총회 신입회장 선거에서 김규태 회원(향도종합건축사사무소)이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시종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이날 신입회장 선거에는 김규태 회원외에 김영수, 이신환 회원이 입후보자로 나서 총투표수 415표 중 244표를 얻은 김규태 회원이 차기회장에 당선되었다.

김규태 신입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현재 협회가 안고 있는 당면현안문제의 해결이 무엇

보다 시급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협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 건축업체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주요약력

- 1933년 부산출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부산직할시건축사회장 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역임
- 현, 향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당선소감을 발표하는(왼내: 김규태 회원) 모습

신임 임원



李鍾萬 理事(유임)

1933년생

서울건축사회 서초지역건축사회 회장 역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역임
현, 녹야·현익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金東準 理事

1934년생

경남건축사회 회장 역임
현, (주)삼미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金泰雄 理事

1940년생

경북건축사회 회장 역임
현, 흥환건축사사무소 대표



宋寅昌 理事

1941년생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역임
현, 건축사사무소 신라대표



任仁嫻 理事

1940년생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 역임
현, 신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金永奐 監事

1933년생

서울건축사회 중구지역건축사회 회장
현, 극동·영건축사사무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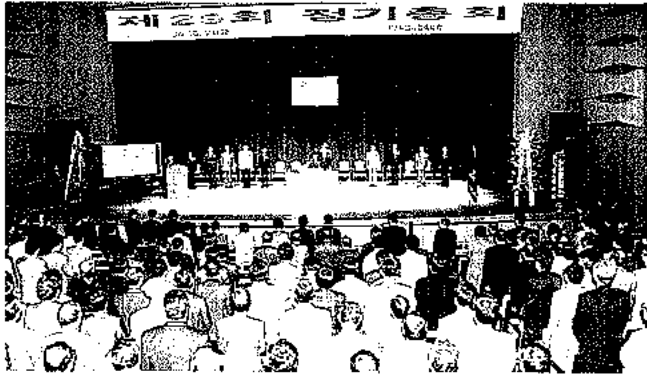


임기가 만료된 각 시도건축사회장 공로패 수여 광경



신임회장단 인사광경

94년도 시·도 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 건축사회 총회 광경

본 협회 15개 시·도건축사회의 제29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0일 제주도건축사회를 필두로 개최되어 95년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안)승인, 신임임원 선

출 등 주요안건을 의결, 처리하였다. 각 건축사회별 총회 부의 사항 주요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4. 10. 28(금)
- *개최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 *참석인원: 재적회원 2,270명 중 977명
- *의결내용
 - 95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95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은 1994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95년 1,2월을 집행하고 새 집행부가 새로운 예산을 작성하여 95년 임시총회에 재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직원 인건비 인상요인은 본 협회 예산안 승인결과에 따라 '95. 1월 부터 소급하여 지급키로 결의함.
 - 95년도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본 협회에서 신문발간과 함께 서울건축사신문을

부산직할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4. 10. 28(금)
- *개최장소: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 '94. 12월말로 폐간키로 의결함.
- 회장단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 대의원 선출 및 개선의 건
- 대의원 선출 및 개선은 구건축사회소속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되 지역에서 80%, 20%는 집행부에 위임하여 선출키로 의결함.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이의구
- 부회장: 성원미달로 '95. 2월 임시총회에서 선출키로 하되, 2명의 후보 신청자에 대하여는 접수가 유효하며, 95년에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추가로 후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함.
- 간사: 신임회장에 위임하여 선임토록 의결함.
- 감사: 박서홍

- *참석인원: 재적회원 493명 중 361명
- *의결내용

-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부회장 사퇴원 수리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선출의 건
- 회장: 박성길
- 부회장: 박신욱
- 간사: 신임집행부와 각

- 구 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선출토록 위임키로 결의
- 감사: 홍재동
- 대의원 선출의 건(선출 5, 개선 14, 계 19인)
- 신임집행부와 각구 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선출토록 위임키로 협의

대구직할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4. 10. 28(금)
- *개최장소: 대구 파크호텔
- *참석인원: 재적회원 324명 중 277명
- *의결내용:
 -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이진호

- 부회장: 정본진
- 간사: 류문대 · 김형모 · 최한군
- 감사: 장상희
- 대의원: 정본진 · 김형모 · 류문대 · 최한군 · 장상희 · 김선돌 · 김중배 · 유홍재 · 이병일 · 이재운 · 임해석 · 추경호 · 한석인 · 임두현

인천직할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4. 10. 25(화)
- *개최장소: 인천 오림포스 호텔
- *참석인원: 재적회원 167명 중 113명
- *의결내용:
 -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 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선출의 건
- 간사: 이봉은, 김현국(유임)
- 감사: 정상현
- 대의원 선출의 건
- 대상선출 인원 8명 회장에 위임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4. 10. 28(금)
- *개최장소: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132명 중 113명
- *의결내용:
 - 9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 수정 승인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정계경
- 부회장: 민삼철
- 간사: 노운기 · 안태경
- 감사: 현준철
- 대의원: 김덕수 · 민삼철 · 박영희 · 송양석 · 임재식 · 윤익상 · 조춘원 · 최수일 · 홍종식

대전직할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1994. 10. 26(수)
- *개최장소: 대덕 롯데호텔
- *참석인원: 재적회원 136명

- 중 125명
- *의결내용:
 -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차량유지비, 정보비, 정
액특별판공비, 업무추진
비에서 천만원 삭감하는
조건부 위안 승인의 건
·임원 개선의 건
—회장 : 류성희

—부회장 : 이영순

—간사 : 이길주, 이상목,
유창렬

—감사 : 석종구

·대의원 선출

—대의원 13명 선출

경기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1994. 11. 1(화)

*개최장소 : 수원 브라운 관
광호텔

*참석인원 : 재직회원 426명
중 250명

*의결내용 :

·95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
계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원안 통과

·95년 특별회계 수지예산
(안) 심의의 건

—원안 통과

·임원 개선의 건

—회장 : 최재남

—부회장 : 윤영재

—간사 : 이진우, 박로진,
우서균, 최의준, 황철동

—감사 : 한진택

·대의원 : 송인창, 임태
웅, 박효남, 정환철, 조

상호, 함재철, 이진우,

민병운, 황철동, 이종

은, 조은수, 임용수, 박

영목, 김춘경, 이재식,

김중권, 박영익, 최의

준, 이정복

강원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1994. 10. 27(목)

*개최장소 : 속초 설악파크
호텔

*참석인원 : 재직회원 86명
중 50명

*의결내용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회장 : 김길창(유임)

—간사 : 민경수(유임)

—감사 : 조강목(신임)

·대의원 : 홍영배(유임)

김화영, 김재철, 방승문,

정상원(신임)

충청북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1994. 10. 31(월)

*개최장소 : 청주명암파크호
텔

*참석인원 : 재직회원 91명
중 65명

*의결내용

·94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
의록 승인의 건

—원안승인

·94년도 추경예산(안) 승인

의 건

—원안승인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원안승인

·임원개선의 건

—회장 : 최호진

—간사 : 박성인

—감사 : 오수복

충청남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1994. 11. 3(목)

*개최장소 : 공주 관광호텔

*참석인원 : 재직회원 78명
중 55명

*의결내용 :

·9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승인의 건

—원안 통과

·임원개선의 건

—회장 : 이천규

—부회장 : 김현용

—간사 : 이광춘, 유이창,

권윤근

—감사 : 김현성, 김중근

전라북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1994. 10. 25(수)

*개최장소 : 경주 조선호텔

*참석인원 : 재직회원 93명
중 86명

*의결내용 :

·95년 사업계획(안) 및 수지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원안 통과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회장 : 이상돈

—간사 : 최영배

—감사 : 장기종

·대의원 : 염주호, 문상
식, 유철갑, 최락운

전라남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1994. 10. 21(금)

*개최장소 : 광주 추선회관

*참석인원 : 재직회원 56명
중 50명

*의결내용 :

·9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승인의 건

—일부 항목간 조정 승인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회장 : 노상익

—부회장 : 김준식

—간사 : 강형재, 윤문곤,

최윤호

—감사 : 장기태

·대의원 : 김인모, 김호
신, 이재필

경상북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1994. 10. 28(금)

*개최장소 : 경주 룡곡드 호텔

*참석인원 : 재직회원 121명
중 108명

*의결내용 :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의 건

—원안 승인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회장 : 김영철

—부회장 : 조무환

—간사 : 최병기, 조국환

—감사 : 임병욱

·대의원 : 김영철, 이영기,
조무환, 최종배

경상남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94. 10. 26(수)

*개최장소 : 창원 관광호텔

*참석인원 : 재직회원 272명
중 212명

*의결내용 :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 승인의 건

—원안 통과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임원개선의 건

—회장 : 이동일

—부회장 : 안병식

—감사 : 김성달, 배준기

—간사 : 이병술, 백종현,
송종태

제주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1994. 10. 25(화)

*개최장소 : 제주하니관광호
텔

*참석인원 : 재직회원 45명
중 39명

*의결내용

·95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

지예산(안) 승인의 건

—일부 조정 승인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회장 : 백형철

—간사 : 김석운, 고봉규

—감사 : 강은홍

·대의원 : 김수현, 강요준

신임 시·도 건축사회 회장



서울건축사회 회장
李 義 求
41년생
한양대 건축학과 졸업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창건축 대표



부산건축사회 회장
朴 成 吉
40년생
부산대 건축공학과 졸업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대표



대구건축사회 회장
李 健 鎬
38년생
영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현, 대도·환신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광주건축사회 회장
鄭 在 京
43년생
전남대 산업대학원 졸업
현, (주)원일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대전건축사회 회장
柳 聖 熙
41년생
충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현, 류성희 건축사사무소 대표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崔 在 楠
45년생
인하대 건축공학과 졸업
현, 건축사사무소 산양 대표



강원도건축사회 회장
金 吉 昌
40년생
홍익대 건축과 졸업
현, 구미 건축사사무소 대표



충북건축사회 회장
崔 浩 珍
45년생
대전공고 건축과 졸업
현, 대호건축사사무소 대표



충남건축사회 회장
李 天 珪
45년생
대전공고 건축과 졸업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토우대표



전북건축사회 회장
李 相 澈
47년생
전남대 대학원 건축과 졸업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대표



전남건축사회 회장
魯 相 翊
46년생
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현, 전일건축사사무소 대표



경북건축사회 회장
金 泳 哲
41년생
영남대 건축과 졸업
현, 현대건축사사무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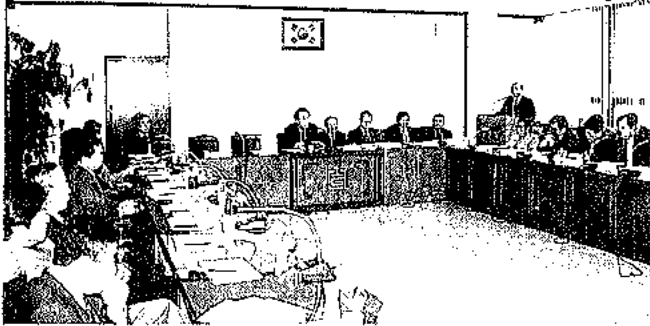


경남건축사회 회장
李 東 日
51년생
동국대 건축과 졸업
현, 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제주도건축사회 회장
白 亨 哲
38년생
동아대 건축공학과 졸업
현, 삼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본 협회의 주요당면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10월 10일(제33회)과 10월 25일(제34회), 10월31일(제35회), 11월 8일(제36회)에 각각 개최되어 보고사항에 이은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33회

- 제29회 정기총회 일정 결정의 건
- 정기총회 일정을 1994년 11월 25일 금요일 10시로 정하고, 부의안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유보함.
- 95년도 사업계획 및 회계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유보함.
- 공로회원 및 모범직원 표창 승인의 건
- 공로상에 이현규, 강행생 회원을 표창하고 모범직원상에 정명호를 표창하되, 시·도건축사회 총회에서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하며, 이후에 시·도건축사회의 추천자에 대한 수여여부는 회장에 위임함.
- 임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
-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임의적립금 2백9십9만6천6백30원을 사용하기로 결의함.
- 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일

자 변경 승인의 건
—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는 없으므로, 개최일자변경에 대한 회신은 회장에 위임함.

●제34회

-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
- 27일에 차관회의가 있을 예정이므로 26일에 회장, 법제위원장 및 인원이 같이 건설부를 방문하여 건축사법 제23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로 협의함.
- 성수대교 붕괴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협의
- 본협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이 건설부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고 발표내용에 따라 논의하기로 협의함.
- 단체인협회 “부실방지결의” 신문광고비 분담에 대한 협의
- 성수대교 붕괴는 분야가 다르므로 본 협회가 사과 광고에 연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으나, 이미 건설단체 협의회명으로 신문광고가 나간 상태이므로 건설부산하단체로서 이에대한 정

정요구를 하기는 시기상 맞지 않은 바, 단체협의회에 본 협회가 사과광고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차후로는 분담금을 하향조정해 주도록 요구하기로 협의함.

●제35회

-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
- 제23조 제8항 제3호에 대한 개선을 계속 노력하기로 함.

●제36회

- 제29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94년도 건축사 시험 및 연수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4천6백9십4만9천원을 94년도 건축사시험 및 연수특별회계에 추가경정하기로 승인함.
-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총 21명을 추대회원으로 추대하기로 승인함.
- 모범직원 표창 승인의 건
- 모범직원으로 13명을 표창하되, 후에 건축사회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표창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위임함.
-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안) 및 위로금 지급 승인의 건
- 장기근속자로서 협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 시에는 1천만원 이내에

서 위로금을 지급토록하는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전 총무부장 김명현에게 위로금 3백만원을 종전규정에 의거 지급하기로 승인함.

- 신문발간 준비요원 채용추진의 건
- 신문발간 준비요원으로 이준상, 박영신을 채용하기로 승인함.
- 직원 직급 및 정원 조정 승인의 건
- 유보함
- 예산목간전용 사용 승인의 건
- 건축사시험 특별회계 시험관리비중 인건비 1천5백만원, 보험료 4십만원을 감액하여 시험관리비로 1천5백4십만원을 증액하기로 추인하고, 일반회계 도서인쇄비 5백만원을 감액하여 소모품비로 증액하는 목간전용 사용을 승인함.
-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건축사지 특집호및 회원명부 중간에 따른 출판사업비 부족예산 8백만원을 특별회계 예비비에 사용하기로 승인함.
- 95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는 승인하되 특별회계는 제1특별회계, 제2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사업재원별로 회계를 묶어 안전을 구분하며, 계수변동없이 회계별 내용 조정을 회장에 위임함.

경북 건축사회, 제2회 경상북도 건축전 개최

경상북도건축사회는 지난 11월 30일 구미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경상북도 건축전을 개최했다.

경북회원들의 작품 42점이 전시되는 이번 건축전은 순회전시

화도 갖게되는데 점촌지역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문경상호신 용금고(3층)에서, 영주지역에서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은행전시장(2층)에서 각각 개최된다.

경남건축사회, 회원친선 바둑대회 개최



바둑대회 광경

경남건축사회는 지난 10월 24일(월) 오전 11시부터 제4회 회원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는 회원 42명이 참석, 안병환(부장, 신아,

진원종합건축사사무소)회원이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류열규(재원건축)회원이 준우승을, 주장호(우신건축)회원이 3위를 각각 차지하여 트로피 및 기념품을 수상하였다.

목원대, 건축·도시환경연구 심포지엄 개최

목원대학교 건축·도시환경 연구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목원대 스톡홀름 세미나실에서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축·도시환경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기승(목원대 건축학과)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장경호(문화재 연구소 소장)씨가 도시의 역사적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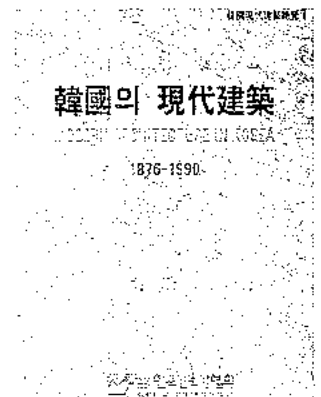
환경 보존방안에 대하여, 최효승(청주대 건축공학과 교수)씨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민문화운동 사례와 기업에 거는 기대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정동(목원대)교수와 김봉렬(울산대)교수가 참여했다.

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발간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승중)에서는 도서출판 기문당과 함께 「한국의 현대건축」을 발간하였다.

「한국의 현대건축」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1876~1990)의 한국건축계의 모든 것을 망라하여 집대성한 것으로 일제 압축기에는 건축의 위상을 지키고, 해방 후 전란의 시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으며, 그 후 경제 성장에 부응하여 근대화의 기술적 업적에 힘입어 예술성과 기능성을 조화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온 한국건축의 역사적 흐름을 기술 정리한 귀중한 자료로서 모든 건축인은 물론 이 분야의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가치 있는 필수서가 될 것이다. (A4·828쪽·양장·정가 100,000원)



한편, 한국건축가협회가 발간하게 될 『한국 현대건축 총람』은 본책 3권과 별책 1권을 합하여 모두 4권으로 구성되는데, 2권 「한국의 현대건축가 인명록」과 3권 「한국 현대건축 작품목록」은 2차 사업으로 1996년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경기대, 국내최초로 건축대학원 설립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일반대학원보다 교육내용을 더욱 전문화하여 건축설계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한 전문인의 배출을 목적으로 국내최초로 건축대학원을 설립한다.

이 건축대학원에서는 건축전, 특별강연회, 세미나, 외국과의

교환 프로그램, 건축여행, 작품집 및 논문집발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축도서관을 설립하여 정보센터로서 운용할 예정이다.

전형일시, 방법 및 모집인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 대학교 건축공학과(02-390-5154, 5158)로 문의.

제1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수상작 발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승중)는 지난 11월 18일(금) 제13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수상작 및 입선작을 발표하였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도애박물관'을 설계한 김성욱(홍익대 4년)씨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물을 찾아서'의 박정대(서울대 4년),

'발굴된다는 것은...'의 이상원(홍익대 4년), '상징에 대하여 -동학기념관'의 이동규씨(연세대 4년)가 수상하였으며, 수상작과 입선작은 27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